

中央語文學會
<第31次 全國 學術大會>

- ◇ 기 획 주 제 : 21세기 고전문학의 연구 동향
- ◇ 일 시 : 2014년 1월 17일 (금) 13:30~17:30
- ◇ 장 소 : 중앙대학교 서라벌홀(문과대학) 814(개회식, 폐회식)
국어학 816, 고전문학 814, 현대문학 818
- ◇ 주 최 : 중앙어문학회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第31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 기 획 주 제 : 21세기 고전문학의 연구 동향
- ◇ 일 시 : 2014년 1월 17일 (금) 13:30~17:30
- ◇ 장 소 : 중앙대학교 서라벌홀(문과대학) 814(개회식, 폐회식)
국어학 816, 고전문학 814, 현대문학 818
- ◇ 주 최 : 중앙어문학회

◇ 전체 식순

- (1) 회원등록 (13:00~13:20)
- (2) 개회사 (13:20~13:30) 사회 : 안기수 회장(남서울대)
- (3) 분과별 발표 (13:30~17:30)
- (4) 폐회식 (17:30~)
- (5) 저녁 만찬 및 친교의 시간 (17:30~)

<第31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국어학 분과 발표>

사회: 임현열(중앙대) / 장소: 중앙대 서라별호 816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3:30~14:20	결과 구성과 동사의 상적 속성	김윤신 (신라대)	홍윤기 (경희대)
14:20~15: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 직장인을 중심으로 -	유양중 (중앙대)	윤경선 (중앙대)
15:10~15:30	중간 휴식		
15:30~16:20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을 다시 생각함	엄홍준 (계명대)	목정수 (서울시립대)
16:20~17:10	명사의 의존 용법과 규정 기능 - 양식적 공간명사를 중심으로 -	이영재 (고려대)	원광연 (고려대)
17:10~17:30	종합토론		

* 발표 25분 토론 25분입니다.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第31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고전문학 분과 발표>

사회: 김성문(중앙대) / 장소: 중앙대 서라별호 814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3:30~14:10	「李生窺牆傳」의 美的 原理와 意味 研究	유권석 (남서울대)	소인호 (청주대)
14:10~14:50	21세기 고전문학 연구 동향 - 『어문론집』 수록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김용기 (시온고)	이명현 (중앙대)
14:50~15:40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과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기법적 특성	강우규 (남서울대)	홍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15:40~16:00	중간 휴식		
16:00~16:40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의 편찬 양상과 그 의미	윤태식 (서울시립대)	정숙인 (중앙대)
16:40~17:20	許世旭 역본 <春香傳>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왕비연 (고려대)	김령매 (경희대)
17:20~17:30	종합토론		

* 발표 20분 토론 20분입니다.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第31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현대문학 분과 발표>

사회: 류찬열(중앙대) / 장소: 중앙대 서라별호 818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3:30~14:20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	김효석 (순천향대)	강진구 (중앙대)
14:20~15:10	정지용 시의 근대의식과 도시적 감수성	남승원 (경희대)	정은기 (경희대)
15:10~15:30	중간 휴식		
15:30~16:20	읽기·말하기·쓰기를 연계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 - 중앙대 <독서와 토론> 강의사례를 중심으로 -	손혜숙 (군산대)	한승우 (중앙대)
16:20~17:10	한국현대 소설에 나타난 문신의 유형과 그 의미	곽상인 (공주대)	이재용 (인하대)
17:10~17:30	종합토론		

* 발표 25분 토론 25분입니다.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국어학〉

결과 구성과 동사의 상적 속성	김윤신 /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직장인을 중심으로-	유 양 /	15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을 다시 생각함	엄홍준 /	29
명사의 의존 용법과 규정 기능-양식적 공간명사를 중심으로-	이영재 /	35

〈고전문학〉

「李生窺牆傳」의 美的 原理와 意味 研究	유권석 /	47
21세기 고전문학 연구 동향-『어문론집』수록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김용기 /	57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과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기법적 특성	강우규 /	73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의 편찬 양상과 그 의미	윤태식 /	83
許世旭 역본 <春香傳>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왕비연 /	93

〈현대문학〉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김효석 /	115
정지용 시의 근대의식과 도시적 감수성	남승원 /	133
읽기·말하기·쓰기를 연계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독서와 토론> 강의사례를 중심으로-	손혜숙 /	143

<국어학>

1. 결과 구성과 동사의 상적 속성
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직장인을 중심으로
3.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을 다시 생각함
4. 명사의 의존 용법과 규정 기능:
양식적 공간명사를 중심으로

결과 구성과 동사의 상적 속성

김윤신(신라대)

1. 머리말

결과 구성(resultative construction)은 문장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내의 또 다른 구성을 말하며 국어에서는 주로 ‘-게’나 ‘-도록’ 등의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 34)에 의하면 영어의 결과 구성은 동사가 지시하는 동작(action)의 결과로서 서술되는 직접 목적어 명사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이때 직접 목적어 명사구의 상태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결과이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대표적인 영어의 결과 구성을 포함하는 구문에 해당한다.

- (1) 가. She wiped the table *clean*.
- 나. He hammered the metal *flat*.
- 다. The dog barked *the neighbors awake*.
- 라. She sang *herself hoarse*.
- 마. The puddle froze *solid*.

(1)에서 밑줄 친 부분이 결과 구성에 해당하며 이러한 영어의 결과 구성은 일반적으로 결과 상태의 종결성(telicity)을 보이며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에서는 (1)과 같은 예로부터 결과 구성의 서술어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1가), (1나)와 같은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이거나 (1다)와 (1라)와 같은 예외적인 격표지(ECM)를 붙인 목적어로 실현되며 또는 (1마)와 같이 비대격 동사의 주어로 실현된다. 논항 구조의 측면에서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나 비대격 동사의 주어는 모두 실질적으로는 동사의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문에도 전치사로 표현되는 결과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

- (2) He ran into the room.

이때에도 동사 ‘run’은 동작을 나타내는 비능격 동사이며 밑줄 친 전치사구 결과 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단순한 이동의 과정만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해석되지만 ‘into the room’이라는 전치사구와 결합하여 종결성을 갖는 사건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대격성 가설과는 무관해 보인다. 따라서 결과 구성이 전체 동사의 비대격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과 구성에 대한 연구는 우선 문장의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의 연결 관계에 초점

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1가), (1나), (1마)와 같이 결과 구성에 의미상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유형과 (1다), (1라)와 같이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유형에 대한 논의가 특히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음과 같은 국어의 결과 구성은 이와는 그 형태와 의미에서 다른 점이 있고 결과 구성의 판정 기준에 대한 동의도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사 구조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쉽지 않았다.

- (3) 가. 그 여자는 탁자를 깨끗하게/깨끗이 닦았다.
- 나. 그 사람은 죄를 평평하게 폈다.
- 나. ??*그 사람은 죄를 평평하게 두들겼다.
- 다. 그 개는 이웃이 다 깨게 짖었다.
- 라. 그 여자는 목이 쉬게 노래를 불렀다.
- 마. 그 웅덩이가 단단하게/꽝꽝 얼었다.
- 바. 그 남자는 방까지 뛰었다.
- 바'. 그 남자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1)과 (2)를 국어로 옮겨 해당하는 결과 구성을 제시해 보았다. 국어에서는 영어의 소위 2차 술어에 해당하는 밑줄 친 부분이 부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연결 어미 '-게'나 '-도록'으로 실현되는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실현되며 그 기능은 부사어와 대동소이하 다. 그러나 영어의 결과 구성이 모두 국어에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실제로 (1나)는 (3나)의 hammer와 등가의 의미를 갖는 '두들기다'를 사용하면 결과 구문으로 읽히지 않고 오히려 '펴다'라는 결과 상태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로 바꾸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문장이 된다. 이는 (2)를 옮긴 (3바)에서도 알 수 있다. (2)를 그대로 옮긴 것은 (3바')이지만 이것은 적절한 국어 결과 구문으로 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3바)와 같은 문장으로 옮긴다면 의미는 다르나 비슷한 유형의 결과 구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3다)와 (3라)는 다른 예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밑줄 친 부분을 문두로 옮겨도 그 뜻에 변화가 없다.

- (4) 가. 이웃이 다 깨게 그 개는 짖었다.
- 라. 목이 쉬게 그 여자는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구성은 두 개의 이어진 문장으로 나타난 구성이므로 다른 결과 구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와시오(1997:440)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결과 구성을 유사 결과 표현(spurious resultatives)이라고 부른다.

(1), (2), (3)의 예들을 살펴보면 결과 구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대격성 가설이나 직접 목적어 제약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또한 영어의 결과 구성과 다른 국어의 결과 구성이 갖는 특징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실은 와시오(1997)에서 이미 관찰된 바가 있고 또 김영민(2011)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어와 일본어의 결과 구성에 유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3다)와 (3라)에 해당하는 유형은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 구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각 문장의 동사가 갖는 상적 속성과 결과 구성의 해석 양상을 연관

지어 살펴보기로 한다.¹⁾ 이를 위해 동사를 동작 동사와 상태 변화²⁾ 동사로 크게 나누고 이 동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³⁾ 또한 전체 문장의 해석 과정을 Pustejovsky(1995)의 생성 어휘부 이론을 통해 파악해 보고 이 과정에서 합성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동사의 상적 속성과 결과 구성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동작 동사와 결과 구성

동작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대격성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결과 구성의 제약에는 어긋난다. 먼저 전형적인 동작 동사에 나타나는 결과 구문의 예를 살펴보자.

- (5) 가. *?철수가 지치게 뛰었다.
 나. *?철수가 피곤하게 뛰었다.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결과 구성과는 달리 ‘-게’ 형의 결과 구문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결과 구문의 동사가 비대격 동사가 아닌 비능격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신 다음과 같은 부사격 조사로 도입되는 부사어가 나타나면 이 문장은 단순한 동작 사건에서 결과 상태를 포함하는 복합 사건이 된다.

- (6) 가. 철수가 학교까지 뛰었다.
 나. 철수가 학교로 뛰었다.
 (7) 가. 철수가 학교까지 뛰었다. ⇒ 철수가 학교에 있다.
 나. 철수가 학교로 뛰었다. ⇏ 철수가 학교에 있다.
 (8) 가. *철수가 학교까지 뛰었는데 철수가 아직 학교에 안 와서 없다.
 나. 철수가 학교로 뛰었는데 철수가 아직 학교에 안 와서 없다.
 (9) 가. 철수가 학교까지 십 분 만에 뛰었다.
 나. *?철수가 학교로 십 분 만에 뛰었다.

(6)에서와 같이 부사어는 도달점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까지’와 방향 부사격 조사인 ‘로’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함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7가)의 ‘학교까지’는 사건의 종결점인 ‘학교’를 명시하여 ‘철수가 학교에 있다.’라는 명제를 함의하게 되는 반

1) ‘-게’와 ‘-도록’의 교체 여부도 우선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2) 이 논문에서는 우선 ‘상태 변화’의 의미를 조금은 포괄적으로 잡기로 한다. 대상 자체의 본질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나 위치상의 변화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이것은 상태 변화의 피위주(patient)와 위치 변화의 대상(theme)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대상’으로 지칭하는 입장과 유사하다. 좀 더 세밀한 분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3) 사실은 Vendler 식의 상적 부류(Aktionarts)를 따라 상태(state), 동작(activity),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용어가 실제로 혼란스럽게 사용되며 이 논의에서는 굳이 4개의 부류를 모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작 동사와 상태 변화 동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상태 변화 동사에는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가 포함된다.

면 (7나)의 ‘학교로’는 학교 쪽으로라는 방향만을 나타낼 뿐 ‘철수가 학교에 있다.’라는 명제를 반드시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8)과 같이 결과 구문에 해당하는 의미를 취소하는 구문을 연결하여 보아도 결과 상태의 함의가 일어나는 (8가)는 비문법적인 문장이고 그렇지 않은 (8나)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9가)는 시간틀 부사구인 ‘십 분 만에’와는 공기하나 (9나)는 불가능한데 이는 전형적인 달성 사건(achievement event)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건 구조의 변화를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공동 합성(co-composition)으로 설명한다. 이 경우 전체 문장의 사건 구조는 원래 동사 ‘뛰다’의 사건 구조에 ‘학교까지’라는 부사구의 사건 구조가 결합하여 합성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Pustejovsky(1995)의 어휘 의미 구조를 바탕으로 이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가.

$$\left[\begin{array}{l} \text{학교까지} \\ \text{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_1 = e_1: \text{과정(process)} \\ \text{사건}_2 = e_2: \text{상태} \\ \text{선후 관계} = < \alpha \\ \text{중점} = e_2 \end{array} \right] \\ \text{논항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text{①} \left[\begin{array}{l} \text{유정물} \\ \text{형상역} = \text{생물체} \end{array} \right] \\ \text{논항}_2 = \text{②} \left[\begin{array}{l} \text{도달점} \\ \text{형상역} = \text{학교}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형상역} = \text{에_있다}(e_2, \text{①}, \text{②}) \\ \text{작인역} = \text{움직이는_동작}(e_1, \text{①})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나.

$$\left[\begin{array}{l} \text{뛰다} \\ \text{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_1 = e_1: \text{과정(process)} \end{array} \right] \\ \text{논항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text{①} \left[\begin{array}{l} \text{유정물} \\ \text{형상역} = \text{생물체}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동작_}lcp \\ \text{작인역} = \text{뛰는_동작}(e_1, \text{①})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9가)와 (9나)의 작인역이 공통이므로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복합 사건으로 합성될 수 있다. Pustejovsky(1995:124)는 이와 같이 동사와 보어 명사구가 이와 같이 특질 구조에서 공동 명세하는 역할이 있는 경우에 각 어휘 의미 구조의 자질 통합(feature unification)을 통해 특질 구조를 합성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공동 합성(co-composition)’이라고 하였다. 이 공동 합성 작용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학교까지 뛰다’의 의미 구조가 형성된다.

(10)

$$\left[\begin{array}{l} \text{학교까지 뛰다} \\ \text{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_1 = e_1: \text{과정(process)} \\ \text{사건}_2 = e_2: \text{과정(process)} \\ \text{사건}_3 = e_3: \text{상태(state)} \\ \text{선후 관계} = < \infty \\ \text{중점} = e_3 \end{array} \right] \\ \text{논항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text{①} \left[\begin{array}{l} \text{유정물} \\ \text{형상역} = \text{생명체} \end{array} \right] \\ \text{논항}_2 = \text{②} \left[\begin{array}{l} \text{도달점} \\ \text{형상역} = \text{학교}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산출_lcp} \\ \text{형상역} = \text{예_있다}(e_3, \text{①}, \text{②}) \\ \text{작인역} = \text{뛰는_동작}(e_1, \text{①}), \text{움직이는_동작}(e_2, \text{①})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10)과 같이 결과 구성을 형성하는 ‘학교까지’와 ‘뛰다’가 공동 합성된 의미 구조이다. (9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결과 상태에 중점이 부여된 두드러진 구조이므로 합성의 결과인 (10)에서도 그 결과 상태의 중점이 유지되어 달성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 결과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학교로’는 방향만 표시하는 명사구로 (9나)와 달리 과정만을 나타내므로 공동합성이 된 이후에도 과정의 사건만을 나타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뛰다’와 같은 자동사인 동작 동사 이외에 다음과 같은 타동사인 동작 동사의 경우에는 결과 구문의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결과 상태의 함의가 잘 유지되는 경우이나 다음과 같은 예는 그 함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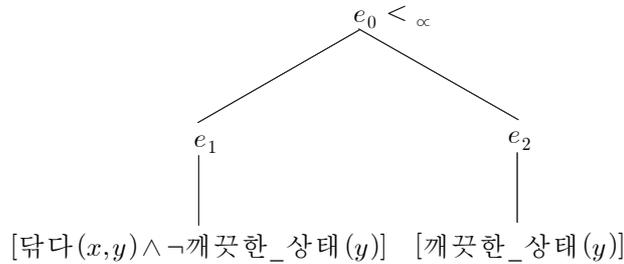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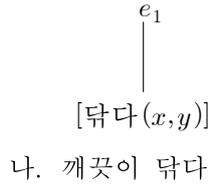
- (11) 가. 영희는 철수를 아프게 때렸다.
- 나. 영희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 (12) 가. 영희는 철수를 아프게 때렸다. ⇒ 철수가 아프다.
- 나. 영희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 탁자가 깨끗하다.
- (13) 가. 영희는 철수를 아프게 때렸지만 철수는 아프지 않다.
- 나. 영희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지만 탁자가 깨끗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상태 함의의 취소 가능성으로 인해 이 구문들이 결과 구성이나 아니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 구문은 결과 구성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홍기선(2011:1143)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의도되거나 기대되는 결과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며 와시오(1997)도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국어나 일본어의 결과 구성은 대체로 결과 구성의 의미를 동사의 원래 의미와 완전히 독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러한 구성들도 결과 구성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결과 구성에서 기술하는 동사가 결과를 보장하는 술어가 아닌 과정 사건만을 갖는 단일 사건 구조를 갖는 것으로 결과 구성의 결과 상태가 부가적인 요소로 추가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목적어인 대상의 영향 입음성(affectedness)도 비대격 동사나 상태 변화 동사의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동사들은 결과 상태가 두드러지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

다.

그러면 ‘닭다’의 사건 구조와 ‘깨끗하게 닭다’의 사건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자.

(14) 가.



다만 이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공동-합성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깨끗하다’라는 술어가 결합하여 복합 사건이 되면서 상태 변화를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태 변화의 전형적인 요소인 상태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양상은 유형 강제(type coercion)의 한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맥락적인 측면에 의존하여 일어나기도 하므로 결과 상태의 함의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상태 변화 동사와 결과 구성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크게 주어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와 목적어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의 상태 변화가 다시 주어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재귀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각각의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 구문을 살펴보자.

먼저 주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동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비대격 동사이다.

(15) 가. 빵이 까맣게 탔다.

나.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대로 이 경우는 비대격 동사의 논항으로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 변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themet) 논항이다.

(16) 가. 빵이 까맣게 탔다. ⇒ 빵이 까맣다.

나.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 ⇒ 얼음이 단단하다.

(17) 가. *빵이 까맣게 탔지만 빵이 까맣지 않다.

나.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지만 얼음이 단단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16)에서와 같이 결과 상태가 반드시 함의되고 (17)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 상태를 취소하는 문장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타동사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18) 가. 어머니께서 빵을 맛있게 구우셨다.

나. 그 선생님은 제자를 훌륭하게 키웠다.

(18가)는 어떤 대상에 영향을 가하여 목적어로 제시된 대상 논항을 만들어 내는 산출 동사(creation verb)이며 (18나)는 주어가 대상에 영향을 주어서 ‘맛있게’ 활용형이 나타내는 술어의 상태가 되도록 상태를 변화시키는 상태 변화 동사이다. 산출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인 ‘탐’이나 ‘빵’이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결과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결과물임을 알 수 있는데 결과 구성은 그 결과물의 상태에 대한 기술을 덧붙이는 역할을 한다. (18나)의 경우에도 목적어인 ‘제자’를 주어인 ‘그 선생님이’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목적어 논항이 영향을 입는 피위주 논항임이 분명하고 그 영향 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훌륭하게’는 제자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물론 결과 구성의 술어로 ‘훌륭하다’와 같은 열린 술어가 형용사가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기 는 하나 성장의 결과가 훌륭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어 논항의 상태 변화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형용사도 원래 동사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결과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동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먹다’와 같은 동사로 논항 명사의 특성에 따라서 동작 동사로도 또 완성 동사로도 사용되는 타동사인 상태 변화 동사이다.

(19) 가. 철수가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나. 철수가 떡을 남김없이 먹었다.

(19가)의 밑줄 친 ‘배부르게’는 모두 떡을 먹은 행위자인 철수의 결과 상태이고 (19나)의 밑줄 친 ‘남김없이’는 행위자인 철수가 모든 행위를 끝낸 다음에 나타나는 목적어인 ‘떡’의 상태이다 이와 같이 ‘먹다’와 함께 나타나는 결과 구문이 목적어만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지 않고 전체 문장의 주어도 의미상의 주어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합하는 ‘게’와 결합하는 이차 술어에 따라서 주어의 결과 상태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결과 상태를 수식할 수도 있다. ‘먹다’의 경우 대상이 되는 논항이 맥락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생략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이와 같은 결과 구성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20) 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철수가 배부르게 먹었다.

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철수가 남김없이 먹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먹다’가 나타내는 상태 변화가 표면적으로는 목적어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식물의 섭취라는 행위의 결과는 피위주 논항이 되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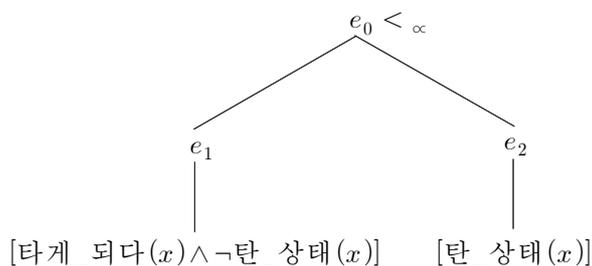
라 섭취의 행동주 논항에게도 나타나는 독특한 재귀성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재귀성을 보이는 또 다른 부류의 상태 변화 동사인 ‘입다’에서도 나타난다.

- (21) 가. 오늘 나는 옷을 두껍게 입었다.
 나. 오늘 나는 옷을 얇게 입었다.
 (22) 가. 오늘 나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두껍다.
 나. 오늘 나는 옷을 입었는데 내가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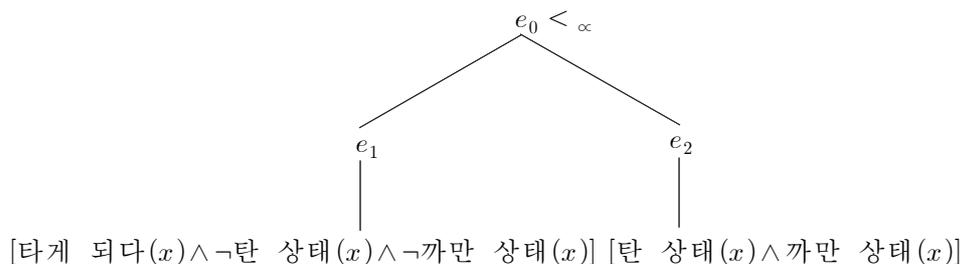
따라서 이와 같은 동사 구문의 경우에는 목적어인 대상 논항뿐만 아니라 주어인 행동주 논항도 영향을 입는 것이며 이 두 논항이 모두 결과 구성의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논항의 통사적 실현 여부를 떠나 동사의 영향을 입느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34)의 비대격성 가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변화 동사의 사건 구조와 결과 구성의 사건 구조를 생성 어휘부 이론의 공동 합성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비대격 자동사인 ‘타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23) 가. 타다



나. 까맣게 타다



이 경우에는 ‘까맣다’라는 상태 술어가 ‘타다’라는 상태 변화 동사와 상태 술어 부분과 동일 유형에 속하므로 공동 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3절의 (14나)와는 다른 점이고 이로 인해 이 결과 구성의 결과 상태가 함의되는 것이다. (18나)는 타동사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굽다’와 같은 창조 동사를 살펴보자. 창조 동사 ‘굽다’는 다음과 같은 어휘 의미 구조를 바탕으로 공동 합성이 일어난다.

(24) 가.

$$\left[\begin{array}{l} \text{굽다} \\ \text{사건 구조} = \left[\text{사건}_1 = e_1: \text{과정(process)} \right] \\ \text{논항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textcircled{1} \left[\begin{array}{l} \text{유정물} \\ \text{형상역} = \text{물리적대상} \end{array} \right] \\ \text{논항}_2 = \textcircled{2} \left[\begin{array}{l} \text{물질} \\ \text{형상역} = \text{물리적대상}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상태변화_lcp} \\ \text{작인역} = \text{굽는_동작}(e_1, \textcircled{1}, \textcircled{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나.

$$\left[\begin{array}{l} \text{빵} \\ \text{논항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x: \text{음식물} \\ \text{D-논항}_1 = y: \text{물질} \end{array} \right] \\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인공물_lcp} \\ \text{형상역} = x \\ \text{구성역} = y \\ \text{기능역} = \text{먹다}(e_2, z, x) \\ \text{작인역} = \text{굽는_동작}(e_1, w,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다.

$$\left[\begin{array}{l} \text{빵을 굽다} \\ \text{사건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사건}_1 = e_1: \text{과정(process)} \\ \text{사건}_2 = e_2: \text{상태(state)} \\ \text{선후 관계} = <_{\infty} \\ \text{중점} = e_1 \end{array} \right] \\ \text{논항 구조} = \left[\begin{array}{l} \text{논항}_1 = \textcircled{1} \left[\begin{array}{l} \text{유정물} \\ \text{형상역} = \text{물리적대상} \end{array} \right] \\ \text{논항}_2 = \textcircled{2} \left[\begin{array}{l} \text{인공물} \\ \text{형상역} = \text{물리적대상} \\ \text{구성역} = \textcircled{3} \end{array} \right] \\ \text{D-논항}_1 = \textcircled{3} \left[\begin{array}{l} \text{재료} \\ \text{형상역} = \text{물리적대상}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산출_lcp} \\ \text{형상역} = \text{존재하다}(e_2, \textcircled{2}) \\ \text{작인역} = \text{굽는_동작}(e_1, \textcircled{1}, \textcircl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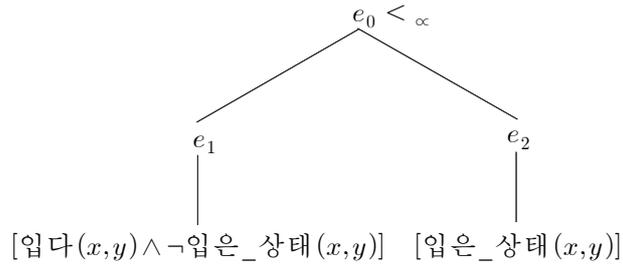
공동 합성을 통해서 (24다)와 같은 구조가 도출되는데 ‘맛있게’와 같은 결과 상태는 특질 구조의 형상역에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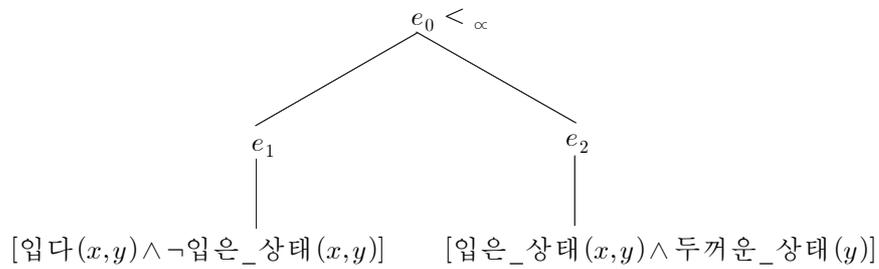
$$\left[\begin{array}{l} \text{특질 구조} = \left[\begin{array}{l} \text{산출_lcp} \\ \text{형상역} = \text{존재하다}(e_2, \textcircled{2}) \wedge \text{맛있는_상태}(e_2, \textcircled{2}) \\ \text{작인역} = \text{굽는_동작}(e_1, \textcircled{1}, \textcircl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마지막으로 재귀적 속성을 보이는 동사 ‘입다’의 결과 구성의 사건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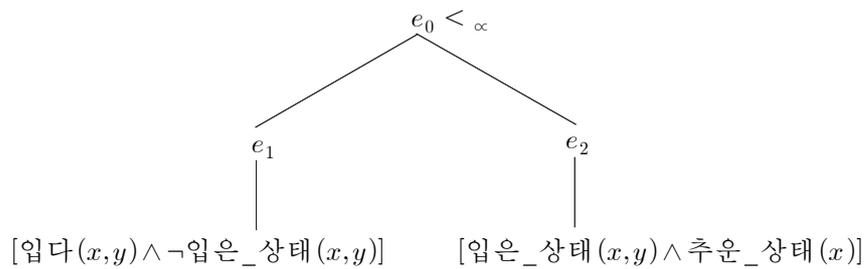
(26) 가.



나.



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 특히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결과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 구성에 대한 연구가 비대격성 가설의 근거로 주장되었으므로 결과 구성과 함께 나타나는 동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를 통해서 비대격성 가설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사의 특징에 따라 달리 결과 구성의 의미상 주어가 달라지고 결과 상태의 함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한 동사의 상적 속성에 대한 정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남은 문제는 필자에게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경학(2005), 결과구문의 통사의미특성과 사건구조, 『어학연구』 4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17-541.
- 김영민(2011), 결과구문의 분류에 관한 일고찰 - 한국어와 일본어의 결과구문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제86집, 1-13.
- 송홍규(2007), 국어 결과구문의 구성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제46호, 191-225.
- 양정석(2002), 국어의 이차 서술어 구문 연구,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1-57.
- 오충연(2010), 국어 결과 구문의 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26(3), 한국현대언어학회, 596-619.
- 와시오 류이치(1997), ‘결과표현의 유형’, 『어학연구』 33-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35-462.
- 이숙(2007), ‘-게’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233-256.
- 탁기현(2004), 결과구문과 상적 구조, 『영어영문학』 46(1),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1913-212
- 황주원(2011), 한국어 결과구문의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16, 한국어의미학회, 531-556.
- 홍기선(2011), 영어의 결과구문과 한국어의 “게” 구문,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1143-1169.
- Lee, J. and C. Lee (2003),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s, *Th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PSG*, 169-186.
- Levin, B. and M. Ra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IT Press.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A: MIT Press.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Cambridge, MIT Ph.D. Dissertation.
- Tenny, C.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Dordrecht: Kluwer.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 직장인을 중심으로 -

유양(중앙대)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어를 학습한 후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며 화행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들에 대한 화행 전략 연구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한국어교육에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적잖이 나와 있으나 그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보다는 비교적 조사, 연구가 수월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직장인과 유학생을 비교했을 때 직장인이 유학생보다 화행 전략의 부족함 내지는 잘못된 화행 전략으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화행 중 불평 화행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불평 화행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의 체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용 여하에 따라서는 자신의 체면도 위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화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화행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일단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불평 화행 전략을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장인들에게 알맞은 담화 완성형 테스트 문항을 구성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불평 화행 양상도 조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았다.

2. 조사 방법

2.1. 불평 화행 전략의 분류와 화행을 결정하는 사회적 변인

불평 화행을 실현할 때 사용되는 전략, 즉 불평 화행 전략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행해졌다. 첫째는 전략의 직·간접성 여부에 따른 직접 불평 화행 전략과 간접 불평 화행 전략이고, 둘째는 담화 상황의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화자 중심 전략과 청자 중심 전략이다. 본고에서는 담화 참여자인 화·청자보다 직·간접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불평 화행 전략을 좀 더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전략간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와 태도상의 미묘한 차이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실제적인 불평 화행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불평 화행의 실현에 작용하는 사회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자. 실제적인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을 조사함에 있어 사회적 변인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변인에 따라 화행 전략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행 전략을 조사할 때 고려되는 사회적 변인은 크게 사회적 지위와 나이, 친밀도, 성 등이다. 불평 화행의 조사에서도

이들 요소들은 모두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변인으로 하고, 이 외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기간을 포함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1)과 같다.

(1) 조사에서 고려한 화·청자의 사회적 변인과 불평의 정도

-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 화·청자의 나이
- 화·청자 간의 친밀도
- 화·청자의 성별
- 화자의 입사 기간

또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마다 그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 속 불만의 정도와 실제 표현하는 불평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평의 정도’(마음속 불만의 정도 및 실제 표현하는 불평의 정도)를 포함하여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1)의 변인별 피조사자가 불평할 때 어떤 상위 전략 및 대응법을 쓰는지,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표현 불평 정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2.2. 조사 대상자와 조사 내용

2.2.1. 조사 대상자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하였다.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 응답자들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중국인) 및 한국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중국인 모어 화자 중에서 한국어 능력 중급 및 고급 소지자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DCT 설문지 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다음 <표 1>은 조사 대상자의 나이, 성별, 입사 기간 분포이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나이, 성별, 입사 기간 분포

(단위: 명)

변인 \ 국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나이		24~30	25~30
인원수		20	20
성별	남	5	12
	여	15	8
입사 기간	1년 이하	7	6
	1년~3년	13	14

2.2.2. 조사 내용

2.1.에서 기술한 화·청자의 사회적 변인과 불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평 화행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한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불평 상황 DCT의 구성 요소 내용

화청자 ¹⁾ 의 사회적 지위	화청자 간의 친밀도	성별	나이	입사 기간	불평의 정도	상황
상	친	남	연상	1년 미만 1년~3년	5점 척도	1. 부하 직원에게 회의에 필요한 문서를 15부 복사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회사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보니 10페이지가 다 없음. 2. 사원이 5시 퇴근 전에 완성하라고 한 서류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함.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여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소	남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여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동등	친	남	연상	1년 미만 1년~3년	5점 척도	3. 자신과 같은 지위의 동료와 같이 회의 2시간 전에 각각 반반씩 임무를 준비하기로 약속했는데 동료가 약속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함. 4.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약속된 시간보다 반 시간이나 늦게 도착함.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여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소	남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여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하	친	남	연상	1년 미만 1년~3년	5점 척도	5. 자기보다 경험이 적고 능력도 못한 후배가 승진했는데 자신은 계속 승진할 기회가 없음. 6. 상사가 당신에게 월급을 인상해 준다고 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인상해주지 않음.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여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소	남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여	연상	1년 미만 1년~3년		
			연하	1년 미만 1년~3년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의 설문지 내용은 6개 문항으로, 코딩한 사회적 변인을 다 반영

1) 불평 화행에서 논의하는 화자는 불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각 변인에 따른 두 집단의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조사한 불평 화행 사용 양상

- a. 불평 화행 전략 사용 상황
- b. 대우법 사용 상황
- c.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표현 불평 정도
- d.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 e.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의 비율
- f.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 보다 약한 사람의 비율

DCT 설문지에 대한 응답의 통계 처리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3.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

3.1.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용 양상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두 집단의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변인: 사회적 지위)

조사 내용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	화 > 청	화=청	화 < 청	합계
불평 화행 전략(%)	직접	10.71	20.00	7.50	12.96
	간접	66.07	57.50	77.50	67.13
	직간접 혼합	7.14	5.00	1.25	4.17
	침묵	16.07	17.50	13.75	15.74
대우법(%)	해체	27.66	46.97	1.45	24.73
	해요체	72.34	53.03	98.55	75.27
마음속 불평 정도 (평균 수치: 5점 척도)		3.05	3.01	3.95	3.37
표현 불평 정도 (평균수치: 5점 척도)		2.68	2.15	2.91	2.57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1.1250	1.9125	2.3125	1.856481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		1.79	7.50	8.75	6.48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		10.71	2.50	2.50	4.63

<표 4> 한국인 직장인의 사용 양상(변인: 사회적 지위)

조사 내용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	화 > 청	화=청	화 < 청	합계
불평 화행 전략(%)	직접	31.58	12.50	20.00	21.19
	간접	52.63	63.75	41.25	52.54
	직간접 혼합	5.26	6.25	1.25	4.24
	침묵	10.53	17.50	37.50	22.03
대우법(%)	해체	44.12	43.94	8.00	34.24
	해요체	51.47	54.55	86.00	61.96

	합쇼체	4.41	1.52	4.00	3.26
마음속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3.60	3.61	4.45	3.89
표현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2.78	2.75	2.88	2.80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1.934211	1.9625	4.75	2.898305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		9.21	6.25	30.00	15.25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		5.26	5.00	5.00	5.08

<표 3>과 <표 4>를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간접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경우 전략 사용 비율을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의 순서로 배열하면 모든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 똑같이 '간접 전략', '침묵' 방식, '직접 전략',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은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거나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낮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같은 순서로 전략 사용 비율이 나타났지만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높을 때 전략 사용 비율은 '간접 전략(52.63%)', '직접 전략(31.58%)', '침묵' 방식(10.53%), '직·간접 혼합 전략(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법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고 모든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도 '해체' 및 '해요체'를 쓰는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인 경우 '모든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도 '해체'와 '해요체' 외에 '합쇼체'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모두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낮을 때가 다른 사회적 지위 관계(화>청, 화=청)일 때보다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불평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 모두 화자가 청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가 다른 사회적 지위 관계(화>청, 화=청)보다 '마음속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표현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²⁾'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³⁾'가 큰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사회적 지위관계(화>청, 화=청)보다 더 높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강한 것이 일반적이고, 약한 것은 드물게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 지위 관계(화>청, 화=청, 화<청)에서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이 있는데 화자의 지위가 청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 10.71%, 한국인 직장인 중 5.26%가 해당된다.⁴⁾

2) $A = \frac{1}{n} \sum_{i=1}^n (X_i - Y_i)^2$ 에 따른 결과이다. A는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를

뜻인데 A는 클 수록 이런 격차가 더 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는 수치 '-4~4'인데 수치 '2'를 초과할 때 격차가 크다고 본다.

3.2. 화·청자 간의 친밀도에 따른 사용 양상

‘화·청자 간의 친밀도’에 따른 두 집단의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두 집단의 사용 양상 비교(변인: 화·청자의 친밀도)

화·청자 간의 친밀도 조사 내용		친		소		합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불평 화행 전략(%)	직접	14.81	22.88	12.96	21.19	11.11	19.49
	간접	62.04	53.39	67.13	52.54	72.22	51.69
	직·간접 혼합	4.63	4.24	4.17	4.24	3.70	4.24
	침묵	18.52	19.49	15.74	22.03	12.96	24.58
대우법(%)	해체	34.09	37.89	24.73	34.24	15.96	30.34
	해요체	65.91	58.95	75.27	61.96	84.04	65.17
	합쇼체	0.00	2.11	0.00	3.26	0.00	4.49
마음속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3.21	3.77	3.37	3.89	3.53	4.02
표현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2.53	2.75	2.57	2.80	2.61	2.86
마음속 불평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1.833333	2.601695	1.856481	2.898305	1.87963	3.194915
마음속 불평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		8.33	11.86	6.48	15.25	4.63	18.64
마음속 불평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 보다 약한 사람(%)		5.56	5.08	4.63	5.08	3.70	5.08

<표 5>를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화·청자의 친밀도와 상관없이 간접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인 경우 전략 사용 비율을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의 순서로 배열하면 모든 친밀도 관계에서 똑같이 '간접 전략', '침묵' 방식, '직접 전략',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 경우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 중국인 학습자인 경우에서와 같은 순서로 전략 사용 비율이 나타났지만 화자와 청자가 친할 때 전략 사용 비율은 '간접 전략(53.39%)', '직접 전략(22.88%)', '침묵' 방식(19.49%), '직·간접 혼합 전략(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법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고 모든 화·청자 간의 친밀도 관계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화·청자 간의 친밀도 관계에서도 '해체' 및 '해요체'를 쓰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4)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마음속 불평 정도에 대해서만 고찰했는데 본고에서는 마음속 불평 정도 및 실제 표현하는 불평 정도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살펴본 것이 다른 점이다.

비해 한국인 직장인인 경우 모든 화·청자 간의 친밀도 관계에서도 '해체'와 '해요체' 외에 '합쇼체'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여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가 친할 때보다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불평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가 친할 때보다 '마음속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표현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친할 때(8.33%)가 친하지 않을 때(4.63%)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 경우는 반대로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18.64%)가 화자와 청자가 친할 때(11.8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친할 때(5.56%)가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3.70%)보다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 경우는 화·청자 간의 친밀도 관계와 상관없이 똑같이 5.08%로 나타났다.

3.3. 나이에 따른 사용 양상

'나이'에 따른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에 대해 조사한 두 집단의 개관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두 집단의 사용 양상 비교(변인: 화·청자의 나이)

조사 내용		화 > 청		화 < 청		합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불평 화행 전략(%)	직접	14.81	25.42	11.11	16.95	12.96	21.19
	간접	72.22	51.69	62.04	53.39	67.13	52.54
	직간접 혼합	5.56	4.24	2.78	4.24	4.17	4.24
	침묵	7.41	18.64	24.07	25.42	15.74	22.03
대우법(%)	해체	34.00	45.83	13.41	21.59	24.73	34.24
	해요체	66.00	53.13	86.59	71.59	75.27	61.96
	합쇼체		1.04		5.68		3.26
마음속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3.53	3.88	3.21	3.89	3.37	3.89
표현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2.89	2.82	2.25	2.78	2.57	2.80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1.453704	2.644068	2.259259	3.152542	1.856481	2.898305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		4.63	13.56	8.33	16.95	6.48	15.25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 보다 약한 사람(%)		7.41	5.08	1.85	5.08	4.63	5.08

<표 6>을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화·청자의 나이 관계와 상관없이 간접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을 때 전략 사용 비율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의 순서로 배열하면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간접 전략', '직

접 전략', '침묵' 방식,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적을 때 전략 사용 비율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의 순서로 배열하면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간접 전략', '침묵' 방식, '직접 전략',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법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모든 화·청자의 나이 관계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화·청자의 나이 관계에서도 '해체' 및 '해요체'를 쓰는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인 경우 '모든 화·청자의 나이 관계에서도 '해체'와 '해요체' 외에 '합쇼체'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여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보다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마음속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경우는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3.53)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3.21)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 경우는 반대로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3.89)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3.8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현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똑같이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똑같이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어 학습자라든지 한국인 직장인이라든지 똑같이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인 경우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많을 때(7.41%)가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을 때(1.85%)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 경우 화·청자의 나이 관계와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5.08%)으로 나타났다.

3.4. 성별에 따른 사용 양상

'성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두 집단의 사용 양상 비교(변인: 화·청자의 성)

조사 내용		화자의 성별		남		여		합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불평 화행 전략 (%)	직접	18.33	23.61	10.90	17.39	12.96	21.19		
	간접	66.67	46.53	67.31	61.96	67.13	52.54		
	직·간접 혼합	6.67	6.25	3.21	1.09	4.17	4.24		
	침묵	8.33	23.61	18.59	19.57	15.74	22.03		
대우법(%)	해체	27.27	40.00	23.62	25.68	24.73	34.24		
	해요체	72.73	53.64	76.38	74.32	75.27	61.96		
	합쇼체	0.00	5.45	0.00	0.00	0.00	3.26		
마음속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2.45	3.84	3.72	3.98	3.37	3.89		
표현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2.03	2.66	2.78	3.02	2.57	2.80		

척도)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0.75	2.69444 4	2.28205 1	3.21739 1	1.85648 1	2.89830 5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	0.00	11.81	8.97	20.65	6.48	15.25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	1.67	0.00	5.77	13.04	4.63	5.08

<표 7>을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화청자의 성과 상관없이 간접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화자가 남자일 때 전략 사용 비율을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서로 배열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 전략(66.67%)', '직접 전략(18.33%)', '침묵' 방식(8.33%), '직·간접 혼합 전략(6.67%)'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직장인은 '간접 전략(46.53%)', 직접 전략(23.61%)'과 '침묵' 방식(23.61%), 직·간접 혼합 전략(6.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자가 여자일 때 전략 사용 비율은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모두 '간접 전략', '침묵' 방식, '직접 전략',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법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화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해요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한국인 직장인은 '해체'와 '해요체' 외에 '합쇼체'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 모두 화자가 여자일 때가 화자가 남자일 때보다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불평 정도에 관해서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똑같이 화자가 여자일 때가 화자가 남자일 때보다 '마음속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표현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그리고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똑같이 화자가 여자일 때가 화자가 남자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 모두 화자가 여자일 때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이 있었지만 화자가 남자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입사 기간에 따른 사용 양상

'입사 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두 집단의 사용 양상 비교(변인: 화자의 입사 기간)

조사 내용		입사 기간		1년 미만		1년~3년		합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불평 화행 전략 (%)	직접	8.33	20.59	14.74	21.43	12.96	21.19		
	간접	73.33	44.12	64.74	55.95	67.13	52.54		
	직·간접 혼합	1.67	14.71	5.13	0.00	4.17	4.24		
	침묵	16.67	20.59	15.38	22.62	15.74	22.03		
대우법(%)	해체	16.00	29.63	28.03	36.15	24.73	34.24		
	해요체	84.00	70.37	71.97	58.46	75.27	61.96		
	합쇼체	0.00	0.00	0.00	4.62	0.00	3.26		

마음속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3.55	4.12	3.30	3.80	3.37	3.89
표현 불평 정도(평균수치: 5점 척도)	2.48	2.85	2.60	2.78	2.57	2.80
마음속 불평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2.6	3.294118	1.570513	2.738095	1.856481	2.898305
마음속 불평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	15.00	17.65	3.21	14.29	6.48	15.25
마음속 불평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 보다 약한 사람(%)	0.00	0.00	6.41	7.14	4.63	5.08

<표 8>을 보면 다른 모든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입사 기간과 상관없이 간접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화자의 입사 기간과 상관없이 '간접 전략', '침묵' 방식, '직접 전략',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의 경우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간접 전략(44.12%)', '직접 전략(20.59%)과 '침묵' 방식(20.59%), '직·간접 혼합 전략(14.71%)'의 순으로 나타났고 '입사 기간이 1년~3년'일 때 '직접 전략(55.95%), '침묵' 방식(22.62%), '직접 전략(21.43%), '직·간접 혼합 전략(0.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법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직장인이나 화자의 입사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해요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자의 입사 기간을 막론하여 '해체' 및 '해요체'를 쓰는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의 경우 화자의 입사 기간을 막론하여 '해체'와 '해요체' 외에 '합쇼체'를 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여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가 '입사 기간이 1년~3년'일 때보다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불평 정도에 있어서 '마음속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의 경우를 막론하고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가 '1년~3년'일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현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입사 기간이 1년~3년'일 때(2.60)가 '1년 미만'일 때(2.48)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의 경우는 반대로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2.85)가 '1년~3년'일 때(2.7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가 '1년~3년'일 때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입사 기간이 1년~3년'일 때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이 있지만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실제 표현 불평 정도에 따른 사용 양상

'실제 표현 불평 정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에 대해 조사한 두 집단의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두 집단의 사용 양상 비교(실제 불평 정도)

		불평 전략 유형(%)		대우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직장인
실	0	직접 : 0.00	직접 : 0.00	해체 : 100.00	해체 : 0.00

제 표 현 불 평 정 도		간접 : 50.00 직접+간접: 0.00 침묵 : 50	간접 : 0.00 직접+간접: 0.00 침묵 : 0.00	해요체 : 0.00	해요체 : 0.00 합쇼체 : 0.00
	1	직접 : 5.56 간접 : 64.81 직접+간접: 7.41 침묵 : 22.22	직접 : 12.24 간접 : 55.10 직접+간접: 0.00 침묵 : 32.65	해체 : 21.43 해요체 : 78.57	해체 : 27.27 해요체 : 69.70 합쇼체 : 3.03
	2	직접 : 12.50 간접 : 72.92 직접+간접: 4.17 침묵 : 10.42	직접 : 8.33 간접 : 61.11 직접+간접: 0.00 침묵 : 30.56	해체 : 13.95 해요체 : 86.05	해체 : 32.00 해요체 : 60.00 합쇼체 : 8.00
	3	직접 : 13.73 간접 : 68.63 직접+간접: 1.96 침묵 : 15.69	직접 : 28.40 간접 : 53.09 직접+간접: 8.64 침묵 : 9.88	해체 : 34.88 해요체 : 65.12	해체 : 34.25 해요체 : 64.38 합쇼체 : 1.37
	4	직접 : 20.93 간접 : 62.79 직접+간접: 4.65 침묵 : 11.63	직접 : 28.30 간접 : 45.28 직접+간접: 5.66 침묵 : 20.75	해체 : 23.68 해요체 : 76.32	해체 : 45.24 해요체 : 52.38 합쇼체: 2.38
	5	직접 : 18.75 간접 : 68.75 직접+간접: 0.00 침묵 : 12.50	직접 : 17.65 간접 : 47.06 직접+간접: 0.00 침묵 : 35.29	해체 : 28.57 해요체 : 71.43	해체 : 18.18 해요체 : 63.64 합쇼체: 9.09
합 계		직접: 12.96 간접: 67.13 직접+간접: 4.17 침묵: 15.74	직접: 21.19 간접: 52.54 직접+간접: 4.24 침묵: 22.03	해체: 24.73 해요체: 75.27	해체: 34.24 해요체: 61.96 합쇼체: 3.26

<표 9>를 보면 두 집단 모두 모든 불평 정도에서 간접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 중 불평 정도가 '2'일 때 나머지보다 '간접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직접 전략' 사용 비율은 실제로 표현하는 불평 정도가 '4'인 경우(20.93%)가 나머지 '0~3' 및 '5'인 경우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의 '직접 전략' 사용 비율은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3'인 경우(28.40%)가 나머지 '0~2', '4', '5'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직·간접 혼합 전략' 사용 비율은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1'인 경우(7.41%)가 나머지 '0', '2~5'인 경우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의 '직·간접 혼합 전략' 사용 비율은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3'인 경우(8.64%)가 나머지 '0~2', '4', '5'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0'과 '5'인 경우 '직·간접 혼합 전략'을 쓰는 사람이 없는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은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0~2', '5'인 경우 '직·간접 혼합 전략'을 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침묵' 방식의 사용 비율은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0'인 경우(50.00%)가 나머지 '1~5'인 경우보다 더 높은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의 '침묵' 방식의 사용 비율은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5'인 경우(35.29%)가 나머지 '0~4'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우법에 있어서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1~5'일 때 두 집단 모두 '해요체'를 쓰는 사람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표현 불평 정도가 '0'일 때 모든 한국어 학습자가 '해체'만을 쓰는 것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 중에는 '해체'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여 전략 사용 비중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의 순서로 배열하면 '간접 전략', '침묵' 방식, '직접 전략', '직·간접 혼합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인 직장인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 전략'을 쓰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직장인을 막론하여 다른 대우법보다 '해요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한국인 직장인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해요체'를 쓰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학습자가 '합쇼체'를 쓰는 사람이 없는 데에 비해 한국인 직장인이 '합쇼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학교 강사한테서 '강연 및 프리젠테이션' 등과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합쇼체'를 쓰는 것이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과 군대 생활의 영향으로 '합쇼체'를 직장에서도 가끔 쓰는 한국인 남자⁵⁾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한국인 직장인의 '마음속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표현 불평 정도의 평균수치' 그리고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한국인 직장인의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의 비중' 및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 보다 약한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마음속 불평 정도'만에 대해 고찰한 데 반해 본고는 '마음속 불평 정도'뿐 아니라 '실제 표현 불평 정도',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 '마음속 불평 정도와 실제 불평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사람의 비율', 그리고 '마음속 불평 정도가 실제 불평 정도보다 약한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불평 화행의 하위 전략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져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현화·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pp. 5~31.
- 미즈시마 히로코(2003), 한국어 불평 화행의 중간언어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2012), 서비스 상황에서의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서경희(2000), 화행이론과 외국어 교육, 외국어교육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

5) 성별에 따른 한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의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합쇼체'를 쓰는 남자가 5.45%로 차지하지만 여자가 없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 구소, pp. 25~49.
- 양명희(2011), 한국어교육에서의 화행 교육의 목표와 방향—칭찬 반응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pp.193~216.
- 유주희(2007), 2007 개정 고1 영어 교과서 말하기 지문 화행 전략 분석 -사과하기, 불평하기, 칭찬에 답하기 거절하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정(2010),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10),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의 서비스 장면에서의 불평 화행, 일본어교육 제 51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조정민(2004), 한국어 불평에 대한 응답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일본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양(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평 화행에 관한 대조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2007), 한국어 불평·응답 화행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일본인,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숙(2013), 구두 DCT와 회고적 보고 방법을 활용한 불평 화행의 전략 사용 연구—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2006),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혼다 토모쿠니·김인규, 한국어·일본어 불평 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제어문 45, 국제어문학회, PP5~44.
- 홍승아(2010),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을 다시 생각함

엄홍준 (계명대)

1. 서론

이 논문은 그동안에 연구된 예외적 격 표시 구문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본 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이동하는 요소의 격 인허 문제

- (1) a. 도수는 [CP 신혜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 b. 도수는 신혜를 [CP e 예쁘다고] 생각한다.

(1a) ‘신혜가’의 주격은 CP 내에서 인허됨 (무정격 (Kang 1986, 이정훈 2005 등, Infl 김용하 2005) (1b)에서 신혜를’은 내포절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Kuno, Tanaka, Kim & Kim 2003) 이러한 가정은 곧 신혜가 내포절의 주어의 위치에서 모문의 A-위치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문의 동사 ‘생각하-’에 의해 대격이 인허됨.

이와는 달리 ‘신혜를’이 CP의 SPEC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이들도(Ahn & Yoon 1989)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생각하-’에 의해 격을 인허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발생하게 된다.

- (3) 신혜는 [CP 자신을_{IP} pro 예쁘다고] 생각한다.

‘자신을’이 비논항 위치에서 ‘영수’와 A’- 결속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재귀대명사 자신은 A-결속되어야 하는데 CP의 지정어 위치에 있다고 가정된다면 신혜는 비논항 위치의 요소를 결속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모문의 A-위치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해결된다.

‘신혜를’이 어떻게 격 인허가 되는지에 대한 다른 주장은 신혜를이 모문에서 기저 생성되었다고 보는 이른바 예변 논항(최준수 2013, 임홍빈 2006)설이 있다.

- (4) 도수는 신혜를 [pro 예쁘다고] 생각한다.

(1b)와 (4)의 구조는 ‘신혜’가 (1b)에서는 내포절에서 기저생성되어 모문의 A-위치로 이동한 것이고 (4)에서의 ‘신혜’는 모문에서 기저생성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각하-가 몇 자리 서술어이나에 놓여있다. 임홍빈에서처럼 ‘도수는 신혜를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장이 정문으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필자의 직관으로는 비문에 가깝다.

이 장은 (1b)의 도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신혜’와 같은 요소는 내포절의 주어의 위치에서 모문의 A-위치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 위치에 있는 공범주의 정체.

전 장의 분석이 옳다면 내포절의 주어 위치는 무엇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노정된다. 원래의 자리가 격이 인허되는 외현적인 명사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Deprez (1992)를 따라 명사구 흔적이 아니라 복사된 pro로 봄 (엄홍준 (2010 등)). 이러한 분석에 대해 최준수는 재현대명사(resumptive pronoun) 책략은 A-이동에만 가능하지 A-이동에는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함. 하지만 재현대명사 책략에서는 pro의 발생이 이동에 의한 것인지 기저생성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반면에 여기서의 pro는 A-이동의 결과로 생긴 것임.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아래에서 지적하겠지만 pro의 출현은 내포조건을 위배하게 됨

한편, 최준수 임홍빈의 분석 역시 pro로 밖에 볼 수 없음

4. 이동 또는 기저 생성의 문제

이 장에서는 내포절에 있는 주어가 모문의 A-위치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기저생성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5) 이동 분석의 문제

a. 비정적 이동의 문제: 모문의 대격 인허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CP의 지정어 위치에서 다시 논항 위치로 이동을 하면 논항 - 비논항 - 논항의 경우가 되어 비정적 이동이 됨. 이 문제는 이동분석에서의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임. 비교언어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해결이 난망한 것으로 판단됨. 이런 면에서는 Chomsky(1980)의 예외적 격 표시가 더 우세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영어에서와는 달리 CP를 하위범주화에서 제외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함. 즉 .-다, -고'가 C 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에 C를 하위범주화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임.

이러한 분석과 유사한 것은 Hiraiwa의 분석이 있음. 하지만 국면의 개념이 도입되면 이러한 분석도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6) 도수는 [_{CP} [신혜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Hiraiwa(2001)의 기본적인 제안은 동사 '생각하-'가 CP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내포절의 주어에 격을 인허할 수 있고 또 INFL도 격 인허자이기 때문에 주어에 격 인허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두 인허자가 모두 격 인허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이 되면 왜 내포절의 주어가 주격뿐만 아니라 대격을 인허받을 수 있는지가 설명될 수 있어서 유력한 대안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CP가 국면이라는 데에 있다.

b. pro의 출현 문제로 인한 내포조건 위배 - 내포절의 주어 위치가 pro로 밝혀지면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가 배변 집합에 없는 요소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Kayne (2000)의 접어 중첩 접근법 (Clitic doubling)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엄홍준(2013)에서 제안함.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는 목정수(개인 면담)에 의해 인구어의 접어 대명사와 이 pro가 같이 취급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기됨. 이 문제 역시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됨.

한편 Kayne에서는 명사구와 pro가 배변 집합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형성되어 출현하기 때

문에 내포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함.

(7) 기저생성 분석의 문제

- a. 논항의 수의 문제와 의미역의 배당 문제: 최준수나 임흥빈의 주장처럼 모문에서 (1b)에서의 '신혜'와 같은 요소가 기저생성된다면, 그 논항은 어떻게 생성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떤 의미역이 배당되어야 하는지도 뒤따르는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
- b. a와 관련된 배변 집합에서의 문제인데 '신혜'와 pro가 각각 배변집합에서부터 존재하였다면 다시 술어 생각하-가 몇 자리 서술어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동 분석에서 채택한 Kayne의 분석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논항 연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 복합명사구의 문제

이 장에서는 복합명사구 제약을 이용하여 '신혜'와 같은 요소가 내포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문에서 생성된다는 최준수(2013:15)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우순조(1995)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 (8) a. (*)¹⁾[사람들이 [e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신혜
- b. 사람들이 [신혜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최준수는 (8a)와 같은 소위 복합 명사구에서 '신혜'가 추출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문은 비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영희'는 정문이기 때문에 (8a)와 같은 도출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된 생각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다음의 도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정문이 된다고 본다.

- (9) 사람들이 신혜를 [pro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8)의 분석을 통해 그는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혜'가 모문에서 기저생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우순조(1995)에서는 (8a)와 같은 구문에서 '신혜'가 이동하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문은 내포문(내포절)과는 다른 평가 구문으로 부르며 이 평가 구문이 포함된 구문은 '내포문+모문'이 아닌 단문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우순조와 여러 구문의 판정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우순조의 주장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른 언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한국어의 내포문의 특이성에 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에서의 내포문의 특성과 유사함을 보이는 영어와 이탈리아

1) 비문 표시에 괄호를 넣은 이유는 이 문장이 이론적으로 비문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밝힌다.

어 등의 언어에서 보이는 내포문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10) a. *John seems that he is honest.
b. John seems as if he is honest.

영어에서 he는 John과 (10a)와 같은 시제절에서는 연결될 수 없는데 as if 절이 나오면 그것이 시제절처럼 보이더라도 연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국면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10a)의 CP는 국면이 되지만 (10b)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Heycokok(1994)에 의하면 (10b)의 as if가 이끄는 구문은 절로 취급하지 않고 전치사구로 취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as if 구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국면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동도 자유로울 수 있다.²⁾

이와 비슷한 현상은 이탈리아어에서도 볼 수 있다.

- (11) a. Sembra che Giovanni sia felice
' It seems that Giovanni is happy.'
b. Giovanni Sembra che sia felice.
' Giovanni seems that is happy.'

(11a)의 내포절의 주어 위치에 Giovanni가 존재하고 이 주어가 모문의 주어로 이동한 것이 (11b)이다. 이들의 도출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a. pro³⁾ Sembra che Giovanni sia felice
' It seems that Giovanni is happy.'
b. Giovanni_i Sembra che pro_i sia felice.
' Giovanni seems that is happy.'

이러한 구문에서의 특이점은 소위 내포문에서 계사 sia가 가정법 동사라는 것이다. 즉 보문사 che가 이끄는 구문은 앞에서 본 영어의 as if 구문과 배우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⁴⁾ 이러한 점에서 우순조(1995)가 말하는 평가구문과 이들 구문의 연관성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한국어의 내포문은 (우순조의 용어를 따른다면) 평가 구문과 순수한 내포문으로 다시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의 평가 구문이 영어와 이탈리아어와 같이 국면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고 여기에 Hiraiwa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 (13) 도수는 [_{XP} 신혜가/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2) 이 구문에서 John이 as if 절에서 이동했는지는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이 pro는 격과 의미역을 가진 pro가 아니라 격만을 지닌 허사적인 pro이다. 이것은 마치 영어의 허사 it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4) 즉 직설법 동사가 쓰인다면 이 구문은 영어의 예인 (10a)에서처럼 비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의 구조에서는 ‘신혜’가 이동하지도 않고 모문에서 기저생성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문에서는 XP가 국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Hiraiwa의 분석에서처럼 ‘생각하-’에 의해 격이 인허되면 대격을 인허받을 수 있게 되고 만약 XP 구문에서 격이 인허되면 주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김용하. 2005. “한국어의 어미체계와 격 인허에 대한 최소주의적 고찰,” 국어학 46, 295-329.
- 엄홍준. 2010a. 한국어에서의 논항이동과 pro. 현대문법연구. 59. 67-88.
- 엄홍준. 2010b. 재현성과 복사 인상. 언어학. 109-124.
- 엄홍준·김용하. 2009.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 격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언어. 34-3. 583-602.
- 이정훈. 2005. “국어 조사의 인허조건과 통합관계,” 언어 30, 173-193.
- 임흥빈. 2006. 예외적 격표시 구문은 존재하는가. 관악어문연구 31. 95-155.
- 최준수. 2013. 우리말 예외격 구문과 예변 논항. 현대문법연구, 71, 1-30.
- 우순조. 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26, 59-98.
- Deprez, Viviane. 1992. 'Raisig Construction in Haitian Creol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191-232.
- Heycock, Caroline. 1994. *Layers of Predicati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Co.
- Hiraiwa, Ken. 2001. “Multiple Agree and the 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 in Japanes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0, 67-80.
- Kang, Yong-se. 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Kayne, Richard. 2002. Pronouns and their Antecedent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Minimalist Program, eds., Samuel D. Epstein and T. Daniel Seely, 133-166. Blackwell Publishers Ltd.
- Kim, Dong Suk and Yong Ha Kim. 2003. 'Korean ECM Construction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47-77.
- Kuno, Susumo. 1976. Subject raising. In *Syntax and Semantics 5: Japanese Generative Grammar*, ed. Masayoshi Shibatani, 17-49. New York: Academic Press.

명사의 의존 용법과 규정 기능

- 양식적 공간명사를 중심으로

이영제(고려대학교)

kukl@korea.ac.kr

1. 문제제기
2. 의존명사 개념의 확대
3. 양식적 공간명사의 분포와 의미
4. 양식적 공간명사의 규정 기능
5. 요약 및 결론

1. 문제제기

◆ 유혜원(2008:202-203)의 공간명사의 분류¹⁾

① 실체적 공간명사

- 가. 실체적 공간물 고유명사: 실체 - 사물 - 공간물 - 외연 - 직접 ex) 서울 등
나. 실체적 공간물 일반명사: 실체 - 사물 - 공간물 - 내포 ex) 길, 집, 지역 등

② 양식적 공간명사

- 가. 양식적 공간 자립명사: 양식 - 관계 - 차원 - 공간 - 주도적 ex) 앞, 위 등
나. 양식적 공간 의존명사: 양식 - 관계 - 차원 - 공간 - 보조적 ex) ???²⁾

◆ ‘앞, 위’와 같은 양식적 공간명사는 그간 자립명사로만 분류되었지만 이들은 용법에 따라 의존명사에 속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의존 용법에서는 선행 성분이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 (1) a. 여기는 앞도 잘 안 보인다.
b. 그는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사람이다. / *그는 앞도 못 가리는 사람이다.
c. 우리는 한 사람 앞에 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 *우리는 앞에 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 김한샘(2006:163)
- (2) a. 철수는 위에 있다.
b. 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근거 위에서 제정되었다.³⁾ / *헌법은 위에서 제정되었다.
c. 경제 활동은 법의 토대 위에 있다. / *경제 활동은 위에 있다.

양식적 공간명사들은 자립명사이지만 자립명사로 보기 어려운 분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용법에 따라 하위범주를 달리한다고 보면 이와 같이 한 단어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범주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분포 때문만은 아니다. 의미기능 면에서도 이들은 선행 성분을 규정하는 기능⁴⁾이나 기능어와 연관되는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

◆ ‘앞, 위’와 같은 양식적 공간명사는 자립명사이기도 하지만 의존명사이기도 하다.

1) 유혜원(2008)은 공간명사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경봉(1998)의 존재론적 의미 분류 체계를 따랐다.
2) 최경봉(1998:98)에서는 이 분류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로 ‘데, 쪽, 편’을 제시하였다.
3) 이때의 ‘위’는 ‘일정하게 특징지어지는 범위나 테두리를 이르는 말’을 뜻한다.
4) 규정 기능은 단어의 의미영역을 규정하는 기능을 말하며, 관형사가 명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시사나 관사의 한정 기능과 구분하기 위하여 규정 기능을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의존명사 개념의 확대

◆ 의존 용법의 명사들을 의존명사로 보는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전통문법 시기부터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명사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한편, 김민수(1960)에서 명사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분류한 것이 의존명사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고영근(1970/1989) 이후로 의존명사의 개념(구조적 의존성과 의미적 형식성의 명사)과 범위에 큰 변화가 없었다.

◆ 최근 들어 의존명사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등장하였다(고석주 1999; 이선웅 2004, 2012; 김창섭 2007, 2011; 시정곤 2010a). ‘미명(未明), 소산(所産), 소치(所致) / 출신(出身), 관계(關係) / 정도(程度), 형편(形便)’ 등 종전에 일반명사로 분류하던 유형들 중에서 의미가 실질적이지만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명사들을 의존명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⁶⁾ 이는 ‘새로운 의존명사’ 연구로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 고영근(1970/1989) 이후로 구조적 의존성과 의미적 형식성의 명사를 의존명사로 보았던 틀에서 벗어나 의존명사의 의존성 개념을 통사적/구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의미의 추상성/형식성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

◆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의존명사’는 통사적 의존성의 명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용법에 따라 통사적 의존성과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들도 포함된다.

- | | | |
|-----|--------------------------------------|------|
| (3) | a. 정권은 국가 안보를 미명(美名)으로 삼아 권력을 휘둘러왔다. | <자립> |
| | b. 정권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권력을 휘둘러왔다. | <의존> |
| (4) | a. <u>소산(所産)</u> 적 자연 | <자립> |
| | b. 이 책은 우리가 그간 애써 연구한 <u>소산</u> 이다. | <의존> |

◆ 또한 목정수(2013:60)에서는 ‘앞, 뒤, 위, 아래, 안, 속’ 등의 명사가 조사 ‘에’와 함께 선행 명사구에 방위를 표시할 때 선행 명사구의 의미를 규정하는 ‘의존명사’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통사적 의존성과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중에서도 용법에 따라 의존명사에 포함시킬 만한 것들이 있다.

◆ 이영제·김의수(2013), 이영제(2014 예정)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의존명사’가 의존명사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의존명사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⁷⁾

5) 주시경(1910) - (관계)대명사 ‘이(사람 언잇), 것(문 언잇), 바, 줄(일 언잇)’

최현배(1937/1974) - 불완전명사(안웅근 이름씨)의 유형 ① 보통 불완전 명사, ② 부사성 불완전 명사

정렬모(1946), 이희승(1955) - 형식명사

김민수(1960), 고영근(1970/1989) - 의존명사

6) 이 명사들은 이선웅(2004)과 시정곤(2010)에서 제시된 의존명사의 예들이다. 고석주(1999)에서는 ‘관계, 관련, 반대, 개시, 연결’ 등의 술어명사와 ‘사이, 부분, 얼굴, 넓이, 길이, 키, 무게’ 등의 관계명사를 포함시켰고, 김창섭(2007)에서는 ‘출신, 관계, 위주’ 등의 명사를 새로운 의존명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통사적 의존성의 명사들이다.

7) ‘새로운 의존명사’는 의존명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도 있다. ① 종전의 의존명사는 폐쇄부류이고, 문법적으로 특징적인 유형들을 범주화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미가 실질적이고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명사가 의존명사에 포함되면 그러한 특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한자어 의존명사들뿐만 아니라 양식관계의 영역에 속하는 시공간명사도 통사적 의존성을 보이므로 이들도 의존명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새로운 의존명사’는 개방 부류여서 목록을 한정할 수 없다. ② 의존명사를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명사로 개념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면 무표적 의존명사는 종전의 의존명사가 아닌, 새로운 의존명사가 된다. 종전의 의존명사는 의미적으로 추상/형식적이라는 조건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뀐 의존명사 개념으로는 기능요소적 특성의 명사들(종전의 의존명사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지만 본고는 ‘새로운 의존명사’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

3. 양식적 공간명사의 분포와 의미

◆ 2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의존명사 개념을 확대하면 용법에 따라 (통사적) 의존성을 보이는 명사들도 의존명사에 포함된다. 양식적 공간명사도 용법에 따라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인다. 3절에서는 의존적으로 나타나는 분포와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여 의존명사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 양식적 공간명사 ‘위’는 종전의 분류대로라면 자립명사이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 분포가 의존적이다.

- (5) a. 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근거 위에서 제정되었다.⁸⁾ / *헌법은 위에서 제정되었다.
 b. 경제 활동은 법의 토대 위에 있다. / *경제 활동은 위에 있다.
 c. 누가 그를 놓아주었나 하는 호기심 위에, 조금 일종의 불만 비슷한 느낌이 도금되었을 따름이었다.
 / *위에, 조금 일종의 불만 비슷한 느낌이 도금되었을 따름이었다. <김동인, 젊은 그들>

(5)는 (1)의 예문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선행 성분이 생략되었을 때 비문이 되는 것은 주로 [상황], [조건], [환경]의 의미일 때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로 ‘위’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나 조건 따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테두리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밖에도 (5c)와 같이 ‘위’가 ‘(주로 ‘위’에 꼴로 쓰여) 어떤 것의 바깥이나 이와’의 의미일 때도 선행 성분이 생략되면 비문이 되는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

◆ 다른 양식적 공간명사들도 [상황], [조건], [환경]이나 [결과(상태)], [(특정한) 범위]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의존적 특성이 나타난다.

- (6) a. 그들도 냉엄한 현실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 a'. *그들도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b. 우리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본 경찰과 헌병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갔다. / b'. *우리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앞에 쓰러져 갔다.
 c. 한 사람 앞에 두 번씩 기회가 있다. / c'. *앞에 두 번씩 기회가 있다.
 d. 네 앞으로 온 편지가 있어. / d'. *앞으로 온 편지가 있어

- 김한샘(2006:163)

- (7) a. 개방화의 물결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과연 무엇일까?⁹⁾ /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과연 무엇일까?
 b. 이 서방은 밤늦도록 등잔 아래(에) 앉아 갓신을 만들 가죽을 무두질하였다. / *이 서방은 밤늦도록 아래(에) 앉아 갓신을 만들 가죽을 무두질하였다.
 c.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란 이름 아래 자연의 고마움을 배신하기 일쑤이다. / *우리는 아래 자연의 고마움을 배신하기 일쑤이다.

- 김한샘(2006:173)

- (8) a. 우리는 부산 가는 야간열차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¹⁰⁾ / ¹²⁾우리는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b.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¹¹⁾ / *속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
 c. 곳은 날씨 속에도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 *속에도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d. 그런 일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¹²⁾ / *그런 일은 속에서나 가능하다.

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제(2014 예정)를 참고하라.

8) 이때의 ‘위’는 ‘일정하게 특징지어지는 범위나 테두리를 이르는 말’을 뜻한다.

9) 이때의 ‘아래’는 ‘조건이나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10) ‘물체의 안쪽 중심 부분’

11) ‘어떤 현상이나 상황의 안이나 가운데’

◆ 본의미는 양식적 공간명사에 속하지만 시간의 의미로 쓰일 때 의존 용법을 보이는 명사들도 있다. ‘뒤’는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을 본의미로 갖지만 시간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인다. 공간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의존적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시간이나 순서의 의미에서는 의존적 양상을 보인다.

- (9) a. 소포는 주문을 한 지 한참 뒤에서야 도착했다. / *소포는 뒤에서야 도착했다.
 b. 서양 문물이 들어온 뒤 동양 철학이 오늘처럼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었을까? / *뒤 동양 철학이 오늘처럼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었을까?

◆ ‘안’도 ‘뒤’와 같이 공간과 시간의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안’은 공간과 시간의 의미 두 가지 모두에서 의존적 양상을 보인다. ‘안’은 ‘안을 닦다, 안이 비어있다, 안으로 들어오다’에서는 자립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의존적이다.

- (10) a. 이번 성적은 합격권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¹³⁾ / *이번 성적은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b. (가격은) 만 원 안에서 마음껏 시켜 먹어. / *(가격은) 안에서 마음껏 시켜 먹어. - 김한샘(2006:174)
 c. 이제 걸어가도 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 *이제 걸어가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d. 그 정도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정도면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의 의존 용법에서 ‘안’이 의미하는 바는 공통적으로 [범위]임을 알 수 있다. ‘어떤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 선행 성분은 일반적으로 보충어로 간주된다.¹⁴⁾

◆ 이와 같이 양식적 공간명사뿐만 아니라 시간명사 중에서도 의존 용법을 보이는 명사들이 있다.

◆ ‘관계’의 의미영역에 해당하는 시간명사 중 의존성을 보이는 명사들이 있다. ‘날’은 일반명사로서 자립 용법이 가능하지만 일수(日數)를 세는 [단위]의 기능, [강조]의 의미로 다른 명사의 뒤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을 구별할 수 있다.¹⁵⁾

- (11) a. 마지막 날, 그녀를 만나는 날 [시간]
 b. 나흘째 날, 스무 날 [단위]
 c. 오늘날, 1일 날, 토요일 날¹⁶⁾ [강조]

(11a)는 ‘하룻동안의 날짜나 시간을 의미하며, (11b)는 날짜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용법이다. (11c)는 ‘날’이 시간명사구에 후행하지만 직접 결합하여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예이다.¹⁷⁾ 사건명사에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축제날, 졸업식날, 소풍날’ 같이 시간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¹⁸⁾ 선행명사를 [강조]하는 기능은 접미요소적

12) ‘어떤 이야기나 영화의 내용’

13) (2)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고려대사전>

14) 박철우(2002:82)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그 자체로 완전하여 다른 보충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요소는 다른 요소에 기대어 존재성을 확보하려 하며, 스스로 지시성을 가질 수 없는 요소는 자신의 지시성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보충어를 어휘적으로 요구한다.

15) 사전(표준, 고려대)에서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만을 표제어로 삼고 있다.

16) 진려봉(2012:152)은 ‘날’을 명사 분류사의 예로 들면서 이때의 ‘날’이 잉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17) ‘오늘날’ 이외에도 ‘단옷날, 동짓날, 백중날, 설날, 추석날’ 등이 포함된다.

18) ‘날’은 ‘가을 소풍 날’이나 ‘생일 파티 날’처럼 통사적 구성에 결합하기도 한다. 또한 ‘날’은 접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등재된 파생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는 ‘날’을 띄어 쓰는 것이 옳다. 하지만 실제 쓰임을 보면 대부분 붙여 쓴다. 이 예에

특징이기도 하다. [강조]의 기능은 날짜나 시간이 아닌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 (12) a. 남자가 미팅날 돈을 내야 한다.
b. 축제날이 시작되면 마차에 맥주통을 싣고 비어 마차에 열을 올린다.

(12a)의 ‘미팅날’은 ‘미팅 때에’나 ‘미팅 상황에’ 정도의 의미이고, (12b)의 ‘축제날이 시작되면’은 ‘축제’라는 상황의 시작을 의미한다.

◆ 목정수(2013)에서는 ‘날’을 후치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날’ 뒤에는 격조사가 붙을 수 없고, ‘날’에 선행하는 시간명사만으로는 부사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목정수 2013:60).¹⁹⁾

- (13) a. *내 생일 다 같이 모여 놀았다.
b. 내 생일날 다 같이 모여 놀기로 했다.
c. *내 생일날에 무슨 선물해 주실 거예요?²⁰⁾

-목정수 (2013:60)

(13a)를 보면 ‘생일’은 조사 ‘에’가 반드시 필요하며, (13b)와 같이 ‘날’이 조사 ‘에’를 대신할 수도 있다. (13c)와 같이 ‘날’이 조사 ‘에’와 중복될 때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정수(2013)에서는 여기서의 ‘날’이 후치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때, 대신’ 등도 후치사적 기능을 보인다. 이들은 ‘때에, 대신에’ 등으로 쓰여야 하지만 조사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이 쓰이고, ‘날, 때, 대신’ 등의 명사는 용법에 따라 조사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 ‘날’은 또한 ‘-는 날에는’, ‘-는 날이면’의 구성으로 쓰여, 달갑지 않은 경우나 극단적인 상황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4) a. 이 일이 들통 나는 날에는 큰 벌을 받을 거야.
b. 이 일이 실패하는 날이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날’의 의미는 ‘하룻동안의 시간이나 날짜’의 의미와는 무관하며, ‘경우’나 ‘때’를 뜻하는 [상황]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날’의 [상황]의 의미는 문법적 의미(또는 기능적 의미)라 볼 수 있으며, 속성을 수식하는 형용사와 공기할 수 없다.²¹⁾

- (15) a. *이 일이 들통 나는 중대한 날에는 큰 벌을 받을 거야.
b. *이 일이 실패하는 중대한 날이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 한편, ‘전(前)’은 시간의 의미일 때와 공간의 의미일 때의 구조가 뚜렷하게 구별된다. 명사로 쓰일 때는 시간의 의미만 가능하고, 어근으로 쓰일 때는 공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서는 실제 쓰임을 고려하여 붙여 쓴 것이다.

19) ‘날’ 뒤에는 격조사가 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 없이는 선행 시간명사만으로는 부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목정수 2013:60).

20) 이 문장의 문법성 판단은 연구자에 따라 이견을 보인다.

21) ‘경우’나 ‘때’를 뜻하는 [상황]의 의미로는 공기할 수 없으며, ‘하룻동안의 시간이나 날짜’의 의미에는 공기할 수 있다.

- (16) a. 신천역 가기 전에 잠실역이 있다.
 b. 이 전에는 여기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른다.
 c. 역전(驛前), 계전(階前), 당전(堂前)²²⁾

명사 ‘전(前)’은 보충 성분으로 ‘-기’ 명사형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역시 의존성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 (17) a.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b. *전에 가장 어둡다.
 c. 전에는 방이 어두웠다.

명사 ‘다음’도 ‘전(前)’과 같이 보충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18) a. 천하의 장사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저렇게 큰 바위를 들 수 있겠는가?
 a'. *다음에야 누가 저렇게 큰 바위를 들 수 있겠는가?
 b. 그녀는 독고민을 보고 방긋 웃은 다음, 그의 팔을 잡고 차에 올랐다. <구운몽, 최인훈>
 b'. *다음, 그의 팔을 잡고 차에 올랐다.

- 이영제(2014 예정: 38)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양식적 공간명사와 관계적 의미의 시간명사 중 일부는 분포가 제한되면서 통사적으로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 의미도 [상황], [조건], [환경]이나 [결과(상태)], [(특정한) 범위] 등의 관계적이고 추상/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밖’과 같이 ‘밖에’로 조사화되거나 ‘-르밖에’로 어미화된 경우를 고려하면 이들도 문법화의 진행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통시적인 것이어서 공시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양식적 공간명사의 규정 기능

◆ 목정수(2013:60)에서는 ‘앞, 뒤, 위, 아래, 안, 속’ 등의 공간명사가 지시사와 함께 구구성을 이룰 때 선행하는 지시대명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후치사(가)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미 해석상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이를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9) ‘그 앞에’
 가. 지시관형사 + 공간명사 + 조사: [[그 앞]_{NP} 에]
 나. 지시대명사 + 공간명사 + 조사: [[그(것)]_{NP} [앞]_{NP} 에]

(19가)는 지시관형사가 공간명사를 수식하는 일반적 통사구조이다. 그러나 ‘그 앞에’의 의미를 보면 ‘앞’을 지시적으로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19가)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9나)의 구조에서는 ‘그’가 지시대명사이고, ‘앞’은 기점인 지시대명사 ‘그(것)’의 전방(前方)으로 위치를 규정한다. 의미 해석상 (19가)보다는 (19나)가 더 자연스러우며, (19나)의 구조에 따르면 ‘앞’은 선행 성분의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22) 역전: [명사] 역의 앞쪽. ‘역 앞으로 순환’, 계전: [명사] 계단의 앞, 당전: [명사] 대청마루의 앞

◆ 후행 성분인 ‘앞’이 선행 성분을 규정한다고 본 것이어서 한국어가 후행 언어(head-final lang.)라는 일반적 원리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때의 공간명사가 후치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일반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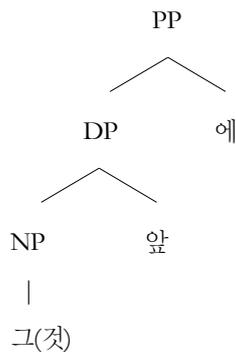
◆ 문제는 명사구 ‘앞(에)’을 후치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계통론에 입각한 후치사 연구들에서 ‘앞(에)’을 후치사로 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³⁾

◆ 최근에는 ‘앞, 위’ 등의 양식적 공간명사가 어휘적 후치사(lexical postposition)이고 그에 결합하는 격조사(또는 후치사)는 기능적 후치사(functional postposition)라고 주장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²⁴⁾ 하지만 ‘다음에, 뒤에, 밖에, 속에, 앞에, 위에, 때문에’ 등을 후치사로 본 입장²⁵⁾은 ‘다음, 뒤, 밖, 속, 앞, 위, 때문’ 등이 명사라는 더 일반적인 사실과 충돌하게 된다. 후치사와 명사는 모두 단어에 해당하므로 한 형태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는 명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명사로 보더라도 문제는 있다. 명사라는 설명만으로는 이들의 후치사적 기능을 설명할 수 없다. 후치사적 기능은 조사의 기능과 비견될 만한 것이므로 기능요소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명사의 기능요소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의존명사로 보는 것 외에는 없다.²⁶⁾ 실제로 의존명사 중에서는 선행 성분의 의미를 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²⁷⁾

◆ 어휘적 후치사를 설정한 시도는 ① 어휘요소적 후치사와 ② 기능요소적 후치사를 구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명사도 ① 기능요소적 명사와 ② 어휘요소적 명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은 의존명사, ②는 일반명사(자립명사)이다. 결론적으로 ‘앞, 위’와 같은 양식적 공간명사는 의존명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 통사구조상 양식적 공간명사는 선행 성분을 규정하는 기능을 하고, 명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결정사구(DP)의 핵으로 볼 수 있다. 강명윤(2001)은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사(demonstrative)를 D로 처리하였는데 후행 언어인 한국어에서 D가 NP의 앞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이 있다. 양식적 공간명사 같은 의존명사가 D 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단, 기능범주이자 기능요소적인 명사를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23) 이승욱(1957), 박병채(1990), 고영근(2012) 등을 들 수 있다.

24) Sung Shim Hong, Xiao Dong Yang(2010)은 Svenonius(2003)의 가설에 따라 ‘앞, 위’ 등의 공간명사가 어휘적 후치사이고 그에 결합하는 격조사(또는 후치사)가 기능적 후치사라고 주장하였다.

25) 고영근(2012)에서는 선행연구의 후치사들을 목록화하고, ‘NØ 앞/위(에)’와 같은 요소를 명사적 후치사라 하였다.

26) Abney(1987: 44-45)에서 정의한 기능요소(functional element)의 특징은 (A) 폐쇄부류이어야 하고, (B) 형태,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이다. (C) 음운론적으로 영이기도 하고, 강세가 없는 접어나 접사이고, (D) 논항이 아닌 complement이고(부가어) CP, PP, DP를 이루며, IP, VP, NP를 보충어로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보충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E) 기술적 내용(descriptive content)이 없고, (F) 의미론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보충어의 해석에 기여하거나 정규화하는 부차적 기능이고, 어떤 부류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자질이나 관계자질을 표시한다.

27) ‘나는 그냥 모르는 듯/양/척/체 지켜보기만 했다’에서 ‘듯/양/척/체’는 보문의 명제 의미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 양식적 공간명사들은 자립명사로 쓰일 때에 ①[‘명사’ ‘공간명사’ ‘조사’]의 구조를 가지던 공간명사들이 의존성과 조사 결합의 제한성을 획득하여 의존명사 같이 쓰이면서 ② [‘명사’ [‘공간명사’ ‘조사’]]의 구조로 변화해 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김한샘 2006:181).²⁸⁾

5. 결론

◆ 공간명사의 분류

① 실체적 공간명사

- 가. 실체적 공간물 고유명사: 실체 - 사물 - 공간물 - 외연 - 직접 ex) 서울 등
 나. 실체적 공간물 일반명사: 실체 - 사물 - 공간물 - 내포 ex) 길, 집, 지역 등

② 양식적 공간명사

- 가. 양식적 공간 자립명사: 양식 - 관계 - 차원 - 공간 - 주도적 ex) (주도적 기능의) 앞, 위
 나. 양식적 공간 의존명사: 양식 - 관계 - 차원 - 공간 - 보조적 ex) (보조적 기능의) 앞, 위, (데, 쪽, 편)

◆ 종전의 의존명사 개념으로는 ‘앞(에), 위(에)’와 같이 기능요소와 인접하여 기능요소적 특성을 나타내거나 ‘-르 것이’의 ‘것’과 같이 인접 성분과 함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요소적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양식적 공간명사 같이 용법에 따라 의존성을 보이는 명사들이 의존명사에 포함되면 ‘소산(所産), 소치(所致)’와 같은 한자어들도 의존명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이 의존명사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면 ‘문법자질이나 관계자질을 표시하는 기능요소적 특성과 연관되고 보충어를 요구하는 폐쇄부류의 명사’라는 특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명칭의 문제부터 개념의 문제까지 고려한 대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8) ‘밖’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로서의 쓰임까지 ②의 구조를 유지하다가 용언에 붙어 어미로 기능하게 되면서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재분석은 언어 사용자들의 인지 방식의 변화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가 재설정되는 문법화의 중요한 기제이다(김한샘 2006:181).

□ 참고문헌

- 강명윤(2001) “DP와 국어의 명사구-지시사 ‘그’를 중심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13. 15-51.
- 고영근(1970) “현대국어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형식명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6-1. 17-55. 고영근(1989: 63-111)에 재수록.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12) “민족어의 격 어미 및 부치사, 첨사 범주와 그 유형론적 함의.” 『국어학』(국어학회) 65. 73-108.
- 김민수(1960) 『국어문법론연구』 서울: 통문관.
-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1986) 『한국역대문법대계』 서울: 탑출판사.
- 김창섭(2007) “부접명사의 설정과 식별.” 『국어학』(국어학회) 50. 27-55.
- 김창섭(2008) “보충어의 설정과 명사연속구성의 분류.”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개척자』(태학사, 2008), 1083-1116.
- 김창섭(2011)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국어학회) 62. 1-27.
- 김한샘(2006) “말뭉치에 기반한 공간명사의 의미 변화 연구.” 『반교어문연구』(반교어문학회) 21. 159-186.
- 남기삼·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목정수(2013) “한국어의 핵심을 꿰뚫어 본 교육 문법서.” 『형태론』(형태론연구회) 15-1. 55-81.
- 박병채(1990) 『국어발달사』 서울: 세영사.
- 시정근(2010)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에 나타난 특이 유형에 대하여.” 『언어연구』(한국현대언어학회) 26-1. 105-127.
- 유길준(1909) 『대한문전』 한성: 통문관. 김민수 외 공편(1986)에 재수록.
- 유혜원(2007) “경계성 명사류의 명사 연쇄 구성.” 『언어』(한국언어학회) 32-3. 497-517.
- 유혜원(2008) “국어 명사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 <공간> 명사가 나타나는 명사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38. 197-221.
- 이선웅(2004) “未知의 한자어 의존명사에 대하여.” 『형태론』(형태론연구회) 6-2. 251-276.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월인.
- 이승욱(1957) “국어의 Postposition에 대하여-그의 品詞定位에 대한 試攷-.” 『일석 이희승선생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493-509.
- 이영제(2014, 예정) “한국어 기능명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제·김의수(2013) “어휘기능범주 이론에 관하여.” 2013년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10. 19). 175-181.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서울: 민중사.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렬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서울: 한글문화사.
- 채숙희(2002)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 연구.” 국어연구 170.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 한정환(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한국언어학회) 34-3. 761-788.
- 한정환(2011) “통사 단위 단어.” 『(7인의 젊은 학자들이 쓴)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13-69. 파주: 태학사.
- Abney, S. P.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MIT Ph. D. Dissertation.
- Yeon, Jaehoon and Brown, Lucie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New York : Routledge.
- Sung Shim Hong, Xiao Dong Yang. 2010. Is Category P Lexical or Functional?: A Generalized pP-Shell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14-2. 71-85.
- Svenonius, P. 2003. Limits on P: filling in holes vs. falling in holes. *Nordlyd*. Proceedings of the 19th Scandinavian Conference of Linguistics 31: 431-445.
- <참고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 출판부.
- 국립국어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http://stdweb2.korean.go.kr>

<고전문학>

1. 「李生窺牆傳」의 美的 原理와 意味 研究
2. 21세기 고전문학 연구 동향:
『어문론집』수록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3.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과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기법적 특성
4.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의 편찬 양상과 그 의미
5. 許世旭 역본 <春香傳>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李生窺牆傳」의 美的 原理와 意味 研究

유권석*

- 目 次 -

1. 머리말
2. 美的 原理
 - 1) 逸脫에 의한 結緣
 - 2) 超越을 통한 解冤과 昇華
3. 美的 原理에 나타난 意味
4.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金時習이 지은 『金鰲新話』에 수록되어 있는 「李生窺牆傳」¹⁾을 分析하여 結緣에 이르는 逸脫의 과정과 時空을 초월한 解冤과 昇華에 내재되어 있는 美的 原理와 意味를 밝혀 보고자 시도된 논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생규장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把握해 볼 수 있다. 才子佳人인 李生과 崔女의 극적인 만남과 결연을 다룬 전반부와 갑작스런 전란에 희생당한 최녀가 還生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이별하는 후반부다. 그런데 문제는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만남과 결연에 이르는 과정은 유교적 관점에서 벗어난 逸脫의 인 행동에서 기인된 반면 여자주인공이 초월을 통해 解冤된 과정은 昇華를 통해 유교적 含意에 부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이생규장전」의 독특한 서사 전개에는 유교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한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미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이생규장전」에 관한 연구는 고소설사에서 『금오신화』가 점유하고 있는 위상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²⁾ 특히 미학과 관련해서는 박희병과 윤채근의 논의가 주목된다. 박희병은 『금오신화』의 소설미학을 고독과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이생규장전」을 “『금오신화』 다섯 편중에서 절의를 지키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³⁾라

* 남서울대

1) 「李生窺牆傳」의 내용은 리가원·허경진 옮김(1995), 『금오신화·매월당집』, 한양출판에 따랐다.

2) 『금오신화』를 연구하면서 다른 작품과 함께 다루어진 경우도 있고 「이생규장전」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문학과 사상, 미학적인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설중환(1983), 『金鰲新話研究』,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pp.90~91.

김일렬(1984), 『朝鮮朝小說의 構造와 意味』, 형실출판사, pp.13~22.

설성경·박태상(1986),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pp.76~89.

김혜숙(1987), 「이생규장전, 그 寓意의 內幕」, 『울산어문논집』 제3집, 울산대국문과, pp.107.~151.

박일용(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pp.85~97.

김문희(2012), 「인물의 내면소설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독법」, 『고소설연구』 제32집, 고소설학회, pp.65~95.

고 규정한 바 있으며, 윤채근은 「이생규장전」을 “사랑을 매개로 전개된 삶의 비극적 아이러니”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절의와 비극적 관점의 분석은 일견 설성경이나 이대형의 입장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설성경은 「이생규장전」의 구조를 “절의로 죽은 이들에 대한恨과 그 풀이인 정화의 의미”⁵⁾라는 입장에서 분석했으며, 이대형은 이생과 최녀의 관계를 “전반부에서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욕망의 규범화의 서사이며, 후반부는 원사와 해한의 서사”⁶⁾라고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들은 「이생규장전」의 특징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생과 최녀의 결연에 이르는 수단이 탈규범적인 일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생과 최녀의 사랑이 유교적 가치에 부합됨으로써 추앙의 형태로 승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美的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일탈과 해원에 따른 승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생규장전」은 방외인의 삶을 살다간 작가 김시습의 애정에 대한 내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서사라는 점에서 일탈과 해원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의 편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2. 美的 原理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작품 중에서 남녀의 애정과 결부된 작품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다. 이 세 작품은 남녀의 애정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여주인공이 죽은 영혼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이다. 남녀의 애정문제는 고소설의 중요한 소재인데⁷⁾,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생 아버지로 인한 애정갈등이 보이지만 여주인공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비교적 쉽게 해결되고 있다.

한편 죽은 영혼과의 결연과 이별을 다루고 있지만 죽은 영혼은 전부 여자이며 환생이라는 전제만 제거시킨다면 마치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의 재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남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만남과 이별에는 불교에서 내세우는 인연론을 중요시하고 있다. 「만복사저포」의 경우 죽은 영혼의 환생인 하씨는 양생과의 결연 후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해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교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생규장전」에서 여주인공이 환생한 것은 모두 불교적인 인연에 의한 것이지만 부부로서의 삶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이생규장전」은 현실에서 결연에 이른 이생과 최녀가 전란으로 인해 시공을 초월하여 영혼으로 재회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보다 더 치밀한 구성을 보여주

3) 박희병(1995), 「『金鰲新話』의 小說美學」, 『한국한문학회』제18집, 한국한문학회, p.267.

4) 윤채근(1998), 「『金鰲新話』의 美的 原理와 反省的 主體」, 『고전문학연구』14권, 한국고전문학회, pp.174~175.

5)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p.77.

6) 이대형(2003), 『금오신화연구』, 보고서, pp.130~142.

7) 박일용, 앞의 책, p.14.

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애정관계에서 자식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애정의 모든 관점이 두 사람을 향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사랑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극히 예외적이면서도 특별했다고 할 수 있다.

1) 逸脫에 의한 結緣

「이생규장전」에는 젊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로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초반부터 긴장감과 선망의 시선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에서 비롯된 사랑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가문에 따른 신분과 빈부의 차이, 학식, 도덕적 가치관이 제거된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의 발전은 운명적인 만남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여성과 소극적인 남성의 심리⁸⁾ 상태를 통해 상대적으로 강한 여성의 위상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금오신화』에 자주 나타나는 설정으로 작가인 김시습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생규장전」은 비현실적 상황⁹⁾ 빙자한 현실적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탈이다.

「이생규장전」에 나타나는 일탈의 시작은 이생이 최녀가 거처하는 작은 누각을 담 밖에서 엿봄과 이러한 이생을 최녀가 흠모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세상 사람들이 능력과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모범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풍류남아와 아리따운 처녀의 사사로운 만남은 이러한 세상의 평가로 인해 더욱 파격적이다. 이생이 담을 넘으면서 적극적인 일탈로 이어지는데, 처음 담장을 엿본 것은 이생이었지만 이생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을 일으킨 것은 최녀였다. 이생은 최녀가 자신을 향해 쓴 시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연정을 느꼈으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담을 넘게 되면서 哀歡을 동시에 겪게 되었다.

"님이여, 의심 마세요. 황혼에 만나기로 하세요."

이생이 그 말대로 황혼이 되자 최녀의 집을 찾아갔다. 갑자기 복사꽃 한 가지가 담 위로 넘어오면서 하늘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생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벚줄이 대바구니를 매어서 아래로 늘어뜨려 놓았다. 이생을 그 줄을 잡고 담을 넘었다.

마침 달이 동산에 떠오르고 꽃 그림자가 땅에 비껴 맑은 향내가 사랑스러웠다. 이생은 자기가 신선 세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마음은 비록 기뻐지만, 자기의 마음이나 지금 하려는 일이 비밀스러워서 머리칼이 모두 곤두섰다.¹⁰⁾

최녀는 이생과의 만남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이생은 최녀를 만나는 것이 황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생의 변민은

8) 김문희, 앞의 책, p.68.

9) 「이생규장전」의 비현실적 설정은 흔히 환상성으로 대변된다.(박일용(2004),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20집, 한국고소설연구학회, pp.11~21.

10) 「李生窺牆傳」“將子無疑，昏以爲期。”生如其言，乘昏而往，忽見桃花一枝，過牆而有搖裊之影。往視之則以鞦韆絨索，繫竹兜下垂。生攀緣而踰，會月上東山，花影在地，清香可愛。生意謂已入仙境，心雖竊喜，而情密事秘，毛髮盡豎。

바구니를 타고 최녀의 정원에 들어선 순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이생과 최녀가 시도한 일탈의 서막은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벗어난 자유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생과 최녀는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관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생은 남자이면서도 최녀를 만나면서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여자인 최녀는 더 강한 운명을 담보로 이생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역할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즉 이생은 최녀와의 만남에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녀는 이생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생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절에 대한 관념을 고려한다면 일탈의 종착점이 결연으로 이어져야 함을 최녀가 먼저 확신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저는 본디 당신과 함께 부부가 되어 끝까지 남편으로 모시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마음이 태연한데, 장부의 의기를 가지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날 규중의 일이 누설되어 친정에서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 제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¹¹⁾

이생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녀는 이미 만나기 전부터 이생을 배필로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극히 짧은 만남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무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 이생과의 만남이 잘못된다면 최녀의 삶은 파국에 이를 수 있기에 더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즉 최녀는 사랑의 생취를 통해 인생의 파탄이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은 최녀의 적극성과 대담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최녀는 이생이 갖고 있는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최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이상 이생을 빨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랬기에 만난 날 바로 정을 나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생과 최녀가 벌인 또 하나의 일탈은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 정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일은 반드시 작은 인연이 아니랍니다. 당신은 저를 따라오셔서 정을 나누는 것이 좋겠어요."

한쪽에 작은 방 하나가 따로 있었는데, 휘장·요·이불·베개들이 또한 아주 깨끗하였다. 휘장밖에는 사향을 태우고 난향의 촛불을 켜놓았는데 환하게 밝아서 마치 대낮 같았다. 이생은 최녀와 더불어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러 날 머물렀다.¹²⁾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나이도 어린 최녀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11) 「李生窺牆傳」本欲與君，終奉箕帚，永結歡娛，郎何言之若是遽也？妾雖女類，心意泰然，丈夫意氣，肯作此語乎。他日閨中事洩，親庭譴責，妾以身當之。
12) 「李生窺牆傳」“今日之事，必非小緣，郎須尾我，以遂情款。”一傍，別有小室一區，帳褥衾枕，亦甚整麗。帳外薰麝臍，燃蘭膏，熒煌映徹，恍如白晝。生與女，極其情歡，遂留數日。

당시 사회의 규범적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는 동시에 사랑의 방식과 폭이 이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³⁾ 이것은 이생이 단지 글이나 읽는 미래가 촉망받는 서생일 뿐이며 최녀는 이미 부와 권력을 지닌 집안의 외동딸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 또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최녀가 이생과 정을 나눈 공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최녀는 부잣집의 외동딸이었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집안에서도 가장 한적한 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화초가 만발한 동산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한적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세상과 차단되어 있다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즉 최녀는 부족한 것 없이 지내면서도 이팔청춘의 숙녀가 갖고 있는 외로움으로 인해 사람을 그리워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것을 해소해 준 대상이 바로 이생이며 밀회를 나누는 장소와 방식은 모두 최녀의 공간에서 최녀의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생은 남성중심의 유교사회에서 여성인 최녀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가치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최녀가 이생과 함께 머물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 이생은 아버지의 엄한 질책을 받고 머나 먼 울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떠나보내며 질책한 내용에는 최녀와 이생이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네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의 어질고 의로운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반드시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을 넘어서 아가씨나 옛보고 다닐게다.

이런 일이 만일 탄로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책망할 것이다. 또 그 처녀도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반드시 네 미친 짓 때문에 그 집안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남의 집에 죄를 지었으니, 이 일이 작지 않다.¹⁴⁾

이생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성인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경박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모를 욕되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체 높은 집안의 처녀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생의 부모는 이생이 최녀와의 만남으로 인해 장래를 망치고 처녀의 집안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일탈은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본다면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⁵⁾

사랑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듯이 갑자기 이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일탈을 드러내고 양

13) 이생과 최녀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다.(박일용, 앞의 책,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pp.9~10. 참조)

14) 「李生窺牆傳」 “汝朝出而暮還者, 將以學先聖仁義之格言, 昏出而曉還, 當爲何事? 必作輕薄子, 踰垣牆, 折樹壇耳. 事如彰露, 人皆譏我教子之不嚴, 而如其女, 定是高門右族, 則必以爾之狂狡, 穢彼門戶, 獲戾人家, 其事不小.

15) 「이생규장전」의 애정갈등은 이생의 부친이 갖고 있는 도덕적 엄격성에서 기인된 있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표면적인 것이며 신분과 재산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진다.(이상구(1996), 「이생규장전의 갈등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논집』35집, 민족어문학회, p.328.)

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것 또한 최녀였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길러 주신 은혜가 깊으니, 어찌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저 혼자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합니다.”¹⁶⁾

일탈의 댓가는 혹독한 것이었다. 적극적이던 최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최녀의 일탈에 대한 변은 그녀가 왜 일탈을 감행하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최녀는 남녀의 사랑을 인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부모의 동의 없이 과감하게 이생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고, 이 간절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다시 만나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오르지 않겠습니다.”¹⁷⁾

두 사람의 일탈로 인한 행복이 이생 아버지의 개입으로 불행에 빠졌다면 이를 다시 행복으로 돌려놓은 것은 죽음을 담보로 사랑을 지키고자 했던 최녀의 노력이다. 이생을 향한 최녀의 사랑이 애절하면서도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무엇도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때문인데,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과격적인 일탈이었던 것이다.

최녀의 부모가 이생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생과 최녀는 백년가약을 맺어 공인된 부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는 일탈적인 사랑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잠재우고 양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결과로 나타난다. 비록 최녀의 부모가 지닌 너그러움이 자식을 살리고 현실의 어려운 제약을 극복하게 했지만 이러한 일탈이 「이생규장전」에 개입되면서 미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 超越을 통한 解冤과 昇華

『금오신화』에 나타나는 초월은 죽은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다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생한 영혼의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지극히 제한된 시야를 확보하고 있을 뿐이며, 활동 또한 이승의 살아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환생한 영혼이면서도 그가 저승에서 온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색과 향, 암시 등을 통해 감지될 뿐 과장되거나 탁월한 능력 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생규장전」의 경우 홍건적에게 희생당한 후 환생한 최녀의 존재 또한 이생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것일 뿐 특별한 설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생규장전」에서 비극적인 부분은 최녀가 홍건적에게 희생당한 것과 이생과 영원히 이별

16) 「李生窺牆傳」 “父親母親，鞠育恩深，不能相匿。竊念男女相感，人情至重。

17) 「李生窺牆傳」 父母如從我願，終保餘生，倘違情款，斃而有已。

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최녀가 환생하여 미진한 인연을 이어 해원에 이르고 주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승화된다는 점에서 비극의 농도가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다. 즉 이러한 초월을 통한 해원과 승화는 슬픔을 초극한다는 점에서 「이생규장전」의 미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생 아버지의 승낙으로 인해 두 사람이 결혼에 성공하고 이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잠시, 갑작스런 흉건적의 침입은 최녀의 죽음과 이생의 무력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비극적 상황으로 급반전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기 전 벌였던 일탈의 과정에 비해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부부로 산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이생규장전」의 서술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생과 사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최녀는 이런 절대성을 뛰어넘어 자신이 사랑하는 이생의 곁으로 태연히 돌아왔다. 여기에 환생을 통한 초월의 매력이 담겨 있다.

이생은 그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않고 물어 보았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 가서 목숨을 보전하였소?"¹⁸⁾

이생은 죽은 최녀의 영혼이 환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사랑하는 마음에 최녀를 평소처럼 맞아들이고 있다. 최녀에게 있어 이생이 삶의 전부였다면 이생 또한 그러했기에 이미 죽었음을 알면서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최녀는 죽음의 순간에도 한 남편을 둔 여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었기에 다시 환생할 수 있었다.

장차 백년을 함께 하자고 하였는데 뜻밖에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늑대 같은 놈들에게 끝까지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제 몸은 진흙탕에서 찢겨졌답니다.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인정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었겠어요.¹⁹⁾

전란은 개인의 힘으로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최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백년을 함께 살고자 했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녀의 미진한 사랑에 대한 회한은 초월을 통해 일시적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재회는 정해진 운명임으로 다시 이생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오기에 저도 이승으로 돌아왔지요. 봉래산 십이 년의 약속이 엄

18) 「李生窺牆傳」 生雖知已死, 愛之甚篤, 不復疑訝. 遽問曰 避於何處, 全其軀命.

19) 「李生窺牆傳」 將謂偕老而歸居, 豈意橫折而顛溝, 終不委身於豺虎, 自取磔肉於泥沙, 固天性之自然, 匪人情之可忍.

혀 있고 삼세(三世)의 향이 향그러우니, 오랫동안 뱀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어요. 당신이 지금도 그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도 끝까지 잘 모시고 싶답니다. 당신도 허락하시겠지요?"

이생이 기쁘고도 고마워하며 말하였다.

"그게 애당초 내 소원이요."²⁰⁾

최녀는 이생과의 재회가 佛家에서 말하는 인연에 의해 끊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환생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생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면 함께 부부로서의 삶을 연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최녀의 요구는 이생도 원하는 바였기에 삶과 죽음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즉 이생이 최녀를 받아들인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이 변함없음은 잠자리의 즐거움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써 전란으로 안타깝게 죽은 최녀의 원한과 모든 것을 잃었던 이생의 응어리진 마음이 해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녀가 돌아온 후 이생의 집안은 다시 안정되었지만 이생이 벼슬을 구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처럼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기에 부부간의 금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내세우는 남편과 아내의 공식적인 역할은 제거된 채 오로지 사랑만을 추구한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사랑에 대한 관념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변치 않는 순수한 감정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시공을 초월한 인연과 최녀의 선한 삶으로 인해 연장되었던 사랑은 끝내 명부의 법도에 의해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되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볼 수가 없지요. 제가 굳이 인간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도를 어기게 되니,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또한 누가 미치게 된답니다.”²¹⁾

최녀는 이생과의 이별에 앞서 이생이 자신과 함께 황천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자신이 먼저 저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피력하고 있다. 헤어짐은 슬픈 것이지만 명부의 법도를 어겼을 때 자신만이 아닌 이생도 죄를 받게 됨을 들어 더 이상 함께 죽거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최녀의 이생에 대한 애뜻함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생은 최녀가 환생했던 동안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사지내는 등 모든 집안일을 처리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최녀와의 이별은 모든 삶의 의욕을 잃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녀는 이생에게 자신의 흠어져 있는 유골을 수습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영원히 떠나갔다. 이에 이생 또한 최녀를 장사지내준 후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생까지 세상

20) 「李生窺牆傳」 今則鄒律已吹於幽谷, 倩女再返於陽間. 蓬萊一紀之約綢繆, 聚窟三生之香芬郁, 重契關於此時, 期不負乎前盟, 如或不忘, 終以爲好, 李郎其許之乎. 生喜且感曰 固所願也.

21) 「李生窺牆傳」 李郎之壽, 剩有餘紀, 妾已載鬼錄, 不能久視. 若固眷戀人間, 違犯條令, 非唯罪我, 兼亦累及於君.

을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만이 남게 되었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 이생도 또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가슴 아파 탄식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²²⁾

비록 이생과 최녀의 정해진 운명에 따라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이 결코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시공을 초월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생을 마감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이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으로 애뜻한 사랑이 개입됨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극복한 초월과 미진한 사랑을 채운 해원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힘은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추앙을 받는 승화의 단계로 발전되면서 「이생규장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3. 逸脫과 解冤, 昇華의 意味

「이생규장전」은 일탈로 시작된 남녀의 사랑이 초월을 통한 해원과 승화로 마무리되는 독특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만복사저포기」나 「취유부벽정기」 같은 애정소설에 비해 치밀한 구성과 지고지순한 사랑에 내재된 주제의식은 이 작품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30대 초반에 경주의 금오산에서 창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불운한 방외인으로서의 삶을 한차례 겪은 후에 세상에 나왔다는 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창작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한 편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모두 밝히는 일은 매우 난해한 일이다. 그러나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생과 최녀, 주변인물인 이생의 아버지와 최녀의 부모, 그리고 서사에 등장하는 사건과 의식의 흐름, 주변의 평가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작품의 미적 원리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생규장전」에 내재된 의미는 첫째, 남녀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생은 학식이 뛰어난 전도양양한 젊은이지만 신분과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잘 것 없는 서생에 불과하다. 단지 잘생기고 능력을 갖춘 인물인 것이다. 반면 최녀는 여자로서 시문도 익혔으며 무엇보다 부유한 귀족집안 출신이다. 또한 외모가 매우 아름답게 묘사

22) 「李生窺牆傳」 旣葬, 生亦以追念之故, 得病數月而卒. 聞者莫不傷歎, 而慕其義焉.

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세상을 먼저 경험했던 이생의 아버지가 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능력과 외모를 제외한 부와 권세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부터 모두 제거되었을 뿐이다. 즉 이생과 최녀의 일탈적인 만남을 통해 부와 권세 등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열망을 담아냈다고 여겨진다.

둘째, 「이생규장전」은 불운했던 작가의 삶에 대한 회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은 결혼도 늦었지만 그마저도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안 씨가 질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또한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했다. 이러한 김시습의 삶은 능력은 있으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으며 단란한 가정도 꾸리지 못했던 자신의 불운했던 삶에 대한 회한이 일정부분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생과 최녀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중시되는 결혼에 이르고 있지만 세태적인 부부로서의 도리적인 측면보다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시공을 뛰어넘는 초월이 가능했으며 미진한 사랑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해원의 문제도 현실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생규장전」은 심약한 이생과 강인한 최녀의 대비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한껏 드높여 놓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여성의 등장은 김시습이 창작한 『금오신화』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사회에 팽배했던 유교적 가치관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녀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생을 받아들인 것은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은 규수의 행동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아울러 죽음으로 결혼을 관철시킨 것 또한 현실의 모순을 허문 역발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강인하고 적극적인 여성을 통해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공의 초월을 통한 해원의 과정에 죽은 영혼의 환생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설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여성이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여성에 대한 모순된 시각을 재고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로가 내포된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21세기 고전문학 연구 동향

- 『어문론집』 수록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 김용기

<목차>

1. 서론
2. 고전시가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3. 고전산문과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4. 민속학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5.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6. 『어문론집』 고전문학분과의 연구방향
7. 결론

1. 서론

21세기 학술논문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전문학술지에 수록하기 위한 논문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창기의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고, 모든 학술지가 전문학술지가 되거나 전문학술지로 유지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나아가 국제학술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양산되는 거의 모든 학술지의 형식이 통일되었고, 각 논문에 대한 양적 분량도 어느 정도 규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논문,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논문을 써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논문의 생명력이 ‘창의성’이니만큼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고착화되다 보니, 석·박사 과정생들의 학습용 논문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전문 연구자들도 문학사나 문학이론의 발굴 같은 영역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지점 위의 한 영역에서만 서로들 바둥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 안에서 누가 많은 결과를 산출하였는가가 신규 임용의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학술논문들은,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 전반에 대혁명과도 같은 시대에서 양산된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어문학회의 기획 주제가 ‘21세기 고전문학 연구의 동향’이라고 정한 것은 이러한 큰 변화의 시기에서 양산된 논문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어문론집』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주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방대하고 작은 논문 한편으로 소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주제이다. 내심 21세기 고전문학 중에서,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 정하여 논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인물’, ‘정서’라든지, ‘고전문학 교육’ 등으로 좀 더 세분화했으면 논의의 밀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오랜 고민 끝에, 21세기 고전문학의 연구 동향 중에서도, 우리 『어문론집』에 수록된 논문들을 그 범위로 한정해 보기로 했다. 대한민국 전체 고전문학 연구의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문론집』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의 특성과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술지가 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된 이후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필자는 『어문론집』 43집부터 최근 55집까지를 범위로 하여 여기에 수록된 고전문학 연구논문들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 이후 우리 학술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고전시가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필자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어문론집』이 등재후보지가 된 이후의 논문들이라 할 수 있는 43집부터 최근 55집에 게재된 글들이다. 여기에는 총 58편의 고전문학 관계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¹⁾ 43집부터 55집까지의 『어문론집』에 수록된 고전시가 관련 논문들은 대략 11편이다. 이 중에는 한문학 관련 논문들이라 할 수 있는 한시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각 논문집별로 수록된 고전시가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3집(2010.3)

- ① 박영준, 「시조와 하이쿠의 미의식-형식적 측면을 중심으로-」²⁾
- ② 이효숙, 「조선시대 ‘무이도가’ 수용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³⁾

44집(2010.7)

- ③ 김성문, 「16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성리학과 자연인식 양상-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⁴⁾

45집(2010.11)

- ④ 김금남, 「이황과 보우의 시가에 내재된 의식 비교」⁵⁾
- ⑤ 임보연, 「소과 오효원의 수학기 시에 나타난 주체적 여성 의식」⁶⁾
- ⑥ 정숙인, 「추사 김정희의 영물시 고찰」⁷⁾

47집(2011.7)

- ⑦ 임두정, 「읍취헌 박은 한시의 공간이미지구조 연구」⁸⁾
- ⑧ 정숙인, 「<최치원> 삽입시가의 양상과 기능」⁹⁾

50집(2012.6)

- ⑨ 김재룡,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 연구-매화시를 중심으로-」¹⁰⁾

53집(2013.3)

- ⑩ 김윤희, 「<기성별곡>에 형상화된 평양과 심상지리적 특질」¹¹⁾

1) 44집에 게재된 최홍열 선생의 김상옥 시조 관련 논문은, 고전문학에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이는 현대문학에 해당되기에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박영준, 「시조와 하이쿠의 미의식-형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195-217.

3) 이효숙, 「조선시대 ‘무이도가’ 수용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론집』 4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245-266.

4) 김성문, 「16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성리학과 자연인식 양상-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4집, 2010.7, pp.147-163.

5) 김금남, 「이황과 보우의 시가에 내재된 의식 비교」, 『어문론집』 45집, 중앙어문학회, 2010.11, pp.245-261.

6) 임보연, 「소과 오효원의 수학기 시에 나타난 주체적 여성 의식」, 『어문론집』 45집, 중앙어문학회, 2010.11, pp.315-336.

7) 정숙인, 「추사 김정희의 영물시 고찰」, 『어문론집』 45집, 중앙어문학회, 2010.11, pp.339-354.

8) 임두정, 「읍취헌 박은 한시의 공간이미지구조 연구」,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7, pp.119-146.

9) 정숙인, 「<최치원> 삽입시가의 양상과 기능」,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7, pp.149-164.

10) 김재룡,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 연구-매화시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8집, 중앙어문학회, 2012.6, pp.207-226.

11) 김윤희, 「<기성별곡>에 형상화된 평양과 심상지리적 특질」, 『어문론집』 5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54집(2013.6)

⑪김성문, 「기녀시조의 화자와 작품의 성격 연구」¹²⁾

이상을 보면 46, 48, 49, 51, 52, 55집에는 고전시가 관련 논문이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①번 박영준의 글은 한국과 일본의 정형시가인 시조와 하이쿠의 미의식을 詩形을 중심으로 비교한 논문이다. 이는 학계에서 그리 활발하지 않은 연구분야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어문론집』 고전시가 부분에서 한·일 시가문학의 비교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②번 이효숙의 글은 주자의 「무이도가」가 조선 중기 이후에 널리 수용되고 읽혔다는 점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글이다. 이는 연구범위가 한국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으로 확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중국문학이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③번 김성문의 글은 영남사림과 기호사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이황과 이이의 시조에 나타난 성리학적 성격과 자연인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 두 사람을 통해 16세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자연인식과 주리론 및 주기론적 사상의 특징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시가문학을 구조주의적, 절대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당대의 사상과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④번 김금남의 글은 유학자인 이황과 불교주의자인 보우의 시가에 내재된 의식을 비교한 글이다. 이 글은 서로 대척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유가와 불가의 시가를 통해 이황과 보우의 작품 속에 내재된 의식의 지향점을 살펴보고 있다. 논의의 결과 두 인물의 작품에는 자연과의 절서와 조화를 추구하며 도를 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번 임보연의 글은 조선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전환기 시대를 살았던 오효원의 수학기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오효원이 개화기 시대의 신여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개 여류시인들이라 하면 조선시대 기녀나 사대부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내재된 여성의식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글은 조선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여성 시가 작품을 통해 두 시대를 살아간 여성의 삶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⑥번 정숙인의 글은 추사 김정희의 560여 수의 한시 가운데, 詠物詩를 대상으로 김정희의 관심과 시 세계의 일면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은 학계에서 그리 활발하지 못한 김정희의 영물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유명 작가의 어느 한 부분을 통해 입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된다.

⑦번 임두정의 글은,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영역이고,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의식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글이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연구자는 읍취헌 박은의 한시에 나타난 전체적인 공간기호 체계를 분석하고, 전체의 의미론적 구조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박은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관과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었던 지향의식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이 글은 시 텍스트를 공간화하여 의미작용의 심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한 바르트와 로트만의 이론을 고전시가로 견인하여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pp.185-206.

12) 김성문, 「기녀시조의 화자와 작품의 성격 연구」, 『어문론집』 54집, 중앙어문학회, 2013.6, pp.257-274.

라 할 수 있다.

⑧번 정숙인의 글은 전기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최치원>의 삽입시가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삽입시가는 초기 서사장르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양식이고,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최치원> 삽입시가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최치원>의 삽입시는 소설로 인정받고 있는 <금오신화>의 삽입시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결말 부분에 드러나는 총론적 성격의 시는 <최치원>의 삽입시가 지닌 특성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⑨번 김재룡의 글은 매화시를 중심으로 하여,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을 살펴본 것이다. 그는 이익의 시 창작론이 문예미에 대한 일정한 고려없이 문학의 실용적 측면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심미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 창작법의 핵심은 창조성, 회화성, 사실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어문론집』에서 유명 작가의 창작론을 소개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시도로 평가 받을 수 있다.

⑩번 김윤희의 글은 海石 김재찬에 의해 창작된 가사 <기성별곡>을 통해 ‘평양’이라는 지역 공간이 가사 문학으로 형상화된 양상과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 글은 최근 학계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심상 지리학, 또는 지역 공간성을 문학 작품에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⑪번 김성문의 글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기녀시조를 대상으로 하여, 기녀시조의 화자와 정서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구명하고 있다. 이 글은 화자의 설정과 시적화자의 어조,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살핀 글이다. 연구자는 기녀시조의 화자를 드러난 화자와 숨은 화자로 나누고, 드러난 화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정감이 표출되는 작품군으로, 숨은 화자의 경우는 보편적 정서가 표출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시조 작품을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의 담화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어문론집』에 수록된 고전시가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경향은 어느 한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 비교문학, 중국문학의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조선과 근대의 양대 시기 여성의식, 유가와 불가 시가에 내재된 의식의 공통점, 시가 창작론, 심상 지리학, 시조 텍스트의 담화성에 대한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통해 논지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전산문과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두 번째는 고전산문과 구비문학 분야이다. 고전산문은 다시 고소설과 기타 고전산문으로 나눌 수 있고, 구비문학은 설화·구비문학분야¹³⁾로 세분할 수 있다. 이는 『어문론집』에 수록된 고전산문 분야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43집부터 55집까지 『어문론집』에 수록된 고전산문과 구비문학 분야 논문은 총 29작품이다. 총 58편의 분석 대상 중에서 5할에 해당하는 절대적 수치이다. 각 권별로 수록된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설화와 구비문학 분야를 같은 연구 범위로 합친 결과 산문이 아닌 운문이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구비문학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작품의 내용상 운문이라 할 수 있는 ‘아리랑’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귀속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쪽 어디에 넣어서 논의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일단 구비문학 속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하고, 이후 조정의 필요성이 인지되면 수정하기로 한다.

[A]. 고전산문

45집(2010.11)

①이채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원혼의 함원과 해원」 14)

46집(2011.3)

②김용기, 「강산의 초월적 성격과 문학적 대중성」 15)

③김현정, 「〈홍길동 이야기〉의 현대적 변용과 의미」 16)

47집(2011.7)

④김창현, 「한국애정비극서사의 기원과 그 미학적 특성-초기서사를 중심으로-」 17)

48집(2011.11)

⑤이기대, 「19세기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공적인 성격과 그 문화적 기반」 18)

49집(2012.3)

⑥신선옥, 「〈老稼齋燕行日記〉」 19)

50집(2012.6)

⑦유권석, 「17세기 술 소재 가전의 聖學 수용과 영웅의 형상화 연구」 20)

51집(2012.9)

⑧김상원·김용기, 「한·일 계모담 고소설의 서사구조와 내용 비교-〈오치쿠보모노가타리〉, 〈스미요시모노가타리〉, 〈장화홍련전〉, 〈콩쥐팍쥐〉를 중심으로-」 21)

⑨윤태식, 「문암 유본학의 전 작품 연구-입전인물에 대한 서술태도와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22)

52집(2012.12)

⑩강우규, 「〈소현성록〉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교 연구-혼인담에 나타난 서술시각을 중심으로-」 23)

⑪유기옥, 「羅獻容의 〈中書問下同平章事管城侯毛君墓誌銘〉연구」 24)

53집(2013.3)

⑫김용기, 「창선감의록의 상징과 초월성 연구」 25)

⑬소인호, 「미발표 고전소설 〈장관기사〉연구」 26)

14) 이채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원혼의 함원과 해원」, 『어문론집』 45집, 중앙어문학회, 2010.11, pp.289-313.

15) 김용기, 「강산의 초월적 성격과 문학적 대중성」, 『어문론집』 46집, 중앙어문학회, 2011.3, pp.7-36.

16) 김현정, 「〈홍길동 이야기〉의 현대적 변용과 의미」, 『어문론집』 46집, 중앙어문학회, 2011.3, pp.37-56.

17) 김창현, 「한국애정비극서사의 기원과 그 미학적 특성-초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7, pp.95-116.

18) 이기대, 「19세기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공적인 성격과 그 문화적 기반」,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11, pp.259-280.

19) 신선옥, 「〈老稼齋燕行日記〉」, 『어문론집』 49집, 중앙어문학회, 2012.3, pp.101-132.

20) 유권석, 「17세기 술 소재 가전의 聖學 수용과 영웅의 형상화 연구」, 『어문론집』 48집, 중앙어문학회, 2012.6, pp.295-314.

21) 김상원·김용기, 「한·일 계모담 고소설의 서사구조와 내용 비교-〈오치쿠보모노가타리〉, 〈스미요시모노가타리〉, 〈장화홍련전〉, 〈콩쥐팍쥐〉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1집, 중앙어문학회, 2012.9, pp.189-226.

22) 윤태식, 「문암 유본학의 전 작품 연구-입전인물에 대한 서술태도와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1집, 중앙어문학회, 2012.9, pp.255-272.

23) 강우규, 「〈소현성록〉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교 연구-혼인담에 나타난 서술시각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2집, 중앙어문학회, 2012.12, pp.225-250.

24) 유기옥, 「羅獻容의 〈中書問下同平章事管城侯毛君墓誌銘〉연구」, 『어문론집』 52집, 중앙어문학회, 2012.12, pp.309-331.

25) 김용기, 「창선감의록의 상징과 초월성 연구」, 『어문론집』 5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155-183.

26) 소인호, 「미발표 고전소설 〈장관기사〉연구」, 『어문론집』 5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207-226.

⑭안기수, 「한국 영웅소설에 수용된 중국문화의 배경 연구」 27)

⑮이명현, 「<옥루몽>에 나타난 초월적 요소의 성격과 대중성」 28)

54집(2013.6)

⑯유권석, 「<금오신화>에 활용된 술의 역할과 의미 연구」 29)

⑰이병기, 「음빙실자유서>의 국한문체 번역에 대하여」 30)

⑱이기대, 「<진성운전>의 서사구조에 나타난 특징적 양상과 소설사적 의미」 31)

55집(2013.9)

⑲김정은, 「<수당연의>계열 구활자본 고소설 연구」 32)

위에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전산문 분야는 43,44,45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문집에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 고소설 분야가 10여 편으로 좀 더 많고, 나머지 일기, 수필, 전문학, 묘비명, 번역 등에 대한 것이 8편 가량 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전산문 분야의 연구가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①번 이채영의 글은 <변강쇠가>에 나타난 함원과 해원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글로서, 이는 선행연구에서 <변강쇠가>를 성적인 문제나 하층 유랑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견해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자는 <변강쇠가>가 전후반의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성적 욕망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강쇠의 함원의 원인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함원은 결국 현실적인 삶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후 강쇠의 해원은 현실의 힘이 아닌 무속적 세계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강쇠가>를 ‘원혼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②번 김용기의 글은 ‘고전문학과 대중성’이라는 기획주제에 맞춰 논의된 글이다. 동양의 서사문학에서 초월적 세계와 강과 산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모해 왔다는 점에서 문화적 코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동양의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초월세계는 두 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걸쳐 사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정한 강이나 산과 결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학적 코드이고 독자와의 소통방식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번 김현정의 글은 고소설 <홍길동전>의 내용이 현대적 텍스트로의 변용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고소설 <홍길동전>과 1988년 SBS에 방영된 <홍길동>, 2008년 KBS에 방영된 <쾌도 홍길동>의 내용 비교를 통하여 변화되어 나타나는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문화콘텐츠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글이지만, 원전 <홍길동전>의 의미를 잘 분석하여 그 의미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살핀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④번 김창현의 글은 한국 애정비극소설의 기원과 초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27) 안기수, 「한국 영웅소설에 수용된 중국문화의 배경 연구」, 『어문론집』 5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229-255.

28) 이명현, 「<옥루몽>에 나타난 초월적 요소의 성격과 대중성」, 『어문론집』 5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257-280.

29) 유권석, 「<금오신화>에 활용된 술의 역할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 54집, 중앙어문학회, 2013.6, pp.299-319.

30) 이병기, 「음빙실자유서>의 국한문체 번역에 대하여」, 『어문론집』 54집, 중앙어문학회, 2013.6, pp.351-376.

31) 이기대, 「<진성운전>의 서사구조에 나타난 특징적 양상과 소설사적 의미」, 『어문론집』 54집, 중앙어문학회, 2013.6, pp.321-350.

32) 김정은, 「<수당연의>계열 구활자본 고소설 연구」, 『어문론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13.9, pp.91-115.

미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영웅적인 주인공의 좌절을 통해 비극정신을 환기하는 영웅비극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면서,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애정비극 특유의 논리와 미적 기반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 애정비극소설의 전통과 계보, 미학적 특질에 대한 연구에서 진일보한 글이라 할 수 있다.

⑤번 이기대의 글은 19세기 왕실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활용하여 외부의 인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편지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 과정과 그 문화적 기반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19세기 왕실 여성들은 편지를 통한 개인적인 의사소통 외에, 왕실 밖의 인물들과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정보의 제공과 의견의 수렴을 하였으며, 왕실과 조정의 인사, 경제, 군사 문제와 외교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문제의 호소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편지를 활용하였음도 밝히고 있다. 이는 왕실 여성의 편지가 다양하게 전개된 이유가, 19세기에 들어 왕실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⑥번 신선옥의 글은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를 통해 이주로 인해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와 유통, 사행에서 미각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조선이주민과 음식에 대해 주목하면서, 감각의 문화적 의미와 미각에 대한 김창업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와 사행으로 인해 감각이 변화되고 유통된다는 점을 밝히고, 민족적인 감각이 한 공동체 혹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것이 밖의 세상에서 상품화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⑦번 유권석의 글은 17세기에 출현한 술 소재 가전 3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전대 술 소재 가전 작품들에 나타난 특징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심성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17세기 술 소재 가전의 주인공들이 허구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술 소재 가전이 신화나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가진 서사구조와 부합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⑧번 김상원·김용기의 글은 한·일 계모담 고소설의 서사구조와 내용을 비교 문학적 차원에서 살핀 글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일 계모담 고소설은 서사구조와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일 계모담 고소설의 차이점으로 첫째, 일본의 경우 초월성이 거의 없고 사실성이 강함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초월성이 강하게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둘째, 한국의 경우에는 전처 소생과 주인공과 계모 및 그 자식들 간의 갈등관계가 분명함에 비해, 일본은 주인공과 계모와의 갈등관계가 중심이고, 계모의 자녀들이 악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가족과의 분리가 한국의 경우에는 전처 소생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계모의 집을 탈출하는 것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점. 넷째, 일본 계모담은 자유로운 연애담의 성격이 강하고, 한국은 초월성에 기반을 둔 천정연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한·일 계모담 고소설의 구조와 내용상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⑨번 윤태식의 글은 문암 유분학의 전 작품의 서술태도와 작가의식을 연구한 글이다. 연구자는 조선후기에 문학 담당층이 사대부에서 중인 계층으로 확대되는 시대적 상황이, 조선후기 문학의 한 특징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전제하고, 이 시기 중인층 작가에 의한 활발한 전 작품의 창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연구자는 신선전 계통의 작품을 많이 창작한 유분학의 전 작품이 갖는 특성과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중인 계층 문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⑩번 강우규의 글은 <소현성록>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에 나타난 혼인담과 서술시각을 비교한 글이다. 연구자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정인군자형과 영웅호걸형이라는 이원적 인물유형에 따라 혼인담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담의 차이에 따라 <소현성록>연작은 남주인공의 문제적 모습을 옹호하고, 여성드러이 고난을 마땅히 감내해야만 하는 액운으로 여기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보여주는 반면에, <유효공선행록>연작은 남주인공의 문제적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여성중심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연구자의 이러한 논의는 『어문론집』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던 삼대록계 장편소설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⑪번 유기옥의 글은 신 자료인 羅獻容의 묘지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전 문학의 전개방식을 원용하고 있는 擬人墓誌銘인 이 작품의 擬人文學的 특성과 의미를 학계에 소개하고 그 문학사적 위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⑫번 김용기의 글은 <창선감의록> 출생담에 나타난 상징성과 초월성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연구자는 <창선감의록>의 출생담이 당대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사물로 상징화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화진의 옥기린 출생담은 유교사회의 덕성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며, 이것이 가정과 국가 양면에 걸쳐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남채봉의 달과 봉황의 출생담은 남채봉의 인물서사와 유교사회에서 여성의 婦德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당대 유교사회에서 여성 자체의 婦德과 규율을 교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살피고 있다. 연구자의 이러한 시도는 고소설 출생담이 서사의 전반부에서 관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전체적인 성격과 인물 서사를 압축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⑬번 소인호의 글은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발표 고전소설 <장관기사>의 서지적 사항과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에 의하면 이 작품은 단편 여성영웅소설로서 장씨와 관씨 두 가문의 천정연에 의한 남녀의 이합에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영웅소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글은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여 문학사적 의미가 큰 논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⑭번 안기수의 글은 한국 영웅소설에 수용된 중국문화의 배경을 여러 층위에서 살펴본 것이다. 연구자는 영웅소설의 창작관습으로, 지리적 배경과 낯섦, 사상적 배경과 이념의 습합, 문예적 배경과 서사기법의 모방을 제시하고, 이런 요인들이 조선조 통속 영웅소설들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문화가 영웅소설의 창작에 일정한 내적 형식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연구자의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알려진 고소설의 중국배경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⑮번 이명현의 글은 <옥루몽>에 나타난 초월적 요소를 통해 유희적 환상성과 대중성을 살펴보고 있다. 고소설에서 초월성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특징으로 파악되는데, 연구자는 <옥루몽>에서 적강과 도사의 현실 개입과 같은 초월적 요소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핀 후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옥루몽>은 이 전 소설의 초월적 요소가 초월주의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초월적 요소의 도식적 수용과 대중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자는 <옥루몽>의 이러한 변화가 특정

이데올로기의 세계관을 구현하기 보다는 현실을 일탈하고자 하는 환상의 욕망과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 이러한 흥미요소가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 이 연구는 <옥루몽>의 초월성이 비현실성으로 인해 폄하될 것이 아니라 대중적 기호에 맞게 잘 가공된 것임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⑯번 유권석의 글은 <금오신화>에 활용된 술의 역할과 의미를 밝힌 글이다. 연구자는 작품 속에서 술이 만남의 묘약이며, 이별의 정표이고, 또 환상의 기체가 됨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술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술은 현실과 초월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점, 둘째, 술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는 점, 셋째, 전기소설로서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금오신화>에서 간과되기 쉬운 특정 소재를 작품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⑰번 이병기의 글은 <음빙실자유서>의 국한문체 번역에 대한 것이다. 고전문학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국어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논문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중국의 근대사상가인 양계초의 저술인 <음빙실자유서>와 그 번역을 소개하고, 그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국어’ 개념이 성립되어 가던 시기에 성행했던 국한문체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⑱번 이기대의 글은 비교적 생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진성운전>의 서사구조와 작품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비교적 낮은 작품이라서 간단한 작품 소개와 대략적인 이본 검토만 진행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순차단락과 서사구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소설사적 의미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는 이 작품이 인물 설정 방식과 군담 및 결연담의 전개를 통해 이전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화소들이 각각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하나의 작품 안에서 직조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작품은 이전의 다른 소설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설사적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⑲번 김정은의 글은 <수당연의>계열 구활자본 고소설을 연구한 것으로서, ‘수당’계열 역사소설의 국내 유입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슈양테힉락기>, <슈당연의>, <양귀비> 등을 중심으로 서지적 상황과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를 대상으로 서지적 상황과 내용을 소개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상 『어문론집』 43집부터 55집까지 수록된 고전산문 관련 논문들의 대략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많은 연구성과가 도출되었고, 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진부하거나 평이하다고 생각되는 글들도 눈에 띄지만, 대개는 새로운 시각에서, 또는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세기 마지막 시기부터 21세기초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원 큰 관심을 받았던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라는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은 구비문학 관련 논문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B]. 구비문학

43집(2010.3)

- ①김종대·이주홍,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조력자 사슴과 쥐의 역할과 그 기능 고찰」 33)
- ②조용호, 「아리랑 연구의 현황과 과제」 34)

44집(2010.7)

- ③김용기, 「설화문학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35)

48집(2011.11)

- ④안병국, 「원령단종 연구-해원과 진혼을 중심으로-」 36)
- ⑤이은희,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 고찰-‘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37)

49집(2012.3)

- ⑥김용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돼지의 신성성과 세속성」 38)

50집(2012.6)

- ⑦주재우,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 양상과 의미」 39)

52집(2012.12)

- ⑧유권석, 「<어우야담> 소재 기녀담의 형상화 연구」 40)
- ⑨황태목, 「이해조 산정 판소리계 소설의 당대적 가치」 41)

55집(2013.9)

- ⑩이주희, 「수로부인 설화 창작의 시공간-<헌화가>를 중심으로-」 42)

①번 김종대·이주홍의 글은 <나무꾼과 선녀>의 이본 중에서 사슴과 쥐가 등장하는 이본의 서사구조 변화와 쥐와 사슴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은 <나무꾼과 선녀>의 서사구조 중에서 나무꾼이 천상에 올라가 선녀의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시험을 받는 과정을 묘사하는 유형 중에, 나무꾼의 고난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선녀, 사슴과 쥐라고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문제적 인물은 사슴과 쥐인데, 사슴의 경우는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게 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자의 속성이 강하다. 그리고 쥐는 나무꾼이 천상에 올라가 천상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주격을 부여받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나무꾼과 선녀> 설화 중에서 쥐가 등장하는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조력자인 사슴과 쥐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3) 김종대·이주홍,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조력자 사슴과 쥐의 역할과 그 기능 고찰」, 『어문론집』 43집, 중앙어문학회, 2010.3, pp.175-194.
 34) 조용호, 「아리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어문론집』 43집, 중앙어문학회, 2013.3, pp.267-312.
 35) 김용기, 「설화문학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어문론집』 44집, 중앙어문학회, 2010.7, pp.165-198.
 36) 안병국, 「원령단종 연구-해원과 진혼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11, pp.195-233.
 37) 이은희,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 고찰-‘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11, pp.281-307.
 38) 김용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돼지의 신성성과 세속성」, 『어문론집』 49집, 중앙어문학회, 2012.3, pp.73-100.
 39) 주재우,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 양상과 의미」, 『어문론집』 48집, 중앙어문학회, 2012.6, pp.317-342.
 40) 유권석, 「<어우야담> 소재 기녀담의 형상화 연구」, 『어문론집』 52집, 중앙어문학회, 2012.12, pp.285-307.
 41) 황태목, 「이해조 산정 판소리계 소설의 당대적 가치」, 『어문론집』 52집, 중앙어문학회, 2012.12, pp.475-498.
 42) 이주희, 「수로부인 설화 창작의 시공간-<헌화가>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13.9, pp.195-218.

②번 조용호의 글은 아리랑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아리랑 발생설은 아리랑을 뜻 모르는 노래로 희화화하는 근원이 되었고,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식민사관을 감추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리랑에 담겨 있는 실제의 이야기를 하루라도 빨리 널리 알림으로써 자긍심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한민족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였다.

③번 김용기의 글은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설화 문학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설화 문학 작품의 수록 양상을 제시하고, 이데 대한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어문론집』 고전문학 분야에서 문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화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④번 안병국의 글은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설화를 해원과 진혼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단종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영월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단종의 원한이 보태져 그것이 더욱 극대화되어 오늘날 원령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혼령이 사또 앞에 나타나는데, 원령의 원통한 죽음 이야기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고 그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원되고 진혼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은 원령 설화에 해당되는 단종 설화를 해원과 진혼의 구조로 파악하여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⑤번 이은희의 글은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자는 물리적인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만이 영웅이 아니라, 부당한 현실과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맞서 싸우는 것도 영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의 주인공도 영웅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설화 속 여성인물들에게 닥친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⑥번 김용기의 글은 역사설화와 허구적 설화에 나타난 돼지의 신성성과 세속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연구자는 초기 역사적 설화에 등장하는 돼지는 제왕과 관련되어 신성한 인물로 형상화되다가, 허구적 서사문학에 나타난 돼지의 경우에는 민중의 기복 관념이 투영되어 길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탐욕과 징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서사문학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돼지의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⑦번 주재우의 글은 중국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총 9편의 우렁각시 설화 유형에 해당되는 작품을 선별하고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밝혔다. 그 결과 조선족 설화는 한국 설화와는 또 다른 우렁각시 설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족 설화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흥미적인 요소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조되어 새로운 성격의 설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에 한국에 알려진 우렁각시 설화와 차별되는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를 소개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잘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⑧번 유권석의 글은 <어우야담> 소재 기녀담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기녀담의 형상화 양상을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양반이 기녀에 매료된 경우, 기녀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어우야담>에 수록된 기녀담 28편 중에서, 19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후 <어우야담> 소재 기녀담은 봉건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고 풍자와 해학을 통해 양반과 기녀의 삶을 형상화하여 후세에 대한 경계로 삼고자 했던 작자 유몽인의 시각이 반영되었음을 밝히

고 있다.

⑨번 황태목의 글은 이해조 산정 관소리계 소설의 당대적 가치를 살핀 것이다. 연구자는 산정 행위에 제기된 논란을 검토하고 산정과정에 나타난 편찬의식을 살핀 후 이 자료의 당대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⑩번 이주희의 글은 <헌화가>를 중심으로 하여 <수로부인 설화> 창작의 시공간의 의미를 분석한 글이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헌화가>나 수로부인 관련 설화의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왕경과 강릉 사이의 여로 과정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주목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수로부인 관련 설화를 공간 지리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다는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어문론집』 43집부터 55집 수록된 구비문학 관련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구비문학 관련 논문은 45,46,47,51,53,54집을 제외한 논문집에서 한 두 편씩 수록되어 총 10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양은 많지 않은 편이나 수록된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용호, 주재우, 황태목 등의 글은 새로운 자료나 창의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비교적 신선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민속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민속 분야의 연구 동향은 구비문학에 포함시켜 논의해도 무방한 것들이 있으나, 연구 경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권별로 수록된 논문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7집(2011.7)

①김중대,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난 虎의 존재와 그 상징」 43)

48집(2011.11)

②최낙기, 「<정감록>에 나타난 풍수사상 연구」 44)

49집(2012.3)

③염원희, 「무속의례에 있어 ‘신과의 소통’이 갖는 의미 연구-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45)

50집(2012.6)

④김정호, 「동아시아 무속의례의 이야기 수용 연구-굿·나희·가구라를 중심으로-」 46)

⑤김중대, 「새로이 창출된 마을신앙의 전승방식과 그 기능변화-경기도 광주시 정지리 지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47)

52집(2012.12)

⑥염원희, 「전통 상례의 변화를 통해서 본 일제의 조선 인식-일제강점기 신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48)

43) 김중대,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난 虎의 존재와 그 상징」,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7, pp.75-93.

44) 최낙기, 「<정감록>에 나타난 풍수사상 연구」,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11, pp.309-329.

45) 염원희, 「무속의례에 있어 ‘신과의 소통’이 갖는 의미 연구-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9집, 중앙어문학회, 2012.3, pp.135-161.

46) 김정호, 「동아시아 무속의례의 이야기 수용 연구-굿·나희·가구라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8집, 중앙어문학회, 2012.6, pp.229-263.

47) 김중대, 「새로이 창출된 마을신앙의 전승방식과 그 기능변화-경기도 광주시 정지리 지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8집, 중앙어문학회, 2012.6, pp.265-292.

48) 염원희, 「전통 상례의 변화를 통해서 본 일제의 조선 인식-일제강점기 신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54집(2013.6)

⑦서종원, 「일제강점기 가투대회를 통해 본 가투놀이의 등장 배경-신문자료를 중심으로-」 49)

①번 김종대의 글은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존재와 그 상징적 의미를 밝힌 글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역사에 기록된 호랑이 신앙의 전승양상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민간에서 전승되는 호랑이신앙의 양상을 무속과 부적 및 문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용과 대립되는 존재로 표현된 호랑이를 민속놀이와 기우제에서 사용되던 호두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호랑이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다양한 민간신앙에 등장하는 호랑이들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신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②번 최낙기의 글은 <정감록>에 나타난 풍수사상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자는 <정감록>에 대한 서지적 사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여기에 나타난 풍수사상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에 희망을 주는 도참사상, 둘째, 지기가 옮겨지는 순서와 쇠하는 원인을 설명한 풍수지리사상, 셋째, 지기가 쇠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지기쇠왕설, 넷째, 왕권강화나 왕권연장을 위해 천도를 추진한 천도사상이다. 연구자는 <정감록>이 왕조에 대한 민중의 신뢰심이 약해지고, 미래가 암울할 때 민중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던 도참서이고, 사상적 기본은 풍수지리설이고 보고 있다.

③번 염원희의 글은 서울곳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무속의례에서 ‘신과의 소통’ 이 갖는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자는 곳의 구조에서 <조상거리>의 위치와 연행과정을 살펴본 후 곳을 통한 신과의 만남과 사람들의 감화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조상거리>는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조상신에 대한 숭앙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곳거리로, 무속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신이 아니라 한국인에 내재한 보편적 심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번 김정호의 글은 곳, 나희, 가구라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무속의례의 이야기 수용양상을 살피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의 곳에서는 판소리에서 노래한 서사시를 무속서사시로 받아들여 유교 윤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나희에서는 공연된 삽희를 통해 일찌감치 놀이문화를 정착시킨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문화에서 연극이 차지하는 자리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일본의 가구라를 통해서도 일본인들에게 살아 있는 신화의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한중일 삼국의 곳, 나희, 가구라의 절차와 이야기 드러내기 방식을 자세하고 소개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번 김종대의 글은 경기도 광주시 정지리 지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창출된 마을신앙의 전승방식과 기능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자는 마을신앙의 전통적인 전승양상은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지위동의 산신제는 이웃 마을인 정자동의 산신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해진다고 하였다. 제의과정과 함께 제의일시, 제의 참여자 등까지 모두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지위동의 산신제는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한다. 이러한 지위동의 마을 신앙은 과거와 같은

『어문론집』 52집, 중앙어문학회, 2012.12, pp.253-284.

49) 서종원, 「일제강점기 가투대회를 통해 본 가투놀이의 등장 배경-신문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4집, 중앙어문학회, 2013.6, pp.275-297.

금기나 참여자들의 제한 등으로 인한 제의의 폐쇄성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참여는 마을신앙이 신앙적 기능보다는 축제적 기능이 더 강조되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

⑥번 염원희의 글은 일제 강점기 신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전통 상례의 변화와 이에 담긴 일제의 조선 인식을 고찰하고 있다. 연구자는 일제 강점기 신문, 잡지에서 조선의 상례를 허례허식과 미신, 위생의 문제로 치부하여 다분히 전통 상례의 가치를 폄하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화되어 상례의 문제를 통해 의타주의에 젖은 조선인을 계도해야 할 식민 정부의 당위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⑦번 서중원의 글은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가투대회와 이를 통한 가투놀이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가투대회의 유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가투대회의 실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가투놀이의 등장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밝히 가투놀이의 등장배경인 새로운 취미활동의 요구로 가투놀이가 등장했다거나, 시조 부흥을 위한 측면에서 가투놀이가 보급되었다는 견해와 달리, 일제 강점기 일본이 의도적으로 가투놀이를 보급시켰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상에서 『어문론집』 43집부터 55집 수록된 민속분야 관련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민속분야 관련 논문은 47,48,49,50,52,54집에 총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인 총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수치는 미약한 편이나,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민속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또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5.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 동향과 특징

문화콘텐츠 분야 연구는 다른 어느 학술지보다 『어문론집』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연구 분야이며, 상당한 연구물도 축적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43집에서 55집에 이르는 동안 47,49,50,52,53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논문집에 수록되었으며, 분량도 11편으로 비교적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대략의 상황을 권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3집(2010.3)

①신현규, 「기생 ‘백운선’을 콘텐츠로 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고찰-매일신보에 연재된 ‘백운선의 비밀’을 중심으로」 50)

44집(2010.7)

②함복희,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콘텐츠 요소 연구」 51)

45집(2010.11)

③유권석, 「근대 역사소설의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남이장군실기를 중심으로-」 52)

46집(2011.3)

④안기수, 「영웅소설 <조웅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53)

50)신현규, 「기생 ‘백운선’을 콘텐츠로 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고찰-매일신보에 연재된 ‘백운선의 비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3집, 중앙어문학회, pp.219-244.

51)함복희,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콘텐츠 요소 연구」, 『어문론집』 44집, 중앙어문학회, 2010.7, pp.219-252.

52)유권석, 「근대 역사소설의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남이장군실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5집, 중앙어문학회, 2010.11, pp.263-287.

⑤함복희,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⁵⁴⁾

48집(2011.11)

⑥유권석, 「궁녀를 소재로 한 애정서사의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운영전〉과 〈영영전〉을 중심으로-」⁵⁵⁾

51집(2012.9)

⑦안기수, 「영웅소설 〈유충렬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⁵⁶⁾

⑧이명현·박민아·이찬욱,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수용 방향과 전래동화 창작 사례 연구-〈여우색시〉를 중심으로-」⁵⁷⁾

55집(2013.9)

⑨김강원, 「TV 역사드라마 〈대장금〉에서 구현된 영웅서사의 중층적 의미 고찰」⁵⁸⁾

⑩안기수, 「영웅 스토리에 수용된 ‘요괴토치담’의 게임화 방안 연구」⁵⁹⁾

⑪이명현, 「다문화시대 인물탄생형 이물교혼담의 가치와 동화 스토리텔링의 방향-강감찬 설화의 출생담과 성장담을 중심으로-」⁶⁰⁾

이상의 11편의 문화콘텐츠 논문들은 대부분 기존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맥락에서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개별 논문에 대한 소개와 특징, 그리고 그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전체적인 연구 경향의 흐름과 특징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편의 문화콘텐츠 관련 논문들을 보면 스토리텔링 관련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고, 고전을 드라마와 관련시켜 논의한 논문이 2편, 다문화 관련 1편, 문화콘텐츠 일반 1편, 게임화 방안 1편이다. 이 중에서 게임과 스토리텔링 양쪽에 걸쳐 있는 논문이 1편이 있고, 다문화와 스토리텔링 또는 전래동화 창작 사례 양쪽에 걸치는 논문이 1편 있다.

이를 보면 문화콘텐츠 관련 논문들은 고전의 현대화를 지향하되, 고전작품을 원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 서사구조로 짜여진 고전산문이 대부분이다. 아직 민속학이나 고전시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관련 논문은 적어도 『어문론집』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전서사에서 가져올 재료들이 무궁하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민속놀이나 고전시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3) 안기수, 「영웅소설 〈조웅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론집』 46집, 중앙어문학회, 2011.3, pp.57-89.

54) 함복희, 「고전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어문론집』 46집, 중앙어문학회, 2011.3, pp.91-119.

55) 유권석, 「궁녀를 소재로 한 애정서사의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운영전〉과 〈영영전〉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7집, 중앙어문학회, 2011.11, pp.235-257.

56) 안기수, 「영웅소설 〈유충렬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론집』 51집, 중앙어문학회, 2012.9, pp.229-254.

57) 이명현·박민아·이찬욱,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수용 방향과 전래동화 창작 사례 연구-〈여우색시〉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1집, 중앙어문학회, 2012.9, pp.275-297.

58) 김강원, 「TV 역사드라마 〈대장금〉에서 구현된 영웅서사의 중층적 의미 고찰」, 『어문론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13.9, pp.219-243.

59) 안기수, 「영웅 스토리에 수용된 ‘요괴토치담’의 게임화 방안 연구」, 『어문론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13.9, pp.117-147.

60) 이명현, 「다문화시대 인물탄생형 이물교혼담의 가치와 동화 스토리텔링의 방향-강감찬 설화의 출생담과 성장담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13.9, pp.173-194.

6. 『어문론집』 고전문학분과의 연구방향

21기는 20세기의 마지막 시기의 연구성과와 방향을 잇되, 초반에는 여성문학이 완전하게 꽃을 피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한국고전여성문학회가 결성되어 고소설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를 비롯한 고전문학 전반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강화되었다. 고소설 분야로 범위를 좁히면, 고소설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었던 장편소설이 대중화 되어 집중적으로 조명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어문론집』 논집에서는 이러한 여성문학 내지는 여성주의시각을 다룬 논문들이 일천하고 고전 장편소설과 한문소설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진한 편이다. 여성의식을 다룬 논문은 임보연의 논문이 확인되고, 장편소설 연구는 강우규, 이명현, 김용기, 그리고 이 중에서 한문소설 연구는 이명현, 김용기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고전시가 역시 시조와 한시에 편중된 점이 있으며, 고대가요나 향가,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가사문학도 생소한 가사 작품에 대한 새로운 소개가 있을 뿐, 학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가미된 논문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비교적 학계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 분야는 설화(구비문학)와 민속학, 문화콘텐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학계를 선도할 만한 이론이나 내용적 깊이까지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다. 개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학과를 형성할 정도의 전체적인 연구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문론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게 목도된다. 첫째 중앙학회의 흐름에 맞는 연구주제, 또는 유행하는 주제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활동하는 일이다. 필자의 연구분야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중앙학회에서는 1990년대에 활성화되었던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가 우리 학회에서는 20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제와 동학들 간에 정보 부재, 또는 소통의 부재, 무관심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 연구할 만한 자료도 학교나 학과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소장하고 있는 인적 자원도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인근 학교나 학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문론집』의 장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나 민속학, 설화 분야는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시켜서 종합학술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특색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일 장르의 학술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특색을 드러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나, 지금까지 축적된 논문이나 연구 동향을 본다면 충분히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은 있다고 본다.

셋째, 『어문론집』에서 추구하는 장기 플랜, 또는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회 중심에서 할 수도 있고, 학회 내 분과별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 연구 계획이 있을 때 보다 집중적이고도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다.

넷째, 『어문론집』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비교문학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최근 학계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지역학’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과 지역학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작품이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수용되고 전승되는 면을 밝히는 것은, 이본 연구이면서 동시에 지역학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7. 결론

- 생략 -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과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기법적 특성

강우규(남서울대)

<목차>

1. 서론 -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
2.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전개양상
3. 계후갈등의 서술기법적 특성
4. 결론

1. 서론 -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

고전소설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국문장편소설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연구가 본격화된 作品群이다. 국문장편소설은 1970년대 이수봉¹⁾, 김진세²⁾ 등에 의해 소개된 이후 개별 작품론과 유형 일반론 등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현재는 고전소설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비중 높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국문장편소설의 연구경향은 송성욱³⁾에 의해 한 차례 정리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작품에 대한 일차적인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가문의 창달과 번영”이라는 가문의식을 재확인하고, 분량 확장 기법 등의 일반론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등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결론은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주요한 연구 성과들로서 창작층 및 창작의식, 창작시기와 형성과정, 서사구조 및 양식 등 유형론적, 일반론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살폈다.

21세기 이후의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연구 경향은 허순우⁴⁾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1세기 이후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분석시각의 다양화와 세밀화’, ‘여성이라는 핵심어의 부각’,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재조명’ 등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먼저 21세기 이후의 연구들은 작품의 중심은 물론이고 주변에까지 주목하는 미시적 경향이 강해져 작품을 분석하는 틀이 다양해졌다. 그 결과 거시적 구조에 집중할 경우 읽어낼 수 없었던 다양한 변화와 차이들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작품들이 지닌 개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21세기의 연구들은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방향 속에서 유독 ‘여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문장편소설이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따라가면

1) 이수봉(1977), 「가문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김진세(1978), 「이조(李朝) 후기 대하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의 경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회.

3) 송성욱(2000), 「대하소설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고소설연구』9, 한국고소설학회.

4) 허순우(2010), 「국문장편소설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가부장제의 강화와 가문의 창달이라는 주제에 도달하는 데 반해, 작품 속 절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인물들에 주목하면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의미들을 분석해낼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연구들은 이전에 확립된 국문장편소설의 세부 유형으로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작품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국문장편소설은 개별 작품에 대한 재론이 드물었고, 또한 2000년대 중반까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소현성록>과 <유효공선행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한국고전문학연구학회의 ‘<소현성록> 특집 발표’를 통해 <소현성록> 연작에 대한 再論이 이루어지고,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소속 연구팀에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現代譯작업’을 진행되면서 삼대록 소설의 재발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시각의 연구 성과들이 산출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21세기 연구 경향에 따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 하나인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계후갈등을 남성 중심이 아닌 여성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후갈등은 가문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정 후 가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말한다. 계후를 선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가문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계파나 학풍의 문제이기도 하며 사회역사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⁵⁾ 따라서 기존의 논의에서는 계후갈등을 다루고 있는 <유효공선행록>을 禮學이 강화되고 적장자 상속제도가 정착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작품으로써, 종통계승문제를 둘러싼 ‘유연’과 ‘유정경-유홍’ 사이의 부자 및 형제갈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파악하였다.⁶⁾ 이는 계후갈등이 효 이념의 강화와 가문의식의 구현이라는 주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후갈등의 의미는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서사를 살펴본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계후갈등⁷⁾의 전반을 살펴보면 정작 계후문제의 당사자인 유연보다 그의 부인인 정씨가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연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반해, 정씨는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서술자는 유연이 절대적인 효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부인 정씨 또한 부녀로서의 도리를 철저히 지키는 인물로 그리기 때문에 부인 정씨가 겪는 고난은 유연이 겪는 고난 이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다.⁸⁾ 이는 계후갈등을 분석함에 있어 여주인공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계후갈등이 ‘가문의 창달과 번영’이라는 작품의 주제의식과는 별도로 여성의 고난과 활약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기법적 특성으로서 하나의 구조적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것이다.

2.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전개양상

<유효공선행록>의 계후갈등은 여주인공 정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고난과 극복의

5) 이현주(2012),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62, 한민족어문학회, 454쪽.
 6) 박일용(1997),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210쪽.
 7) 여기에서 계후갈등은 계후문제로 비롯되는 부자갈등, 형제갈등, 부부갈등 등 <유효공선행록> 전반의 갈등 양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8) 박일용(1995),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2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65쪽.

서사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혼사갈등이 중심이 되는 <소현성록>과 비교했을 때 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소현성록>의 여주인공인 석씨가 겪는 고난은 媿家 안에서 악녀의 음해와 남편의 오해 등으로 한정되어 비교적 간략하게 전개되는데 반해,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는 '시가 → 친정 → 객잔 → 도로 → 유연의 유배지 → 암자 → 친정 → 시가'로 이어지는 至難한 고행의 여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계후갈등에 나타난 이러한 정씨의 고난을 <유효공선행록> 전반의 갈등양상과 함께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성의백 유정경의 두 아들 중 장자 유연은 孝友寬仁하고, 차자 유흥은 奸巧陰險한데 유정경이 유흥을 편애하다.
- (㉡)-1 유흥의 끊임없는 모해에 유정경이 유연의 계후권을 빼앗고, 유연은 부친과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거짓으로 미친 체 하며 정씨와 소원하다.
 - 2 유흥이 정씨를 능멸하고 경시하며 음부로 모해하니, 유연이 잘못된 명령임을 알면서도 부친의 명에 따라 정씨를 매질하여 친정으로 내쫓다.
 - 3 정씨는 유정경과 유흥을 상소하려는 부친을 만류하고, 부친이 재가시키려 하자 남장을 하고 시비 난향과 집을 나서 객관에 머물다.
 - 4 만귀비 일당과 작당 모의한 유흥의 계략으로 인해 유연이 유배되고, 유흥은 호송관을 매수하여 유연을 죽이려하다.
 - 5 객관에 머물던 정씨는 유연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어, 유연의 친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 유연을 구원하다.
 - 6 정씨는 부친의 유배지를 찾아가던 중 우여곡절 끝에 유연의 유배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부친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또 노자가 떨어져 산 속 동굴에서 생활하다.
 - 7 유연이 친우와 함께 산에 올랐다가 정씨를 발견하고 데리고 내려와 배소에서 함께 지내며 부부가 화합하다.
- (㉢)-1 정씨는 친부가 작성했던 상소문으로 인해 다시 유연으로부터 쫓겨나고, 임신한 몸으로 절로 들어가 여승이 되어 우성을 낳다.
 - 2 만귀비의 역모실패로 유흥의 악행이 밝혀져 유배되고, 유연은 해배되어 돌아와 장인 정관과 대립하며 정씨와 아들 우성을 찾지 않다.
 - 3 정씨와 우성이 돌아오나 유연이 냉대하니, 정씨는 죄인을 자처하다.
 - 4 유연이 유흥의 아들 백경을 계후한 후, 정씨와 화합하고 장인에 대한 은원을 풀다.
 - 5 정씨가 부친을 통해 유흥의 사면을 황제에게 청하고, 유연은 정씨에게 管鮑之交를 일컬으며 사례하다.
 - 6 우성이 이씨와 혼인한 후 부친의 명을 어기고 이씨를 핍박하자 유연이 정씨를 또 내쫓다.
 - 7 우성이 집을 나가려하고, 이에 유연이 우성을 장책하고 정성껏 간호함으로써 우성이 부친의 정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씨가 시덕으로 돌아오다.
- (㉣) 유흥이 돌아와 자신의 아들 백경으로 계후함에 감동하여 형제가 화합하다.

위의 단락에서 (㉠)은 계후갈등 발생 원인이다. 여기에서 계후갈등의 당사자 유연과 유흥은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대조적인 인물성격을 보여준다. 형인 유연은 孝友寬仁한 성품을 지닌 반면 동생 유흥은 奸巧하고 陰險한 성격을 지녀 형을 시기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런데 부친인 유정경은 강직한 성품의 유연보다는 자신에게 順從하는 유흥을 편애한다. 이는 奸臣 요정이 강형수의 처를 겁간하려던 사건을 유정경이 담당하게 되자, 요정에게 뇌물을 받은 유흥이

親을 움직여 강형수를 유죄로 만드는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때 유연은 부친께 不可함을 直言하는데, 유홍은 부친에게 형이 강형수의 뇌물을 받았다고 모해하고, 이를 곧이 믿은 유정경이 유연을 태형으로 다스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추밀사 정관은 유정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려다가, 마침 선조의 서적을 찾으러 온 유연의 인품을 보고 반해 상소를 그치고 유정경에게 구혼하여 유연과 정씨가 혼인하게 된다.

<유효공선행록>은 중심 갈등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계후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ㄴ)과 (ㄷ)단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후갈등의 전개 속에서 정씨는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것으로 그려진다. 작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ㄴ)에서는 계후문제의 적대자인 유홍으로 인한 정씨의 고난이 형상화된다면, 작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ㄷ)에서는 계후문제의 당사자인 유연의 고집으로 인해 정씨가 고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ㄴ)은 유홍이 유연의 장자권을 빼앗고 유연을 죽이려고 하는데서 비롯되는 계후갈등의 전개와 정씨의 고난과정이다. (ㄴ)-1에서 유홍은 부친께 끊임없이 형을 모해하여 결국 유연의 장자권을 빼앗고, 유연은 부친과 동생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지낸다. 이때 유연은 혼인을 하였음에도 부인 정씨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러한 남편의 무관심 속에 정씨는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며 계집종들처럼 천역을 맡아서 행하고, (ㄴ)-2와 같이 유홍의 凌蔑과 忽待를 당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중병에 걸린다. 정씨는 남편의 지극한 간호에 희생하지만, 곧이서 유홍의 음해로 인해 시아버지로부터 追窮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모진 매를 맞고 친정으로 쫓겨난다. 유연이 정씨를 매질하여 黜去시키는 것은 부자·형제간의 갈등 속에서 지극한 孝友를 다하기 위한 행동일 뿐 정씨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즉 계후문제로 인해 비롯된 갈등이 정씨가 黜去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ㄴ)-3에서 정관은 딸이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나자 분을 참지 못해 유정경과 유홍의 죄악에 대한 상소문을 작성한다. 이를 본 정씨가 성인의 非禮勿言과 非禮勿聽 등을 이야기하며 만류하자, 정관은 상소를 그치지지만 정씨를 강제로 再嫁시키려고 한다. 이에 정씨는 시비 난향과 함께 男裝을 하고 친정에서 도망치고, 양주에 이르러 객점의 노파와 모자관계를 맺고 지낸다. 정씨가 남복으로 개착하여 친정에서도 도망치는 것은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고난의 과정이다.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 남복을 입고 도로를 유리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몸담고 있던 가정과의 분리가 확실하게 되었고 그만큼 그녀들의 고통이 극심함을 의미한다. 사대부가 여성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 않고 밖에 나간다고 해도 멀리까지 가지는 않는데, 그러한 그녀들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남복을 입고 도로를 유리하는 것은 별열가의 여성으로서의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난인 것이다.⁹⁾ (ㄴ)-4에서 유홍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만귀비 일당과 공모하여 황후를 폐하게 하고, 부친을 움직여 유연에게 不可하다는 상소를 올리게 한다. 이로 인해 황제의 격노를 산 유연은 조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이때 유홍은 家寶로 호송관을 매수하여 도중에 유연을 죽이려고 한다. (ㄴ)-5에서 유연의 일행은 유배지로 가던 도중 정씨가 있는 객잔에 머물게 되고, 우연히 호송관의 계획을 듣게 된 정씨가 유연에게 이를 알리고, 양주 자사로 있는 박상규에게 서신을 보내 유연을 구원한다. 유연은 정씨를 보고 變服爲男하여 飄零함을 책망하는데, 이는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婦德을 상실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씨는 남편으로부터 親父 또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ㄴ)-6에서 박상규의 도움을 받아 배편으로 부친에게 향한다. 그러나 도중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여 유연의 유배지인 조주에 이르고 선원들에게 버려진다. 이에 정씨는 어쩔 수 없이 유연의 配所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친정 식구들이

9) 장시광(2008),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28쪽.

원찬 도중 도적들을 만나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살고 싶다는 의지마저 상실한다. 설상가상으로 노잣돈마저 떨어져 정씨는 태행산의 동굴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후 (ㄴ)-7에서 유연이 친우인 강형수와 함께 태행산에 올랐다가 정씨를 발견하고, 정씨를 설득해 배소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부부가 화락하게 된다. 이로서 정씨의 고난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정관의 상소문으로 인해 정씨는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ㄴ)은 계후문제의 당사자인 유연의 고집으로 인해 정씨가 겪는 고난의 과정을 보여준다. (ㄴ)-1에서 유연은 장인이 자신의 부친과 동생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작성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임신 중이던 정씨를 내쫓는다. 이에 정씨는 어쩔 수 없이 산 속의 암자로 들어가 여승이 되고, 그곳에서 아들 우성을 낳는다. 정씨가 암자에 들어가 여승이 된다는 것은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를 가진 몸으로 차마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최종적인 선택이며 여성 고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ㄴ)-2에서 만귀비 일당의 역모가 실패하고 유흥의 죄악이 드러나 유흥이 유배되고, 유연은 해배되어 돌아온다. 그런데 유연은 장인에 대한 원한으로 정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찾지 않는다. 유연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친우인 박상규로부터 몰인정한 소인배라는 질책을 받고, 마지못해 정씨의 행방을 알려줘 정씨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다. (ㄴ)-3에서 유정경의 뜻에 따라 정씨가 시댁으로 돌아오지만, 유연은 정씨가 여승의 행색을 하고 있다며 용납하지 않고, 이에 정씨는 죄인을 자처한다. 유연은 또 동생의 次子 백경으로 계후하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들 우성에게 외조부의 緣坐를 들어 부모 중에 한 명을 택하라는 문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이에 우성은 부친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 유연의 문제적 행동은 ‘孝友’라는 명분에 입각한 행동이지만, 정씨의 입장에서 부친의 緣坐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박대하는 유연의 행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유연은 (ㄴ)-4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유흥의 次子 백경을 입양하여 大宗으로 삼고, 어떠한 박대에도 자신의 뜻을 순종한 정씨와 화해하고 장인에 대한 원한도 풀게 된다. 그리고 정씨는 (ㄴ)-5에서 부친에게 유흥의 사면을 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유연은 “古人이 管鮑의 知己를 일컬되 우리 둘보다는 못하리니, 부인의 誠心淑德을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정씨에게 謝禮하고 이후 서로 존중하며 화합한다. 이로서 정씨의 고난은 끝난 것 같으나, (ㄴ)-6와 같이 부친에 대한 아들 우성의 반발로 인해 다시 한 번 친정으로 내쫓기는 신세에 처하게 된다. 우성이 이씨와 혼인한 후 유연은 우성에게 15세가 될 때까지 이씨와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어릴 적 부친의 냉대를 받았던 우성은 부친에 대한 반발감으로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이씨 앞에서 창기들을 데리고 이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부인 이씨를 핍박하고, 이를 안 유연이 우성을 장책하고 정씨를 내쫓는 것이다. 유연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씨를 내쫓는 것은 얼핏 당연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으나, 우성의 그릇된 행동이 유연이 백경을 계후하기 위해 우성을 냉대했었던 것에 대한 반발의식과 부정결핍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는 유연의 책임전가로 인한 고난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ㄴ)-7에서 우성이 부친의 애정을 확인함으로써 부자갈등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우성은 모친이 내쫓기고 부친의 안전에 용납함을 받지 못하자 중병에 걸리고 이씨의 지극한 간호에 회복된다. 이후 유정경에 명에 따라 정씨가 시댁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유연은 우성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이에 우성은 집을 떠나는데 백경이 쫓아가 우성을 데려온다. 유연은 우성을 모질게 장책하고, 그날 밤 우성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 친히 약을 다스리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한다. 이러한 부친의 애뜻한 정에 우성이 감격하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쳐 부친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갈등이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㉔은 계후갈등의 완전한 해결을 보여주는 단락이다. 정씨의 부탁을 받은 정관의 사면요청이 받아들여져 유흥이 해배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유흥이 자신의 아들 백경을 대종으로 삼은 형의 지극한 友愛에 감동하여 형제가 화합하는 것으로 계후갈등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유효공선행록>의 계후갈등은 처음(㉑)과 끝(㉔) 즉 계후갈등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종통 계승을 둘러싼 유연과 유흥의 대립과 화해를 그려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갈등의 전개 양상(㉒, ㉓)은 여주인공 정씨의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여정과 자기회복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계후갈등의 서술기법적 특성

1) 긴장과 이완의 반복서술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공선행록>의 계후갈등에서 보다 심각한 고난을 겪는 인물은 계후문제의 당사자인 유연이 아니라 그의 부인 정씨이다. 계후문제로 인해 유연과 유흥이 갈등이 시작되는 초반 설정과 유흥이 회과하여 형제가 화합함으로써 최종적인 갈등이 해결된다는 마무리 설정을 제외하면 <유효공선행록>은 한편의 여성 수난담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씨의 고난과 자기회복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계후갈등에 나타난 이러한 정씨의 고난은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굴곡의 연속을 보여준다. 정씨의 고난과 자기회복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굴곡은 긴장과 이완의 서사를 교차적으로 구성하는 작품의 서술기법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시동생의 忽待로 인해 중병에 걸리다. [긴장]
- ② 남편의 지극한 간호에 희생하다. [이완]
- ③ 정씨는 유흥의 陰害로 인해 黜去되고, 부친이 재가를 강행하여 부녀자로서 절개를 잃을 지경에 이르러 남복을 개착하고 집을 떠나다. [긴장]
- ④ 집을 떠나 객잔에서 머물던 정씨가 죽을 위기에 처한 유연을 구원하다. [이완]
- ⑤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유연이 정씨를 용납하지는 않는다. [긴장]
- ⑥ 정씨는 박상규의 도움으로 부친을 찾아가다. [이완]
- ⑦ 폭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고 선원들에게 버려져 다시 도로를 유랑하고, 설상가상으로 부친의 부음 소식을 듣고 노잣돈마저 떨어져 태행산의 동굴에서 거처한다. [긴장]
- ⑧ 유연이 태행산에 올라 정씨를 발견하여 함께 배소로 돌아와 부부가 화합하다. [이완]
- ⑨ 정씨는 부친의 상소문으로 인해 쫓겨나 여승이 된다. [긴장]
- ⑩ 우여곡절 끝에 정씨는 친정으로 돌아오다. [이완]
- ⑪ 유연의 냉대 속에 자처죄인하는 삶을 살다. [긴장]
- ⑫ 유연이 자신의 뜻대로 백경을 입양하여 대종으로 삼고 자신의 뜻에 순종한 정씨의 淑德에 감동하여 사례하면서 부부가 화합하다. [이완]
- ⑬ 우성이 부친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씨를 핍박한 사건으로 인해 다시 친정으로 내쫓기게 된다. [긴장]
- ⑭ 유정경의 명의 정씨가 시댁으로 돌아오고, 우성이 부친의 애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침으로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이완]

이렇듯 풀릴듯 풀리지 않는 정씨의 고난 과정은 독자들에게 긴장과 이완을 주면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문장편소설의 조선시대 마지막 독자라 할 수 있는 사후당 윤백영 여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허황된 것임을 알면서도 말의 꾸밈새가 재미있고, 서로 모해하며 발명되어 풀리며 하는 줄거리에 끌려 (국문장편소설을) 자꾸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가 핍진한 고난을 겪은 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여성독자로서 사후당이 말한 서로 모해하며 발명되어 풀리는 줄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소될 것 같으면서도 해소되지 않고 이어져나가는 정씨의 고난은 여성독자들에게 지속적인 흥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의 논의에서도 여성 관련 서사가 반복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국문장편소설의 서술기법적 특성으로 논의한 바 있다. 여성 관련 서사는 여성 독자들이 소설을 보면서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유사한 내용의 반복은 익숙한 구조를 통해 생소함을 배제시키고 익숙함 속에 내재된 신선한 변화를 통해 진부함을 제거함으로써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소설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특성은 물론 복수 주인공의 단위담이 반복되는 국문장편소설의 서술구조를 바탕으로 파악된 것이다. 따라서 <유효공선행록>처럼 여주인공 정씨의 단위담에 나타난 고난과 자기회복의 서사 속에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을 통해 독자들이 작품 속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지닌다. 여주인공이 겪는 극심한 고난과 자기회복의 여정은 여성독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즉 여성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서사이다. 이러한 여성 관련 서사 속에 내재된 긴장과 이완의 반복적인 구조는 독자들이 긴분량의 작품을 읽으면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던 <유효공선행록>의 독특한 서술기법인 것이다.

2) 계후갈등의 서술전략

<유효공선행록>의 여주인공 정씨는 順從的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남편의 매물찬 행동에도 원망하는 마음 없이 知己之友처럼 남편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여성인 것이다. 그런데 작품은 여주인공의 고난과 자기회복의 과정을 긴장과 이완의 반복적인 구조로 서술하면서, 그 속에서 여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모습들을 그려낸다. 이는 근접한 시기의 작품인 <소현성록>의 여주인공 석씨가 혼사갈등 속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고난을 감내하기만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여주인공의 고난과 활약 서사의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¹²⁾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의 고난담은 중요한 모티프로 기능한다. 이는 여성수난을 둘러싸고 다양한 인물의 이해관계와 서술자의 의식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유효공선행록>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계후갈등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여주인공의

10) 이종석(1966. 8. 2), 「통독자 윤백영 여사가 말하는 그 내력과 일화들 낙선재 문고와 더불어 반세기」, 『중앙일보』, 중앙일보사.

11) 장시광(2007),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29, 동양고전학회.

12) 강우규(2012), 「<소현성록>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교연구」, 『語文論集』52, 중앙어문학회, 246쪽.

13) 장시광(2012),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47, 동양고전학회, 9쪽.

활약이 강화되는 것은 서술자의 의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서 정씨가 고난과 자기회복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유배되던 유연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 부친을 움직여 시동생인 유흥의 사면을 이끌어내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정씨는 유흥의 음해로 시댁에서 쫓겨나고, 또 부친의 개가권유로 인해 男裝을 하고 친정에서도 도망쳐 나오는데, 이는 남편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때 정씨는 폐출된 몸으로 남장을 하고 남편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다가도, 자신의 모습이 몹쓸 행실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유연 앞에 나아가 호송관들의 계획을 알려주고 자사 박상규에게 서찰을 보내 유연을 구원한다. 비록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남으로써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婦德을 잃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씨의 활약은 유흥의 악행이 밝혀져 유배된 후, 승상으로 復權된 부친을 움직여서 태자 책봉 때 유흥의 사면을 주청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계후갈등 해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한편, 대립했었던 자신의 부친과 남편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씨의 활약은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며, 여성들의 자아실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시각은 도덕군자로 서술되는 유연의 문제적 행위에 대한 정씨의 비판적 언술에서도 드러난다. 유연의 문제적 태도는 가부장이 요구하는 아내의 순종과 인내가 실제로 여성들의 생각이나 의사를 배려하지 않는 남성들의 폭력일 수 있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⁴⁾ 따라서 정씨는 남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도 때로는 남편의 無禮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데, 이는 백경을 계후한 후 유연이 유흥의 緣坐를 생각지 말고 백경과 우성을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정씨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씨는 유연의 말에 “상공의 명이 계시니 첩은 홀로 봉행할 따름이라 어찌 사사로운 소견이 있겠습니까? 상공이 부친의 연좌를 자식에게 쓰기를 좋게 여기시어 첩도 效側할가 여기시나 叔叔의 허물이 어찌 백경에게 미치겠습니까?”¹⁵⁾라고 답변한다. 이는 장인에 대한 緣坐로 정씨와 우성을 냉대하는 유연의 문제적 태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며, 유연이 고집스럽고 편협한 데 비하여 정씨는 넓은 마음과 성숙한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¹⁶⁾ 즉 작품은 남편보다 정신적으로 뛰어난 여성존재의 우월감을 나타냄으로써 여성 우위의 서술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⁷⁾

이외에도 작품에서 유연의 문제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언술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악행을 일삼지만 아내를 잘 대해주는 유흥과 도덕군자이지만 아내를 냉대하는 유연 두 형제를 대조하는 대목, 시비 난향이 쫓겨난 정부인에게 남편의 恩愛가 없음과 부부의 도리가 끊겼음을 말하는 대목, 유정경, 유정서가 유연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인의 淑德高節을 칭송하는 것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¹⁸⁾

이렇듯 <유효공선행록>은 실질적으로 여주인공의 고난과 자기회복의 서사를 긴장과 이완의 구조로 서술하면서 여성독자들의 흥미를 제고하며, 경직화된 유교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14) 김문희(2009),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20쪽.

15) <유효공선행록> 9권, p.185.

16) 강우규(2012), 「<소현성록>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교 연구」, 『語文論集』 52, 중앙어문학회, 239~240쪽.

17) 정선희(2011), 「『劉孝公善行錄』의 인물에 대한 共感과 距離化의 讀書心理」, 『語文研究』 39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51~252 참조.

18) 조광국(2005),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閥閥家門의 自己更新」,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155쪽.

여성의 주체의식 등 여성주의적 서술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작품은 전략적으로 宗家思想과 장자상속제도 등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家父長制와 관련된 남성적 가문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계후갈등을 표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서술전략은 국문장편소설이 사대부 여성들에게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女道나 婦德을 가르치는 교훈서의 역할도 했지만 한편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대부 여성들의 내면적 감정이나 욕망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독서물의 역할도 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가부장제 사회의 특성상 여성 독자층의 현실적 처지와 욕망은 텍스트 전반에서 연속적이고 주도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¹⁹⁾ 따라서 <유효공선행록>은 계후갈등이라는 하나의 구조적 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즉 繼後門題를 浮刻시켜 家門意識의 強化라는 표면적의 주제 의식을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 家門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犧牲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현실을 보다 深度 있게 제시하는 서술기법적 측면으로 계후갈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서술전략은 유연의 이원적 인물 형상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유연의 행위를 통한 유연의 실상은 무능력하고 장자콤플렉스를 지녔다고 파악될 만큼 상당히 문제적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유연은 권위적인 서술자의 반복적인 발화에 의해 의도적으로 孝友한 인물로 형상화된다.²¹⁾ 즉 서술자는 유연의 문제적인 모습을 지극한 孝友를 지닌 인물이라고 애써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수직적 유교윤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나 불만표출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회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유효공선행록>에서 계후갈등은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가문의 창달과 번영이라는 가문의 의식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계후갈등은 여주인공의 고난과 극복과정을 그려내기 위한 작품 설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효공선행록>은 전략적으로 계후갈등이라는 구조적 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여주인공의 고난과 극복의 여정을 꺾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고난과 자기회복의 서사는 주 향유층이었던 사대부가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난과 극복의 여정에서 긴장과 이완의 구조적 반복 서술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효공선행록> 12권 12책, 서울대 소장본 [김기동 편(1980),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이종석(1966. 8. 2), 「통독자 윤백영 여사가 말하는 그 내력과 일화들 낙선재 문고와 더불어 반세기」, 『중앙일보』, 중앙일보사.

19) 김문희(2009), 위의 논문, 126~127쪽 참조.

20) 강우규(2013),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6~157쪽.

21) 최윤희(2005),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196쪽.

- 강우규(2013),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6~157쪽.
- 강우규(2012), 「<소현성록>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교 연구」, 『語文論集』 52, 중앙어문학회, 239~240·246쪽.
- 김문희(2009),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20·126~127쪽.
- 김진세(1978), 「이조(李朝) 후기 대하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의 경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회.
- 박일용(1997),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210쪽.
- 박일용(1995),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20, 서울대학교어문학과, 165쪽.
- 송성욱(2000), 「대하소설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고소설연구』9, 한국고소설학회.
- 이수봉(1977), 「가문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2012),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62, 한민족어문학회, 454쪽.
- 장시광(2012),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47, 동양고전학회, 9쪽.
- 장시광(2008),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28쪽.
- 장시광(2007), 「조선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29, 동양고전학회.
- 정선희(2011), 「『劉孝公善行錄』의 인물에 대한 共感과 距離化의 讀書心理」, 『語文研究』 39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51~252 참조.
- 조광국(2005),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闕闕家門의 自己更新」,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155쪽.
- 최윤희(2005),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196쪽.
- 허순우(2010), 「국문장편소설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의 편찬 양상과 그 의미

윤태식(서울시립대)

1. 서론
2. 『이향견문록』의 편찬 양상
 - 1) 여향인물 기록의 집대성 및 체재의 완성
 - 2) 당대 지배이념에 부합하는 인물형 추구
3. 『이향견문록』의 편찬 양상에 따른 그 의미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의 편찬 양상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편찬자인 유재건(劉在建 : 1793~1880)의 의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되었다. 그간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은 비슷한 시기를 살다간 조희룡(趙熙龍 : 1789~1866)의 『호산외기』와 더불어 전기문학 연구의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희룡과 유재건이 신분 상 중인에 해당하며, 주로 여향의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작가의 전기집은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호산외기』가 작자인 조희룡의 주변인물에 중점을 두고 창작된 전통 전문학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은 전문학 작품의 창작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물들을 수록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향견문록』의 경우는 작가 의식의 파악이 『호산외기』에 비해 용이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향견문록』을 두고 “문학적 형상성을 발견할 수 없다”¹⁾는 부정적 평가를 보이거나, 『이향견문록』의 인용문헌에 속하는 「검산필기」만을 두고 유재건의 의식을 살펴보기도 하였다.²⁾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 작가 의식의 파악보다는 입전인물에 중점을 둔다든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이향순의 지적처럼 다른 전기집들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³⁾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본격적인 작가 의식의 파악에 앞서 우선 『이향견문록』의 편찬 양상을 『호산외기』와의 관련성 아래 살펴 보다 확고한 유재건의 편찬 의식을 고구하는 데 바탕을 삼고자 한다.

2. 『이향견문록』의 편찬 양상

1) 정병호, 「조선후기 중인층의 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6쪽.
2)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257~267쪽.
3) 이향순, 「『이향견문록』의 텍스트적 성격과 작가의식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5쪽.

『이향견문록』의 편찬 시기는 조희룡이 쓴 서문에 의거하여⁴⁾ 임술년, 즉 철종 13년인 1862년이다. 유재건은 정조 17년(1793)에 태어나 고종 17년(1880)년에 졸하였는데, 1862년은 그의 나이 70세에 해당한다. 1864년에 졸한 김정호도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호산외기』와 마찬가지로 후에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희룡과 함께 ‘직하시사(稷下時社)’⁵⁾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풍요삼선(風謠三選)』의 발간에 참여하였고, 『이향견문록』이외에 자신의 시문집인 『고금영물근체시(古今詠物近體詩)』도 간행하였다.⁶⁾ 조희룡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집의 편찬은 10년 이상 늦다. 『고금영물근체시』의 간행시기가 186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저작 활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향견문록』에는 287편의 작품에 310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규모면에서 가장 방대하며, 스스로 의례를 마련하여 인물을 분류해 놓았다. 「이향견문록서(里鄉見聞錄序)」를 앞에 두고, 그 다음 「이향견문록의례(里鄉見聞錄義例)」를 두었다. 편찬서이기 때문에 본문에 앞서 인용한 서목을 나열해 놓았다. 발문(跋文)은 없으며, 자신의 저작인 「겸산필기(兼山筆記)」에서 인용한 승려 성기의 전을 본문 마지막에 두었다.

서문은 조희룡이 썼는데 편찬 동기와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중 살펴볼 만한 부분을 들어보기로 한다.

저 여향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칭찬할만한 경술도 훈임도 없는 것이고, 혹 그 언행에 기록할 만한 것이 있으며, 혹 그 시문에 전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내가 『호산외기』를 지은 까닭도 여기 있다. 친구인 겸산 유재건이 나와 같은 심정에서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 모아 이미 입전된 사람 약간 명을 얻었고, 입전된 것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전을 지었는데 모두 280명이나 된다. 정성스럽게 한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이라 하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한다. 내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 시문으로 가히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마는 모두 인멸되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처럼 깊고 넓어 남의 좋은 일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모두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고, 그 언행 그 시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재주 한 가지 능력이라도 모두 특별히 기록하였다.

그 마음의 부지런함이 어찌 공연한 일이었는가? 그는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에서 감발됨이 있기를 바란 것이니 어찌 일가의 글 뿐이었는가?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클 것이다.⁷⁾

조희룡은 유재건의 편찬 동기 또한 자신이 『호산외기』를 지은 까닭과 같다고 하고 있으며, 인용이 주가 되는 편찬서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입전된 것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전을

4) “壬戌重九頂上趨熙龍序”(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716쪽. 이후에는 편찬자와 서명, 인용 쪽수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5) ‘직하시사’는 최경흠을 중심으로 조희룡, 유재건, 이경민, 박응모, 조광진, 전기, 이지화 등에 의해 1853년 왕희지의 ‘난정시사(蘭亭詩社)’를 본받아 결성되었으며(천병식, 「朝鮮後期 委巷詩社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 97쪽) 『풍요삼선(風謠三選)』, 『고금영물근체시(古今詠物近體詩)』를 편찬하고 『소대풍요(昭代風謠)』를 중인(重印)하는 등 중인문학의 정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240쪽.)

6) 이향순, 앞의 글, 8~18쪽.

7) 유재건, 『이향견문록』, 38쪽.

지었다고 했는데 이는 「겸산필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280명이라고 한 것은 작품 상의 수를 헤아린 것으로 실제 수록 인물 수와는 차이가 있다. “여향의 사람에게는 칭찬할만한 경술이나 훈업이 없는 것이고”라고 한 것은 『이향견문록』의 「이향견문록의례(里鄉見聞錄義例)」에서 1권의 실린 인물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살펴 볼만하다.

「이향견문록의례」는 입전인물의 분류기준이면서 목차에 해당한다. “덕행과 경술이 있는 선비로서 이 세상에 사표가 될만한” 인물을 먼저 신고, 효와 충, 황석공이 말한 영호와 준걸에 해당하는 인물, 고금에 여성의 모범으로 칭할 수 있는 자, 문학, 서화, 의술을 위시해 일기일능(一技一能)을 예술로 하였고, 마지막에 도가와 불가에 관련한 인물을 수록한다고 밝혀 놓았다. 이중 충효열의 봉건 윤리 이념보다 앞서 “덕행과 경술이 있는 선비”를 먼저 실었는데, 실무적 기술을 익히는 중인층 신분에서는 직접적인 생계와 거리가 있는 일로 생애를 보낸다는 것이 실제로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⁸⁾ 따라서 앞서 조희룡이 서문에 지적한 바는 이러한 의미와 관련이 깊다 하겠다.

본문은 총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덟 가지 의례에 따라 각 권에 해당하는 인물을 수록하였으며 문학에 해당하는 인물만 총 3권에 걸쳐 실려 있다. 『호산외기』처럼 본인이 직접 쓴 서문이 없는 대신에 이 의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전문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이향(里鄉)에서 어질고 착하다 칭할 자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으라마는 많은 자들이 인물되어 전함이 없으니 가슴아프고 애석하지 않은가? 이에 듣고 본 바를 모아 10권으로 엮는다.

덕행(德行)과 경술(經術)이 있는 선비로서 이 세상에 사표(師表)가 될 만한 분들을 수편(首篇)으로 엮는다.

효(孝)와 충(忠), 이윤(彝倫)의 대절(大節)에 있어서, 부모를 섬김에 힘을 다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신(一身)을 잊은 이들을 이제 기록하여 제 2권으로 엮는다.

지혜가 혐의(嫌疑)를 벗길 만하고, 신의가 약속을 지키게 할 만하고, 청렴함이 재산을 나눠줄 만하고, 의(義)에 거(居)하여 뒤돌아봄이 없고, 혐의를 당하여 구차히 벗어나려 하지 않고, 이익을 보고 그것을 굳이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은 황석공(黃石公)이 말한바 영호(英豪)와 준걸(俊傑)이다. 이들 약간 명을 얻어 3권으로 엮는다.

고금(古今)에 여성의 모범으로 칭할 수 있는 자로서 정렬(貞烈)을 먼저 기록하고, 또한 현모(賢母)와 숙원(叔媛)과 효녀 그리고 현명한 부인(婦人) 중 순미한 덕이 있거나 비첩(婢妾)으로서 탁이한 정절(貞節)이 있는 자를 함께 기록하여 제 4권으로 엮는다.

문학과 사한(辭翰)이 빛나고 훌륭하여 이 시대에 이름난 자들이 매우 많다. 제 5, 6, 7 권으로 엮는다.

서화로써 명성이 예원(藝苑)에 드러난 인물가운데 임금에게 알려지거나 멀리 중국에까지 전파된 자를 기록하여 8권으로 엮는다.

무릇 예술로서 칭할 수 있는 자 중에는 의술이 가장 뚜렷하고, 장기·바둑·노래·가야금·잡술 등 일기일능자(一技一能者)를 아울러 기록하여 제9권으로 삼는다.

도가(道家)와 불가(佛家)에 높은 수행과 이적(異蹟)으로 칭할 수 있는 자들이 많다. 합쳐서 10권으로 엮는다.

소문으로 듣고 직접 본 것들을 여러 해 수집하였으나, 기록한 것이 넓지 못하다. 이 뒤에 만약 새 자료를 얻은 것이 있거든 각 편에 속재(續載)할 것이다. 이를 후대의 군자(君子)에게 깊이 바라는 바이다.⁹⁾

8) 이지양, 「해제」, 유재건, 『이향견문록』, 17쪽.

듣고 본 바를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엄밀하게 보자면 이는 본인의 저작인 「겸산필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향견문록』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이를 8가지에 의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덕행과 경술에 해당하는 인물로 『이향견문록』의 맨 처음을 시작한 것은 사표(師表)가 될 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은 양반사대부가 아니라 이향(里鄕)에 존재하던 인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향’이란 백성들이 사는 동네라는 의미이다. 전체의 비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도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 의례를 기준으로 수록된 인물의 수를 살펴보면, 덕행과 경술 14명, 효와 충 52명, 영호와 준결 41명, 정절 30명, 문학 71명, 서화 33명, 예술 21명, 도가와 불가 25명으로 각 권당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52명에 이르기까지 그 수의 편차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30명 안팎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기했다. 가장 많은 항목의 인물 순으로 보면, 문학이 단연 많으며, 충효, 영호와 준결, 서화, 정절 순이나, 충효가 당대의 전통적 윤리 규범과 관계되는 것이고 보면, 모범적 여성 또한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므로 전통적 규범에 관련된 인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문학과 지와 신, 서화에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겸산필기」에서 인용한 인물들을 의례에 맞춰 보면 덕행과 경술 2명, 효와 충 3명, 영호와 준결 12명, 정절 1명, 문학 35명, 서화 16명, 예술 5명, 도가와 불가 10명으로 전체적인 항목에서의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 윤리와 관계되는 인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수록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와 교유한 인물이 조희룡과 같이 문학, 예술에 관계된 인물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향견문록』은 『호산외기』처럼 직접 기술을 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의 서적에 실려 있는 인물들을 가려내어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본문에 앞서 인용서목을 밝혀놓았는데 본인이 직접 기술한 「겸산필기」도 인용서목에 들어 있다. 인용한 서목은 총 53편이다. 이를 살펴보면 대개는 여향인의 문집인데, 자신이 직접 쓴 「겸산필기」에서 84 편, 84명의 인물을 수록해 놓았다. 「겸산필기」만을 놓고 보자면 『호산외기』에 비해 작품의 수는 두 배 가량 많지만, 『이향견문록』에서 「겸산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분량에서 1/3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조희룡의 『호산외기』 29편, 장지완의 「비연상초(斐然箱抄)」 9편, 「침우담초(枕雨談草)」 11편, 정래교의 『완암집(浣巖集)』 12편, 작자미상의 「진휘속고(震彙續考)」에서 14편, 조수삼의 『추재기이(秋齋紀異)』에서 10편, 신광현의 『위향쇄문(委巷鎖聞)』에서 10편 등 여향인의 문집에서 인용한 것이 2/3 가량 되며, 『범곡기문(凡谷記文)』¹⁰⁾, 『청구야담(靑邱野談)』 등의 야담집도 인용서목에 포함되어 있다. 양반 사대부의 문집을 인용한 것으로 허목의 『미수기언(眉叟記言)』, 채제공의 『번암집(樊巖集)』, 홍양호의 『이계집(耳溪集)』, 남공철의 『금릉집(金陵集)』, 윤행임의 『석재고(碩齋稿)』 등이 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0정도로 높지 않다.¹¹⁾

1) 여향인물 기록의 집대성 및 체재의 완성

앞서 나온 저작인 『호산외기』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이향견문록』이 보여주는 가장 두드

9) 유재건, 『이향견문록』, 40~41쪽.

10) 『범곡기문』에서는 6편, 『청구야담』에서는 15편의 작품이 인용되었다.

11) 이지양, 앞의 글, 14~15쪽.

러진 면모는 바로 여향인물의 집대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여향인물의 기록에 대한 집대성이라고 해야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호산외기』는 저자인 조희룡이 직접 견문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향견문록』은 인용서목을 따로 두었고, 인용할 자료가 없는 인물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술하여 「겸산필기」라는 제명으로 출처를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유재건은 전기집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아 300여 편에 가까운 작품을 수집하였는데, 여향의 인물에 초점을 두다보니 원 작품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소품에 해당하는 글이나, 『소대풍요』와 같은 시선집(詩選集)에 등장하는 짙막한 인물소개는 물론 야담집에서도 여향의 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수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호산외기』가 조선후기 전 형식에 부합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에 반해, 텍스트 상으로는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일정한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달리말해 기존에 한문학(漢文學)의 한 양식으로서 전이 지니고 있던 모습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향견문록』을 전기집이라는 명칭으로 『호산외기』와 함께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채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사실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채록한 이야기는 따로 「겸산필기」로 이름하여 인용을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자료에 근거를 둔 사실추구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실 사실에의 추구는 전이 지향하는 바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결국 조희룡이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향의 인물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에 기준을 두어 『이향견문록』에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이는 『이향견문록의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체재는 물론 유재건의 자의적인 기준의 마련이 있는 후에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기존의 자료에 대한 유형화가 우선되지 않았다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재건은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8가지의 유형으로 체계화를 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에는 『호산외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호산외기』에는 『이향견문록』처럼 의례를 따로 마련해 두지는 않았지만 여향인에 해당하면서 매우 다양한 직업과 품성을 지닌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때문에 『이향견문록』에는 이들 인물이 해당 의례에 맞춰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¹²⁾

12) 『이향견문록』에는 권5를 제외하고는 『호산외기』를 인용서로 했거나 『호산외기』에 수록된 인물이 각 권에 배치되어 있다. 권5에서 권7까지는 문학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모아 놓은 것이므로, 8가지 의례에 맞춰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겠다. 각 권에 배치된 사항을 『이향견문록』의 제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 : 「함관향진송(咸瓣香鎮嵩)」

권2 : 「권효자재중(權孝子載中)」

권3 : 「이오위장흥윤(李五衛將興潤)」, 「김지부수팽(金地部壽彭)」, 「유주사세통(庾壽司世通)」, 「김완철(金完喆)」, 「장풍죽현우벽(張風竹軒友壁)」

권4 : 「엄열부(嚴烈婦)」

권6 : 「조추재수삼(趙秋齋秀三)」, 「이해상자양필(李海桑子陽秘)」, 「이필재단전(李疋齋宣佃)」, 「왕수리태(王數里太)」, 「김석손(金石孫)」, 「김동애환(金東厓獻)」, 「천송석원수경(千松石園壽慶)」, 「엄국산계흥(嚴菊山啓興)」

권7 : 「박치재기연(朴癡齋基淵)」, 「김소재양원(金塑齋亮元)」, 「오대산창렬(吳大山昌烈)」

권8 : 「임수월회지(林水月熙之)」, 「전고람기(田古藍琦)」, 「김단계영면(金丹溪永冕)」, 「이소당재관(李小塘在寬)」, 「김단원홍도자양기(金檀園弘道子良驥)」

2) 당대 지배이념에 부합하는 인물형 추구

앞선 저작인 『호산외기』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진 유형은 충과 효, 열녀 등 이른바 당대 지배이념에 부합하는 인물형이라고 하겠다. 『호산외기』에는 효자로 이름난 박태성을 맨 앞머리에 놓을 만큼 효와 관련한 인물은 비중있게 수록된 반면, 충과 관련한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열녀에 해당하는 인물은 「엄열부전(嚴烈婦傳)」의 엄열부 한 사람에 그쳤지만, 『이향견문록』에 와서는 한 권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 이러한 그의 당배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형의 추구로 말미암아 “철저히 봉건체제의 윤리에 맹종하는 정신”¹³⁾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윤재민은 『이향견문록』의 「겸산필기」를 두고 그의 성향을 예교주의도 낭만주의도 아닌 중간적¹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윤재민도 지적했다시피 「겸산필기」는 “작가가 보고 듣고 수집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그저 붓 가는 대로 기록한 소품”¹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향견문록』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작품 전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작품의 전체적인 성향을 놓고 보자면 봉건체제의 윤리에 맹종한다든가 예교주의도 아니고 낭만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으나, 이는 기존의 사료에서 인물들을 모아 취합하는 과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듯 싶다.

기존 인물들이 사료에 남게 되는 까닭이 앞서 살펴본 『호산외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당대 지배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 뒤에 살펴보면 이러한 사정이 어느 정도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그의 의식성향을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서문의 편찬 동기와 관련해 봤을 때, 특기할 만한 사항은 매우 많은 인물을 수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전의도를 지니고 있는 『호산외기』에 수록되어 있는 42명의 인물 전부를 옮겨 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호산외기』를 인용하고 있는 작품은 29편이지만, 『호산외기』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이나 다른 전기집에서 취한 인물이 6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은 제외되었다.¹⁶⁾ 단순히 보다 많은 여향의 인물을 수집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들 7명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수록되지 않은 데에는 유재건이 『이향견문록』을 편찬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김억임희지전」의 김억 부분, 「김석손전」, 「장오복천홍철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억임희지전」의 김억은 작품 내에서 양금(洋琴) 연주의 시초로 제시되어 있다. 직업만 놓고 본다면 이른 바 ‘일기일능자(一技一能者)’를 모아놓은 『이향견문록』의 권9에 수록될 법 하지만 유재건은 옮겨 실지 않았다. 우선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혀 놓고 있는 도입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억은 영조 때 사람이다. 집은 부자였고 천성이 호방하고 사치스러워 성색(성색)의 즐

권9 : 「김국기중귀(金國基鍾貴)」, 「이중의동(李腫醫同)」, 「이의익성(李醫益成)」

권10 : 「김신선가기(金神仙可基)」, 「신두병(申斗柄)」.

13) 임창순, 「해제」, 『호산외기·이향견문록』, 아세아문화사, 1974, 6쪽.

14) 윤재민, 앞의 책, 267쪽.

15) 윤재민, 위의 책, 266~267쪽.

16) 「김억임희지전」의 김억, 「김석손전」의 김석손, 「강치호전」의 강치호, 「장오복천홍철전」의 장오복과 천홍철, 「유동자전」의 유동자, 「농산대사전」의 농산대사가 이에 해당한다.

거움을 다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은 흰옷을 입는데 홀로 색이 있는 비단옷을 입어 찬란히 빛났다. 칼에 대한 벽(癖)이 있어, 칼을 모두 구슬과 자개로 꾸며서 방과 기둥에 벌여 걸어 놓았다. 날마다 한 개씩의 칼을 바꾸어 샀는데 한 해가 돌아와도 다 차지 못했다.¹⁷⁾

도입부에서는 그의 부유함과 사치스러움을 드러내주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며, 천성이 호방하다고만 해 놓았다. 중인층 예술인으로서 고가의 사치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칼에 벽이 있을 만큼 매우 부유한 삶을 살다갔음을 짐작케 한다. 이후 제시되고 있는 그의 행적은 음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의 호방한 성격을 드러내주는 일화들로 꾸러졌다.

한편, 같은 음악가로서 『이향견문록』에 수록된 인물은 「김금사성기(金琴師聖基)」의 김성기가 유일한데, “집이 가난했을뿐더러 허랑하게 놀아서 처자식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면치 못했다”¹⁸⁾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형편 상 김억과는 대척점에 놓여 질만한 인물이다. 「김금사성기」는 정래교의 『완암집(浣巖集)』에서 채록한 것인데 정래교가 김성기를 평한 논찬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기는 사람됨이 개결(介潔)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서장에서 궁하게 살아 일생을 마치려 하니 이 어찌 스스로 지키는 바가 없이 그럴 수 있겠는가? 더욱이 그가 목호룡을 매도함에 능름하여 범하지 못할 바가 있었으니, 아아 이 또한 뇌해청(雷海靑)의 유가 아닐런가. 세상에 사대부로 지조와 분수없이 쫓아다니며 옳지 못한 데 붙어 자신의 자취를 더럽힌 자들은 김금사를 봄에 또한 부끄러움을 알 것이다.¹⁹⁾

인용문에서 ‘목호룡’이란 인물은 작품에서 궁노(宮奴)이며 고변(告變)을 잘해 큰 옥사를 일으켜 사대부들을 도륙내어 공신이 되고 군에 봉해진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물이며, ‘뇌해청’은 당 현종 대의 궁정악사로서 안록산의 반군에 잡혀 낙양에 끌려가 연회에서 음악을 연주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은 인물이다. 김성기도 목호룡의 술자리에 오라는 청을 받았으나 “나는 나이 칠십이다. 어찌 너를 두렵게 여기겠는가 네가 고변을 잘한다 하니 나를 또한 고변해서 죽여보아라”²⁰⁾라고 꾸짖었다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작자인 정래교가 뇌해청에 빗댄 것이다. 이처럼 「김금사성기」는 김성기의 지조 있는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서술로 이루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억임희지전」의 김억이 호방한 성격에 맞추어져 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김성기의 이러한 지조있는 모습은 더욱 부각된다.

「김식손전」의 김식손은 매화를 좋아하는 벽(癖)이 있어 매화를 수십그루 심어놓고 무릇 시로써 이름난 사람이라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화시(梅花詩)를 구하여 이를 비단으로 꾸미고 옥으로 축(軸)을 만들어 보관했다는 내용이 행적부의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매화시를 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를 비단과 옥으로 꾸며서 보관했다는 데서 앞서 김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환경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그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기술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장오복 천홍철전」의 두 인물은 협객으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장오복은 이부(吏部)의 아

17)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호산외기」, 『趙熙龍全集』6, 아세아문화사, 1999. 62쪽.

18) “然聖基家貧浪遊 妻子不免飢寒”(유재건, 『이향견문록』, 649쪽.)

19) 위의 책, 651쪽.

20) 위의 책, 650쪽.

전의 직임을 맡은 바 있고, 천홍철은 정승 김익의 겸인(兼人)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항의 인물에 해당한다. 작품은 이 두 인물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들로 이루어졌는데, 논찬부가 없는 몇 안 되는 작품에 속한다. 조희룡은 단순히 이들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기 보다는 단순히 호기로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에서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호산외기』에만 실려 전하는 인물인 강치호, 유동자, 농산대사와 함께 김익, 김석손, 장오복, 천홍철은 일반인들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취미를 지녔다거나, 행적을 보인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이 보이는 개인적인 면모는 비록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당대 지배 이념 하에서는 쉽게 용인받기 어려운 것이고 보면, 유재건은 이러한 인물이 갖는 개인적인 품성보다는 당대 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형을 갖고 있는 인물만을 선별해서 『이향견문록』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향견문록』의 편찬 양상에 따른 그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향견문록』은 『호산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였으나,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조희룡의 서문을 시작으로, 의례에 따라 인물을 수록하고, 인용서목을 부기하였다. 의례의 기준은 8가지로 하여, 주로 여항의 인물을 구분해서 실어 놓았는데 가장 많은 여항인을 수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례에 맞지 않은 인물은 수록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많은 인용을 한 『호산외기』에서도 이 같은 의례에 맞지 않은 인물은 수록하지 않았다.

이 의례에 맞지 않은 인물에 해당하는 이는 김익, 김석손, 강치호, 장오복, 천홍철, 유동자, 농산대사의 7명인데 유동자를 제외하고는 내용 상 의례에 맞추어 김익은 예술에 김석손은 문학, 강치호는 덕행과 경술, 장오복, 천홍철은 영호와 준절, 농산대사는 불가와 도가에 해당할만한 행적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행적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준의 척도는 바로 당대 지배이념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호산외기』에서 추구했던 인물의 개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지만, 『이향견문록』은 기존의 기록물에서 여항의 인물들을 집대성하고 이를 8가지의 기준에 맞춰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완성된 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산외기』를 인용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신기보다는 주로 논찬부에 축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축약이 일어난 작품들은 조희룡의 개인적인 찬탄이라든가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치부해 버릴만한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이러한 축약이 조희룡의 개인적 평가에 두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조희룡의 『호산외기』에서 취한 작품 중에는 논찬부가 그대로 실려 있는 작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논찬부가 있는 작품의 경우는 조희룡의 평이긴 하나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김종귀를 입전한 작품만 놓고 보더라도 논찬부의 내용은 김종귀가 바둑에 뛰어났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 대한 조희룡의 생각으로 일관되게 꾸며져 있다.

입전인물의 면모를 구체화하는 면에서 보자면, 유재건과 조희룡은 동시대를 살다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입전 인물에 대한 기록이 『호산외기』에 보이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보고 느꼈을법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작품에서 동일인물을 입전한 작품을 함께 실어 놓고 있다. 대개는 이런 작품의 경우 『호산외기』와는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조희룡과 같이 입전인물의 실제 삶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기 작가의 경우는 해당 인물을 매우 생동감있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해당인물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모습에서 출발하여 작업을 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반면에 자료에만 의존하여 쓰는 작가들의 경우는 타인의 기록들을 사용하여 해당인물의 전모를 그려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타인의 기록들이 서로 모순되고,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 윤색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입전 인물에 대한 가장 참다운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²¹⁾ 따라서 이는 불완전하게나마, 전기 작가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유재건의 태도가 스며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조희룡은 『호산외기』를 통해 기존의 연구물들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그간 집진적으로 변해오던 전이라는 문학양식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과 동류에 처해있는 인물들을 취합하여 증인층에 의한 증인층만의 전기집을 창작 간행하였다면, 유재건은 『이향견문록』을 발전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산외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서문, 의례 등을 두었고, 동류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사사로운 평가를 지양하기 위한 논찬부의 삭제 등을 서술 특성으로 하여 보다 많은 여향인들을 수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이향견문록』이 증인층 전기집의 전범으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참고문헌

-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林煥澤 編, 『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9, 驪江出版社, 1991.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趙熙龍全集』6, 아세아문화사, 1999.
-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유영주, 「조선후기 여향인 전기집 연구 - <호산외기>, <이향견문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윤재민, 『조선후기 증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이지양, 「『이향견문록』을 통해 본 겸산 유재건의 의식」, 『성균어문연구』 30,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90.
 이향순, 「이향견문록의 텍스트성과 작가의식」,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정병호, 「<이향견문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향인의 형상」, 『동방한문화회』12, 동방한문화회, 1996.
 천병식, 「朝鮮後期 委巷詩社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
 한영규, 「증인층 전기집 『호산외기』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29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6.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 삼영사, 1983.

21)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 삼영사, 1983. 48~50쪽.

許世旭 역본 〈春香傳〉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왕비연(王飛燕)

<목 차>

1. 머리말
2. 허세욱 역본 구조상의 특징
3. 허세욱 역본 내용상의 특징
 - 3.1. 원작의 고전적인 정취와 음악적인 특성에 대한 표현
 - 3.2. 오역(誤譯)과 의사전달이 적절하지 못한 번역
 - 3.3. 고어와 현대어의 혼용
 - 3.4. 골계와 해학의 약화
4. 허세욱 역본의 가치와 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허세욱(許世旭.1934~2010)이 번역한 〈춘향전〉의 양상과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춘향전〉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어린이 독서물인 ‘그림책’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¹⁾ 그 외에 소설이나 중국 전통 희극(戲劇)으로 번역/개작된 역본도 있다. 필자가 현재 까지 조사한 결과 소설 역본은 5종류, 희극 역본(창본 唱本)은 6종류가 있었다. 필자는 〈춘향전〉의 모든 중국어역본의 번역양상과 특징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나, 그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므로 짧은 시일 안에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이 많은 역본을 하나씩 연구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허세욱 역본은 중국대륙이 아닌 대만의 역본으로, 현재까지 대만에서의 유일한 역본이다.

이 역본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다른 중역본의 저본들은 모두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이다. 역본의 번역양상과 특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본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판84장본은 모두 잘 아는 판본이고, 이런 저본에 대한 분석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허세욱 역본은 원작에 대한 개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저본에 대한 분석을 일단 논외로 하고, 허세욱 역본의 번역양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에서의 〈춘향전〉 중역본들의 유형과 서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다. 해당 역본들의 서지사항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 중역본의 종류와 서지사항

1) 중국에서는 이런 ‘그림책’을 소화서(小畫書)나 소인서(小人書)라고 부른다. 책의 형식은 전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 밑에 문자를 붙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으로써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같은 나이 어린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책이다. 책의 크기는 대개 성인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런 그림책은 대부분 중국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중국 동북(東北)의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요녕(遼寧) 등 지역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고, 북한 평양에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도 있다. 이런 그림책 형식의 〈춘향전〉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본고의 연구주제와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서지사항 유형	출판사 및 출판년도	번역자	저본
1 越劇 〈春香傳〉	新文藝出版社 (1955.2. 上海)	華東戲劇研究院 編輯, 莊志執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立古典藝術劇場 演出本
2 古裝豫劇 〈春香傳〉	河南人民出版社 (1955.6. 鄭州)	莊志 改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立古典藝術劇場 演出本
3 京劇 〈春香傳〉	北京出版社 (1956. 北京)	言慧珠 改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立古典藝術劇場 演出本
4 評劇曲譜 〈春香傳〉	音樂出版社 (1957. 北京)	莊志執筆, 中國 評劇院 編 賀飛, 楊培 作曲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立古典藝術劇場 演出本
5 潮劇 〈春香傳〉	1956	王菲, 黃秋葵, 楊廣泉,	영상자료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6 黃梅戲 〈春香傳〉			영상자료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7 〈春香傳〉 (소설)	作家出版社 (1956. 北京)	冰蔚(北韓), 張友鸞 譯	朝鮮作家同盟出版社, 1954版 〈春香傳〉
8 〈春香傳〉 (소설)	新世界出版社 (2006. 北京)	柳應九(韓國) 譯	진주 완판본 〈烈女春香守節歌〉
9 〈春香傳〉 (소설)	民族出版社 (2007.9. 北京)	趙浩相(韓國) 改編 丁生花 譯	〈烈女春香守節歌〉
10 〈春香傳〉 (소설)	人民文學出版社 (2010. 北京)	薛舟, 徐麗紅 譯	〈烈女春香守節歌〉 (송성욱 풀어 옮김, 민음사, 2004)
11 〈春香傳〉 (소설)	商務印書館 (1967, 臺灣)	許世旭(韓國) 譯	〈烈女春香守節歌〉 (完西溪書 鋪)

도표에서 1부터 7까지 작품의 저본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지칭함)의 〈춘향전〉이다. 이들 역본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작 내용을 삭제·개작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중국의 희극으로 번역·개작하는 과정에서 원작에 대한 개작이 많이 이루어졌다. 소설의 경우에는 5종류의 역본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烈女春香守節歌〉	계열1	→ 〈春香傳〉(北韓) → 小說 〈春香傳〉 (冰蔚(北韓), 張友鸞 譯, 作家出版社, 北京, 1956.)
	계열2	→ 小說 〈春香傳〉(柳應九(韓國) 譯, 新世界出版社, 2006)
		→ 小說 〈春香傳〉(趙浩相(韓國) 改編, 丁生花 譯, 民族出版社, 2007) → 小說 〈春香傳〉(薛舟, 徐麗紅 譯, 人民文學出版社, 2010)
계열3	→ 小說 〈春香傳〉(許世旭(韓國) 譯, 商務印書館, 1967, 臺灣)	

계열1은 1956년 북경 작가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고, 계열2는 2000년 이후에 출판한 3가지 역본이며, 계열3은 대만에서 1967년 허세욱이 번역한 역본이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56년 북경 작가출판사에서 출판한 〈춘향전〉은 북한의 〈춘향전〉²⁾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하나의 계열로 보기로 한다. 북한의 〈춘향전〉이 비록 스스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라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완판 84장본과는 차이가 있는 판본이다.³⁾ 2000년 이후에 출판한 세

2) 〈춘향전〉, 연변교육출판사, 1955. 책의 뒷면 표지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를 제시하고 있다.

3) 거칠게 말하자면 북한의 〈춘향전〉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만 일부 내용들, 주로 성적인 표현들을 모두 삭제한 판본이다. 이런 내용의 삭제는 작품의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종류의 역본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저본으로 번역된 것들이다. 계열3은 본고의 연구대상인 대만에서 출판한 허세욱의 역본이다. 중국대륙의 역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하나의 계열로 보기로 한다. 1950년대에 번역된 〈춘향전〉은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만에서의 역본과 중국대륙에서 2000년 이후에 나온 역본들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허세욱 역본의 번역자와 이 책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허세욱은 전북 임실군 출신이고 중국문학을 연구한 학자이자 시인·수필가이다. 1959년 한국외국어대학 중어과를 졸업하고, 1960년에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국립대만사범대학교(國立臺灣師範大學校) 대학원 중문과에 입학하여 1968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 재직하다가 1986년부터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99년 정년퇴임했다. 2010년에 세상을 떠났다.

허세욱이 번역한 〈춘향전〉은 완서계서포(完西溪書舖)에서 출판한 〈열녀춘향수절가〉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⁴⁾ 이 역본의 맨 앞에는 역자가 《동방잡지(東方雜誌)》 복간(復刊) 제3기에서 발표한 「〈春香傳〉考釋」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다. 역자는 이 논문에서 〈춘향전〉의 한국문학사에서의 위치, 작품의 기원(起源), 창작 연대와 작가, 이본 등에 대해 두루 설명했다. 그리고 〈춘향전〉에서 나타나는 평등사상·풍자정신·작품의 인물묘사의 수법과 향토적 맛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야기 구성의 불합리(不合理)·부화(浮華)한 인사(言辭)·전고(典故)가 많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진원(崔珍源)이 말한 ‘우직성(愚直性)’을 거론하고 〈춘향전〉의 ‘치우(痴愚)’와 ‘직솔(直率)’을 강조하면서 논문을 마쳤다. 학술적인 논문이기에 장차 전개할 번역문과 약간의 거리가 있긴 하나 외국독자들에게 〈춘향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역본이 이가원(李家源), 김사엽(金思燁), 조운제(趙潤濟)의 주석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후기(後記)에서 이명구(李明九)교수의 도움과 초과(楚戈)⁵⁾의 교열(校閱)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의 번역본과 비교하면 이 역본은 번역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춘향전〉의 최초의 역본인 일본어역본의 번역자는 일본인이고,⁶⁾ 이후에 나온 영역본의 역자는 미국인이며,⁷⁾ 프랑스 역본의 번역자는 프랑스인이다.⁸⁾ 역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번역한 경우, 곧 일본어역본은 일본

4) 완관 84장 〈열녀춘향수절가〉는 귀동신간춘향전(龜洞新刊春香傳), 완흥사서포(完興社書舖, 1912), 다가서포(多佳書舖, 1916), 완서계서포(完西溪書舖) 등 판본이 있다. 이 가운데 널리 유통되어 일찍부터 주목받았던 판본은 다가서포본과 완서계서포본이다. 완서계서포에서 나오는 판본으로는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행시기가 없어서 언제 출판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다른 하나는 조선진서간행회(朝鮮珍書刊行會)에서 1949년에 출판한 것이다.

전상욱, 〈완관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의미 -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6, 판소리학회, 2008, 204쪽.

본고에서 사용하는 저본은 완서계서포의 영인본이다. 성기수, (원문영인 및 주석) 《춘향전》, 글솟대, 2005.

5) 본명(本名)은 袁德星(1931~2011)이며, 대만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이다. 허세욱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6) 일본에서의 최초 번역본은 1882년에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가 번역한 《鷄林情話春香傳》이다. 西岡健治, 〈일본에서의 〈춘향전〉 번역의 초기양상 - 桃水野史譯 《鷄林情話春香傳》 대상으로-〉, 《어문론총》 제41호, 2004.

7) 영역본은 1889년 미국의 선교사 알렌(H.N. Allen)이 번역한 것이다. 의사인 알렌은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 1884년부터 1905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외교관으로서의 활동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는 Korean Tales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서 〈홍부전〉,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과 민담들을 번역해서 실고 있다.

오윤선, 《韓國 古小説 英譯의 樣相과 意義》,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11쪽.

8) 프랑스 역본은 1892년 프랑스 소설가 로니(J.-H. Rosny)가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로니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유학생 홍중우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홍중우의 프랑스어

인에 의해, 영역본은 미국인에 의해 번역된 경우에는 비록 원작에 대한 오역이나 과도한 개작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나라의 독자들이 익숙한 표현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읽히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었다. 외국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 ‘외국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반대로 원작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경우에는 비록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할 수 있었겠지만 역본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독자들에게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주기 쉽다. 이점을 허세욱 역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허세욱 역본 구조상의 특징

허세욱 역본은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이전에 《작품(作品)》이라는 잡지에서 연재의 형식으로 발표된 적이 있었다.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 전체 52개의 짧은 장회(章回)로 나누어 각 장회에 소제목을 붙인 형식을 취했다. 각 장회의 소제목과 대응하는 원문의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허세욱 역본 〈춘향전〉의 소제목과 대응하는 내용

小 題目	대응하는 〈烈女春香守節歌〉의 내용
1 聖代 隱妓	‘숙종디왕 즉위 초’로부터 ‘공든 탑이 무어지며 심근 남괴 썩길손가?’ 까지
2 仙娥 幻生	‘이날부터 목욕지게 정이 흐고’부터 ‘나무나무 성인호고 두견 접동 나치 나니 일년지가절이라.’까지
3 房子 說景	‘잇째 사또 자제 이도령이 연광은 이팔이요’로부터 ‘방자야, 나구 안장 지 어라.’까지
4 豪華 治裝	‘방자 분부 듯고 나구 안장 짓는다’로부터 ‘황금갓튼 뽕꼬리는 숲숨가 나 라든다.’까지
5 烏鵲 風流	‘광한 진경 조건이와 오작괴가 더욱 좃타’로부터 ‘그 티도 그 형용은 세상 인물 안이로다.’까지
6 物各 有主	‘연자삼춘비거티라’로부터 ‘형산뵙옥과 여슈황금이 남지 각각 잇난이라. 잔말 말고 불너오라.’까지
7 靑鳥 傳書	‘방자 분부 듯고 춘향 초리 건네 갈 제’로부터 ‘기특한 사람이다 언즉시아 로되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러 하여라.’까지
8 月態 花容	‘방자 전갈 모와 춘향으게 건네가니’로부터 ‘네 얼굴 네 티도는 세상 인물 아니로다.’까지
9 李成 之合	‘잇째 춘향이 추파을 잠간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로부터 ‘글해 엇지 디 답하였난야 모른다 하였지요 잘하였다’까지
10 書齋 朗讀	‘잇째 도련임이 춘향을 이연이 보던 후의’로부터 ‘적벽부를 들러 늦코 ... 청풍은 서리호고 슈파은 불홍이라 아셔라 그 글도 못 일것다’까지
11 奇解 千文	‘천자을 일글 시’로부터 ‘군자호귀이 안니야 춘향 입 너 입을 한티다 디고 쪽쪽 뻘이 범중 여짜이 아닌야 익고익고 보겨지거’까지
12 文才 絶等	‘소리를 크게 질너 노니 잇디 사또 전역 진지를 잠수시고 식곤징이 나게 읊서’로부터 ‘글런다고 하여쓰되 그계 쏘 다 거깃마리였다’까지
13 靑絲 燈籠	‘잇째 이 도령은 퇴령노키을 지달일 제’로부터 ‘숯시럽고 점잔하계 발막을 끌어 나오난디 가만가만 방지 뒤을 짜라온다’까지

구사능력 또한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사실은 중간에 어느 일본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상욱, 〈프랑스판 춘향전의 개작양상과 후대적 변모〉, 《열상고전연구》 제32집, 2010.

14	舍情 無語	‘잇더 도련임이 비회피면하야 무류이 셔 잇슬 제’로부터 ‘귀중하신 도련임 이 누지의 용임하시니 황공감격하옵니다’까지
15	探花 蜂蝶	‘도련임 그 말 한 마디여 말 궁기가 열이엿제’로부터 ‘도령임 너정이 말과 갓털진더 심양하여 헝하소서.’까지
16	酒盤 等待	‘도련임 더욱 답답하야’로부터 ‘금야의 하는 절차 본니 관청이 안이여던 어이 그리 구비한가’까지
17	一喜 一悲	‘춘향모 엿자오디 니 딸 춘향 곱게 길너 요조숙여 군자호귀 가리여셔’로부터 ‘상단아 나오너라 나하고 합기 자자 두리 다 건너 갖구나’까지
18	綠水 鴛鴦	‘춘향과 도련임과 마조 안저 노와쓰니 그 이리 엿지 되것난야’로부터 ‘사랑 사랑 니 간간 니 사랑이야’까지
19	情字 打鈴	‘안이 그것도 나는 실소’로부터 ‘걱정되니 진정으로 원정하잔 그 정짜다’까지
20	宮字 雜談	‘춘향이 조와라고 하는 말이’로부터 ‘얼굴이 복쌌야 구실쌌이 송실송실 안자우나.’까지
21	非金 非玉	‘이 인 춘향아 이리 와 옹피거라.’로부터 ‘예라 요것 안 될 마리로다 어화 등등 니 사랑이제 이 인 그만 니리려무나’까지
22	如此 壯觀	‘빅사만사가 다 품아시가 잇난이라 니가 너을 어버슨이 너도 나를 어버야 지’로부터 ‘이팔 이팔 두리 만나 밋친 마음 세월 가는 줄 모르던가 부더라.’까지
23	興盡 悲來	‘잇더 뜻밖그 방자 나와 도령임 사또계웁셔 부릅시오.’로부터 ‘불가불 이 버리 될 박그 수 업다’까지
24	悲歌 自嘆	‘춘향이 이 말을 듯더니 고닥기 발연 변식이 되며’로부터 ‘인물 거천하는 범이 그런 범 웨 잇슬고 죽고지거 죽고지거 인고익고 셔문지거’까지
25	岳母 發威	‘한참 이리 자진하야 셔리 올 제 춘향 모는 물식도 모르고’로부터 ‘도련임 디가리가 둘 듯췌소 인고 무셔라 이 쇠뿔뿔야’까지
26	千愁 萬恨	‘알칼 췌여 달여드니 이 말 만일 사또게 드려가면 큰 야단이 나것거던’으로부터 ‘첩첩이 싸인 경물 보난 것도 수심이요 듯난 것도 수심이’까지
27	靑娥 惜別	‘인고익고 설이 올 제 이 도령 이른 마리’로부터 ‘네가 나를 보라거든 설위 말고 잘 잇거라’까지
28	風捲 殘雲	‘춘향이 할 길 업셔 여보 도련임 니 손의 술리나 망중 잡수시오’로부터 ‘훗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치쳐가는 양은 광풍의 편우일베라’까지
29	獨宿 空房	‘잇췌 춘향이 하릴업셔 자든 침방으로 들어가셔’로부터 ‘일구월심 굶게 먹고 등과 외방 바리더라.’까지
30	新官 威儀	‘잇더 수사 만의 신관 사또 낫씨되’로부터 ‘행수 군관 집에 밧도 육방 관속 선신 밧도 사또 분부하되’까지
31	妓生 點呼	‘수로 불너 기성 점고하라’로부터 ‘점고 밧고 나오’까지
32	六房 騷動	‘연연이 고은 기성 그중의 만컨만는 사또계웁셔난 근본 춘향의 말을 놉피 들어는지라’로부터 ‘이이 외입한 자식더러 저른 계집을 추왕뭇호면은 사람이 안이로다.’까지
33	一片 丹心	‘잇째에 지족 사령 느오면셔’로부터 ‘사또 분부 황송하나 일부종사 바리온 이 분부 시형 못하것소’까지
34	妾身 雖賤	‘사또 우어 왈 미지미지라 계집이로다’로부터 ‘거역관장 하난 죄는 엄형정 비하는이라 죽느라 셔리 마라’까지
35	有夫 劫奪	‘춘향이 포악하되 유부 겁탈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로부터 ‘인고 이계 웬이리여’까지
36	十杖 哀歌	‘곤장 티장 치난되는 사령이 셔셔 한나 둘 세것만은’으로부터 ‘너의 형상 자시 보고 부더부디 잇지 말야’까지
37	無男 獨女	‘삼십삼천 어린 마음 옥황 전의 알외고져’로부터 ‘그런 말삼 말르시고 옥으로 가사이다.’까지
38	獄中 名花	‘사정이 등의 업피 옥으로 들어갈 제’로부터 ‘보는 디로만 네가 일너 너의 수심 푸리다고.’까지

39	黃陵之廟	‘이고이고 설이 울다 호련이 잠이 든이’로부터 ‘이 고시라 하난 더가 유명이 노슈하고 향오지별하니 오리 유치 못할지라.’까지
40	盲巫解夢	‘여등 불너 하직할 시 동방 실솔성은 시르렁’으로부터 ‘우리 서방임 언으 썩나 나를 차질가 길형어부 점을 하라고 청흐엿소 글히제’까지
41	天河言哉	‘봉사 점을 하느디’로부터 ‘춘향이 장탄수심으로 세월을 보니나라.’까지
42	衣錦登程	‘잇썩 한양성 도령임은 주야로 시셔 빅가어를 숙독하야슌니’로부터 ‘절나도 초읍 여산이라 막중국사 거형불명 직 죽기를 면치 못흐리라’까지
43	含哺鼓腹	‘추상갓치 호령하며 서리 불너 분부하되’로부터 ‘거기년 디풍이로고.’까지
44	田園問答	‘또 환편을 바리본이 이상한 이리 잇다’로부터 ‘자네가 철 모로난 말을 하미 그리체’까지
45	道逢血書	‘수작을 파하고 도라서며 허허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덜 일하오’로부터 ‘이놈 만일 천기누설하여셔난 성명을 보전치 못흐리라.’까지
46	黃昏行脚	‘당부호고 남원으로 드러올 제’로부터 ‘천지지신은 감동하사 한양성 이몽을 청운의 눈피 울여 니 쌀 춘향 살여지다.’까지
47	乞人之上	‘빌기를 다 한 후의’로부터 ‘얼씨고 밥 비러 먹기난 공성이 낫구나.’까지
48	怒氣衝天	‘잇썩 상단이는 저의 이끼씨 신세를 싱각하여 크게 우든 못하고 체읍하여 우는 말리’로부터 ‘몽중의 보던 입을 상시의 보단 말가’까지
49	握手氣絕	‘문 뜰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식하며’로부터 ‘우지 마라 하나리 무어져도 소사날 궁기가 잇난이라 네가 날를 엇지 알고 이리타시 서리한야’까지
50	破冠末席	‘직별하고 춘향 집으 도라왔제’로부터 ‘운봉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들시리랴’까지
51	御使出道	‘어사또 드러가 단좌하야 좌우를 살펴보니’로부터 ‘관청식은 상을 일코 문썩 니고 너다르니 서리 역줄 달여드러 휘닥썩 익고 나 죽네’까지
52	李花春風	‘잇썩 수의 사또 분부하되’로부터 ‘지기가 총명하야 그 부친을 압두하고 계계승승하야 직거일품으로 만세유전하더랴’까지

이렇게 작품을 짧게 나누고 소재목을 붙인 형식은 이가원(李家源)의 역주본을 따른 것이다.⁹⁾ 개별적인 글자의 바꿈¹⁰⁾ 외에는 이가원의 소재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장회로 나누는 형식은 〈춘향전〉의 번역에 있어서 좋은 방식인 듯하다. 한국의 고전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대만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접근할 때 하나의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작품의 언어는 순수한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 작품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짧게 나누는 형식은 해독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로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대만독자들은 한국의 풍속이나 생활양식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허세욱 역본 내용상의 특징

3.1. 원작의 고전적인 정취와 음악적 특징에 대한 표현

9) 이가원이 주석책의 앞에서 붙인 서례(敍例)에서 “本書의 原典에는 章回의 나눔이 없이 聯綴되었으므로 이제 繙讀의 편의를 위하여 五十二 章回로 나누어 ‘성대퇴기(聖代退妓)’나 ‘이화춘풍(李花春風)’등의 四字一句로 된 章回의 이름을 붙임.”이라고 장회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가원, 〈春香傳註釋〉, 《李家源全集》17, 정음사, 1986, 3쪽. 번역자가 참고한 판본은 이 주석본의 초판(1958)이다.

10) 글자를 고친 몇 개의 예를 보면, 聖代退妓(이가원) - 聖代隱妓(허세욱), 冊室朗讀(이가원) - 書齋朗讀(허세욱), 筆才絕等(이가원) - 文才絕等(허세욱), 丈母發威(이가원) - 岳母發威(허세욱), 狂風片雲(이가원) - 風捲殘雲(허세욱) 등이다.

이 절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적절하게 번역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작품의 고전적인 정취를 적절하게 재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유지한 것이다.

우선 작품의 고전적인 정취를 잘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도령이 춘흥을 못 이기고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또에게 나가기를 청할 때 하는 말과 월매가 처음 등장할 때 그녀에 대한 묘사를 보자.

원문: “금일 일기 화란호오니 잠간 나가 풍월 음영 시 운목도 생각호고자 시푸오니 순성이나 호여이다.”(5쪽)¹¹⁾

역문:今天天氣和暖, 孩兒很想出外吟詠風月, 作些詩律, 請准許孩子巡遊.(5쪽)¹²⁾

원문: 춘향 모 나오난디 거동을 살펴보니 반박이 넘어는디 소탈한 모양이며 단정한 거동이 꺾이정정하고 기부가 풍영하야 복이 만한지라.(19쪽)

역문: 初瞧春香母之舉動, 年過半百, 尙有如此朴素端莊之貌, 步履亭亭, 肌膚豐盈, 風韻猶存, 是謂福相.(27쪽)

두 역문은 모두 고전적인 맛을 잘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기 화란호오니’에서의 ‘화란’을 ‘暖和’가 아니라 ‘和暖’으로 번역한 것은 은연중 고풍스러운 정취가 드러나 있다. 뜻이 같지만 ‘暖和’보다 ‘和暖’은 고전적인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도령인 이도령의 형상과도 잘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월매의 형상을 묘사하는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일반 고전소설의 말투와 묘사가 아주 유사하다. 중국독자들이 익숙한 용어와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이도령이 등장하기 전에 봄의 경치를 묘사하는 내용과 방자가 춘향집 위치를 말하는 대목을 보자.

원문: 남산화발 북산홍과 천사만사 슈양지의 황금조는 벗 부른다 나무나무 성입호고 두견 접동 나치 나니(3쪽)

역문:南山花發北山映, 千絲萬縷垂楊枝. 黃鶯婉轉柳中啼, 萬樹成林鶻聲急.(4쪽)

원문: 저기 저 건네 동산은 울울하고 연당은 청청한 디 양어싱풍하고 그 가운데 기화요초 난만하야 나무나무 안진 식는 호사를 자랑하고, 암상의 구분솔은 청풍이 건 듯 부니 노룡이 굽이난 듯...(13쪽)

역문: 那邊小山鬱鬱成林, 蓮塘清澈, 魚遊其中, 琪花瑤草, 滿塘爛漫, 鳥唱樹間, 其樂融融, 巖上老松, 含着春風, 如老龍夢醒.(16쪽)

위에 인용문은 모두 경치에 대한 묘사로 한시의 형식이나 4·4자(字)의 형식을 취했다. 원작에서는 한시 구절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 내용이 한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역본에서는 역자가 일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시로 번역한 경우도 종종 보인다. 하나의 장면을 한시로 전체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 한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자는 이런 작업을 위해 분명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4·4자로 되어 있는 번역은 고전적인 풍미를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리듬감도 은연중에 잘 유지하고 있다.

11) 본고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완서계서포에서 출판한 <열녀춘향수절가>이다. 이하 인용한 내용들은 쪽수만 제시하기로 하겠다.

성기수, 앞의 책.

12) 허세욱, 《春香傳》, 臺灣商務印書館, 1967. 이하 인용은 쪽수만 제시하기로 한다.

다음에 원작의 음악적 성격을 잘 표현하는 예문을 몇 개 들어 살펴보겠다.

㉠ 사랑가:

원문: 화우동산 목단화 갖치 평퍼지고 고은 사랑 영평 바다 그무 갖치 얼키고 밋친 사랑 은하직여 직금 갖치
울올리 이은 사랑 청누미너 침금 갖치 혼술마다 감친 사랑(27~28쪽)

역문: “花雨東山牡丹花, 剛好看綻豔麗且.”之愛. “延平海上撒漁網, 又交叉織復又結.” 之愛. “銀河織女勤投
梭, 織錦片片相連接.”之愛. “青樓美女枕衾衣, 每逢綺線線打結.”之愛.(37쪽)

㉡ 장탄가(長歎歌)

원문: 한숨은 청풍 삼고 눈물은 세우 삼어 청풍이 세우를 모라다가 불건이 뿌리건이 임의 잠을 깨우고 저 겨
우 직여성은 칠석상봉하을 격의 은하수 미켜시되 실기한 일 업서건만 우리 농군 거신 고디 무삼 물리 뭍켜난지
소식조차 못 듯난고 사라 이리 기루난이 아조 죽어 잇고지거 차라리 이 몸 죽어 공산의 뒤건이 되야 (61쪽)

역문: 涕淚如細雨, 歎氣變清風. 清風驅細雨, 吹灑驚君夢. 牽牛織女星, 七夕一相逢. 銀河雖阻隔, 猶有一會期.
我君所在處, 山水隔相思. 音信久斷絕, 日久情更深. 若使將死日, 此恨永綿綿. 寧願上九天, 化爲一杜鵑.(92쪽)

㉢ 농부가(農夫歌):

원문: 어여로 상사뒤요 철리건곤 티평시의 도덕노훈 우리 성군 강구연월 동용 듯던 온임군 성덕이라
어여로 상사뒤요 순임금 농훈 성덕으로 니신 성기 역산의 밋슬 같고
어여로 상사뒤요 실농씨 니신 짜부 천추만대 유전흐니 어이 안이 농푸던가
어여로 상사뒤요 하우씨 어진 임군 구연홍수 다사리고
어여로 상사뒤요 은왕성탕 어진 임군 티한칠년 당하여네 (70쪽)

역문: ㄹ呀ㄹ! ㄹ呀ㄹ! 千里乾坤太平時, 道德英明我聖君, 康衢煙月聞童謠, 堯皇聖德仁地天.
ㄹ呀ㄹ! ㄹ呀ㄹ! 舜帝威德成大器, 親自耕田在歷山.
ㄹ呀ㄹ! ㄹ呀ㄹ! 神農用耜始教耕, 千秋萬代流傳久, 隆恩自古莫此盛.
ㄹ呀ㄹ! ㄹ呀ㄹ! 夏禹仁王德用垂, 治水九年人益仰.
ㄹ呀ㄹ! ㄹ呀ㄹ! 殷王成湯亦仁君, 大旱七年無可避.(105~106쪽)

창(唱)의 부분뿐만 아니라 아니리 부분도 뚜렷한 리듬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판소리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인용한 역문에서도 방자가 춘향집 위치를 말하는 장면이 4·4자로 되어 있어 이런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위의 인용한 내용들은 모두 칠언(七言)이나 오언(五言)의 한시로 번역되어 있다. ‘농부가’의 경우에는 한시 앞에 ‘ㄹ呀ㄹ! ㄹ呀ㄹ!’라는 민요 성격의 노랫말도 붙어 있는데, 이런 방식의 번역은 역문에서도 원문의 음악적 성격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다만 한시의 형식이 과연 판소리의 창(唱)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판소리의 창은 리듬과 장단(長短)의 규칙이 있기는 하나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등 조(調)의 변화도 다양하다. 여러 조(調)의 조합은 장면이나 인물의 감정을 생동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한시는 칠언이나 오언의 격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장르이다. 이런 형식의 제한 때문에 그 안에 담고 있는 정서의 표현도 어쩔 수 없이 압축시키거나 정련(精鍊)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장탄가’의 경우, 원문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춘향이 이도령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로 번역된 후에는 춘향의 연약하고 가련한 형상이 사라졌다. 대신에 인물형상과 감정이 모두 ‘경화(硬化)’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농부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역자가 비록 ‘ㄹ呀ㄹ! ㄹ呀ㄹ!’라는 노랫말을 통해 민요의 성격을 어느 정도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한시로 되어 있는 농부가가 농부들의 노래의 소박함을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하고, 대신에 문인이 지은 농부가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원작의 농부가의 정취와 거리가 생기게 만든다. 종합적으로 말하

자면 한시의 형식은 판소리의 창(唱)의 내적인 미감을 재현하는 데 적절한 형식이 아닌 듯하다. 중국 전통 희극의 창(唱)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시가 아니라는 것도 이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다. 첫날밤에 젊은 남녀의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가’나 감옥에 갇힌 춘향이 애련하고 가련한 형상과 그런 처지에서 부르는 ‘장탄가’는 한시로 번역된 이후에 정서가 경직되고 원문의 섬세한 정취가 거의 사라졌다.

그럼, ‘장탄가’나 ‘농부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해야 원작의 운미(韻味)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중국에는 이미 <춘향전> 역본이 많이 존재한다. 번역의 수준이 각각 다르지만 잘 되어 있는 역본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장탄가’와 ‘농부가’를 예로 삼아 1956년 북경 작가출판사의 역본과 비교해 보자.

‘長歎歌’ 원문	역문
<p>한숨은 청풍 삼고 눈물은 세우 삼어 청풍이 세우를 모라다가 불건이 뿌리건이 임의 잠을 깨우고 저 겨우 직여성은 칠석상봉하올 적의 은하수 미켜시되 실기한 일 업서건만 우리 농군 겨신 고디 무삼 물리막켜난지 소식조차 못 듯난고 사라 이리 기루난이 아조 죽어 잇고지거 차라리 이 몸 죽어 공산의 뒤견이 되야 (61쪽)</p>	<p>涕淚如細雨，歎氣變清風。清風驅細雨，吹灑驚君夢。牽牛織女星，七夕一相逢。銀河雖阻隔，猶有一會期。我君所在處，山水隔相思。音信久斷絕，日久情更深。若使將死日，此恨永綿綿。寧願上九天，化爲一杜鵑。(허세욱 역본 92쪽)</p> <p>我歎息之聲化爲一陣清風起，那飄飄細雨就是我的眼淚水汪汪。</p> <p>清風細雨迎風去，雨打風吹驚醒我那李家郎。</p> <p>天上雖有銀河阻，年年七夕織女會牛郎。</p> <p>我與李郎沒有窮山惡水來相隔，爲甚不見音書來自那漢陽？</p> <p>我生時雖見不著情郎的面，死後的幽魂必然常在郎身旁。</p> <p>此時我不願生但願死，死了化作一隻杜鵑啼血在空山，在那李花寂寞的三更夜，我生生不覺喚情郎。(1956년 역본 69쪽)</p>

‘農夫歌’ 원문	역문
<p>어여로 상사뒤요 철리건곤 티평시의 도덕노푼 우리 성군 강구연월 동용 듯던 은임군 성덕이라 어여로 상사뒤요 순임금 높푼 성덕으로 니신 성기역산의 밧슬 같고 어여로 상사뒤요 실농씨 니신 짜부 천추만디 유전흐니 어이 안이 높푸던가 어여로 상사뒤요 하우씨 어진 임군 구연홍수 다사리고 어여로 상사뒤요 은왕성탕 어진 임군 티한칠년 당하어네 (70쪽)</p>	<p>伊呀啍！伊呀啍！千里乾坤太平時，道德英明我聖君，康衢煙月聞童謠，堯皇聖德仁地天。</p> <p>伊呀啍！伊呀啍！舜帝威德成大器，親自耕田在歷山。</p> <p>伊呀啍！伊呀啍！神農用鉏始教耕，千秋萬代流傳久，隆恩自古莫此盛。</p> <p>伊呀啍！伊呀啍！夏禹仁王德用垂，治水九年人益仰。</p> <p>伊呀啍！伊呀啍！殷王成湯亦仁君，大旱七年無可避。(허세욱 역본 105~106쪽)</p> <p>伊呀啍！伊呀啍！天下太平日，聖君盛德高。</p> <p>比得過康衢煙月的唐堯帝，比得過歷山耕地的虞舜朝。</p> <p>比得過教民稼穡的神農氏，比得過夏禹治了九年滂。</p> <p>比得過愛民的成湯帝，把那七年大旱熬。(1956년 역본 80쪽)</p>

고대 사람들은 “시(詩)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읊는다(詩言志, 歌詠言)”고 했다. ‘장탄가’의 애원함

과 ‘농부가’의 소박함을 표현할 때 ‘시(詩)’보다 ‘가(歌)’의 형식이 더 적절하다. 1956년 역본과 비교해서 볼 때 허세욱 역본의 번역은 ‘시(詩)’의 성격이 더 강하고, 1956년 역본의 번역은 ‘가(歌)’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볼 때 ‘장탄가’의 경우에는 자구(字句)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전체로 운문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로 ‘ang’운(韻)을 잘 지키고 있다. 왕(汪 wang)·랑(郎 lang)·랑(郎 lang)·양(陽 yang)·방(旁 pang)·랑(郎 lang)이 그것이다. 이렇게 운자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읽을 때에도 음악의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런 형식으로도 춘향의 여성적인 애원함과 쓸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농부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高 gao)·조(朝 chao)·노(澗 lao)·오(熬 ao)로 ‘ao’운(韻)을 잘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比得過’를 통해 전체의 통일성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比得過’로 시작하는 구절은 농부들의 신분과 부합하는 소박함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3.2. 오역과 의사전달이 정확하지 못한 번역

허세욱 역본의 언어는 순수한 중국어가 아니라 역자의 ‘한국식 중국어’이다. 역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 문제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번역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역과 의사전달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어(古語)와 현대어의 혼용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번역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그래서 이 역본에서 나타난 오역이나 뜻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번역은 번역자가 원문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번역자의 중국어 표현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물론 원문에 대한 해독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보겠다.

①

원문: 천하티성 공부자도 이구산의 비르시고 정나라 정자산은 우성산의 비러 나 계시고 (1쪽)

역문: 至聖先師孔夫子也曾在尼丘山祝禱神祇. 春秋時代的鄭子產亦曾祈禱於○山. (注: 原文闕漏) (2쪽)

역문의 뜻은 ‘천하티성 공부자도 이구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고, 춘추시대의 정자산도 ○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산에서 기도한 사람이 각각 공부자(孔夫子)와 정자산(鄭子產)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공자와 정자산의 출생에 관한 일화는 산에서 기도한 사람은 공자나 정자산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이다. 곧 공자의 부모가 이구산(尼丘山)에서 기도한 다음에 공자를 낳고, 정자산의 부모가 우형산(右荊山)에서 기도한 다음에 자산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작에서도 마지막으로 ‘나 계시고’라는 내용이 나온다. 역자는 ‘나 계시다’의 의미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원문의 뜻을 틀리게 번역했다. 물론 이는 역자가 원작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난 오역인지 중국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에 온 오역 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단 역문에서 ‘나 계시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②

원문: 그 달부터 티기 잇서 (2쪽)

역문: 自此動了胎氣 (태기를 건드리다) (3쪽)

이 역문의 표현 역시 잘못되었다. ‘태기가 있다(有了胎氣)’라는 말은 보통 갓 임신이 되었다는 뜻으로 쓰인다. 원문의 뜻도 이것이다. 그러나 ‘動了胎氣’는 임신이 이미 몇 달이나 된 이후에 외부의 충격으로 태아의 혈기 순행을 건드리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말은 태아의 정상적인 혈기 순행이 파괴

된다는 안 좋은 뜻으로 보통 쓰인다. 그래서 ‘動了胎氣’한 다음에 항상 태아가 불안정해지거나 바로 모체에서 나오는 사태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번역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해야 한다.

③

원문: 니가 너를 기생으로 알미 아니라 드르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11쪽)

역문: 我不顧及你的家世. 聞到你善詩, 故將竭誠邀請.(14쪽)

역문에서 “我不顧及你的家世”는 “내가 너의 가세(家世)를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도령이 진정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기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我並未將你視爲妓女).”라는 것이다. 이도령은 애초에 춘향을 기생으로 생각하고 방자를 보내 불러오라고 했다. 그러나 춘향은 “니가 지금 시사가 아니여든 여염 사람을 호리췌거로 부를 이도 업고 부르디도 갈 이도 업다.”고 하여 함부로 불러오라고 한 이도령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도령은 방자에게 춘향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곧 “니가 너를 기생으로 알미 아니라”라는 말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했다. 이 역문이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했다.

④

원문: 낫낫치 시겨 보면 삐뚤 쌀 일리 만하지야 (15쪽)

역문: 字字註釋, 亦有捧腹大笑的事喲.(20쪽)

여기서는 ‘삐뚤 쌀 일’를 ‘捧腹大笑(포복절도하다, 허리를 쥐고 웃다)의 일’로 잘못 번역했다. ‘삐뚤 쌀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을 형용하는 말로 이도령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천자문의 어려움을 아주 과장되게 말하고 있다.

⑤

원문: 우리 두리 처음 만나 백년언약 미질 적의 더부인 사또게옵서 시키시던 일리온잇가 빙자가 웬일이요 (38쪽)

역문: 當我們山盟海誓時, 難道不是府使, 夫人所命的麼? 豈有憑藉? (58쪽)

이 역문에서는 ‘不’ 한 글자 때문에 원문의 뜻이 정반대로 되어버렸다. 역문의 뜻은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백년언약을 맺을 때 대부인과 사또께서 시키시던 일이 아닙니까?”이다. 사실은 춘향이 한 말은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백년언약을 맺을 때 대부인과 사또께서 시키시던 일입니까?”라는 것이다. 그리고 ‘豈有憑藉’는 ‘어찌 빙자가 있습니까?’라는 뜻인데 역문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문의 문맥으로 보면 이 말은 춘향이 당초의 결연도 부모의 명으로 맺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왜 부모 핑계를 대느냐면서 이도령을 책망한 말이다. 그러나 ‘豈有憑藉’라는 역문은 이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⑥

원문: 이 익 외입한 자식더리 저른 계집을 추왕 못흐면은 사람이 안이로다 (52쪽)

역문: 假如和她有肌膚之親, 而不欽敬這樣的女子, 那恐怕不是人了! (77쪽)

역문의 뜻은 “만약 그녀와 기부지친(肌膚之親)이 맺고 나서 이런 여자를 존경하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로다.”라는 것이다. 우선 ‘肌膚之親’는 서로의 피부를 접촉한다는 뜻으로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보면 당연히 이도령을 연상하게 된다. 춘향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도령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춘향을 ‘欽敬’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바인

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원문에서의 ‘외입쟁이’는 이도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듯하다. 때문에 ‘肌膚之親’를 부각시키는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입쟁이’는 이도령이 아니라 춘향을 좋아하는 남자들에 대한 일종의 범칭(泛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⑦

원문: 충효열여 상하 잇소 자상이 듯조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열여 업다흐니 낫낫치 알외리다(55쪽)
역문:爲何忠孝節烈有上下等級之分呢?您仔細聽聽罷!您把我看成妓生也無所謂,但你說‘妓生無忠孝烈女,且聽我一舉例吧.’(81쪽)

역자가 “기생으로 말합시다.”를 “您把我看成妓生也無所謂”로 곧 “나를 기생으로 봐도 상관없다.”로 번역했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라 해야 한다. 춘향의 이 말은 회계 생원이 “너 갖튼 창기비게 수절이 무어시며 정절이 무엇신다 (중략) 너의 갖튼 창기비게 충열이즌 웨 잇시랴”에 대한 반발이다. 충효와 정절을 잘 지킨 기생들을 예로 들어 그들의 충효절열(忠孝節烈)을 강조한 말인 것이다. “나를 기생으로 보아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생을 예로 들고 말합시다.(就拿妓女來說吧)”라는 뜻이다.

그 외에 개별의 역사적인 용어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나 적절하지 못한 번역들도 있다. 예를 들면, 역본에서는 퇴기(退妓)를 종량(從良)과 퇴휴(退休)로 번역했다.

⑧

원문: 잇쎬 절나도 남원부의 월미라 하난 기생이 잇스되 삼남의 명기로서 일직 퇴기호야 성가라 호는 양반을 다리고 세월을 보니되...(1쪽)
역문: 全羅道南原府有一名妓月梅, 早年艷聲雀噪三南(南韓三道), 不過現已從良, 隨從一位兩班階級(即士大夫階級尊稱)之成姓官員同居...(1쪽)

⑨

원문: 기생 점고 다 되야도 춘향은 안 부르니 퇴기야 (50쪽)
역문: 點查妓生幾乎完畢, 沒有聽到你叫春香, 春香是否已退休了 (75쪽)

중국 역사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량(從良)은 노비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도 쓰이지만 기생의 경우에는 기생이 더 이상 기생으로서 살지 않고, 기방에서 벗어나 어떤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곧 종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생어미한테 몸을 속출(贖出)하는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만 종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퇴기’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거나 남자의 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¹³⁾ 월매가 성참판과 같이 사는 것도 성참판의 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청(守廳)만 드는 것이다. 월매가 성참판과 같이 사는 것도 성참판의 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청(守廳)만 드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13) 여기서 말하는 ‘종량’과 ‘퇴기’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차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과 한국 역사에서의 기생제도는 모두 깊이 있는 연구를 요하며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 필자가 아는 바로 거칠게 설명하자면 중국 역사에서 관기(官妓)의 경우, 기생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대개 ‘낙적(落籍)’과 ‘종량(從良)’의 두 가지가 있다. ‘낙적’은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빼는 것이고 ‘종량’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다. 중국에서 종량은 낙적의 방식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퇴기’는 ‘낙적’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한편, 중국의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기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관기(官妓)가 아니라 사기(私妓), 사기 중에서도 왕공귀족 집안에 속한 가기(家妓)가 아니라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한 기생이다. 그들의 소속은 관아가 아니라 기생집의 주인인 기생어미이다. 이와 달리 한국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기생들이 대부분 관기(官妓)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월매 역시도 관기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있긴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퇴기’를 ‘퇴휴(退休)’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라 해야 한다. ‘退休’라는 단어는 ‘정년 퇴직하다’의 뜻으로 ‘오랜 동안 어떤 일을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춘향이 이미 퇴휴했느냐?(春香是否已退休了)”라는 번역은 용어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용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도 있다. 주로 나라명이나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에서 나온 용어들이다. 작품의 맨 처음에 “大韓李氏王朝, 自肅宗大王即位之後”라는 문장이 나오고, 오작교의 경치를 묘사할 때 “大韓風景”이라는 말이 나오며, 황릉묘(黃陵廟)에서 진주(晉州) 명기 논개(論介)를 소개할 때 “論介系日軍侵韓時, 抗暴守節之名妓.”라는 설명도 나온다. ‘大韓’이나 ‘日軍侵韓’라는 말은 모두 시간적으로 잘못된 용어들이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근대에 들어온 후에야 생긴 나라이름이기 때문이다. ‘大韓’을 대신에 ‘조선’, ‘日軍’을 대신에 ‘왜군’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외에도 “너도 나무 집 귀한 딸이로다.”를 “汝亦是貴家之女也” 곧 “너도 귀한 집의 딸이로다.”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수식어의 위치를 잘못 붙인 번역이다. 원문의 뜻은 춘향이 귀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 남의 집의 귀한 딸이라는 것이다. “나 죽난 줄 모르난가?”는 “怎麼不來爲我死呢?” 곧 “왜 나를 위해 죽기로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곧 죽을 것을 모르느냐?”라는 뜻이다.

그리고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안 맞는 번역도 많아 보인다. 예를 들면 춘향이 ‘자탄가’를 하면서 ‘천연이 도라안자 여보 도련임~’라는 부분에서 역자가 ‘천연’을 ‘安然’으로 번역했다. ‘안연’은 ‘안심하다, 염려가 없다. / 평안하다, 안정하다’의 뜻이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울면서 ‘자탄가’를 한 춘향이 ‘安然’히 돌아왔을 리가 없다. 여기서 ‘천연’은 ‘淒然’으로 번역하면 당시의 분위기를 더 적절하게 표현할 것이다. 또한 역자는 이도령이 떠난 후에 ‘이때 춘향이 하릴없서 자든 침방으로 들어가서’라는 부분에서 ‘하릴없서’를 ‘百無聊賴’로 번역했다. ‘百無聊賴’는 ‘무료하기 짝이 없다. 심심하기 그지없다. 무척 따분하다.’의 뜻이다. 이는 물론 당시 춘향의 심정과 상당히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리고 번역자의 실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춘향전>에서 유명한 ‘십장가’가 중역본에서 ‘杖을 맞다.’는 것 대신에 ‘뺨을 때리다(掌嘴)’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번역에만杖으로 치는 형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 모두 ‘뺨을 때리다’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앞에서 제시한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36소절의 소재목은 ‘十杖哀歌’이다. 그리고 역본에서 사령들이 ‘곤장(棍杖)’과 ‘태장(笞杖)’을 고르는 내용도 나왔는데 역문에서 왜 ‘뺨을 때리다.’로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3. 고어와 현대어의 혼용

허세욱 역본에는 고어와 현대어의 혼용이 많다. 예를 들면 이도령의 아버지가 등장할 때 ‘아버지’는 ‘부친(父親)’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적절한 번역이다. 그러나 춘향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는 ‘마마(媽媽)’로 번역되었다. 중국의 고전소설에서나 희극에서 등장하는 ‘마마(媽媽)’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생의 어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머니나 일반 중년 여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마마’를 ‘어머니’의 뜻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온 이후의 일이다. 고전 문학작품에서는 보통 ‘모친(母親)’이나 ‘낭(娘)’을 사용한다. 한편 춘향 어머니가 춘향을 부르는 ‘아가’는 ‘소보(小寶)’로 번역되었다. 필자가 조사해 보았는데 대만에서 ‘소보’는 한 가족 안에서 어린 사내아이를 부르는 애칭(愛稱)이다. 그리고 이런 애칭도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물론 역자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번역본의 대부분은 고문이기 때문이다. 단 이런 고어의 사용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 역자가 비록 작품의 고전적인 정취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로 볼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작품에서 고전작품으로서의 정취와 어울리지 않는 용어 및 문장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고어로 되어 있는 문장

에서 현대어가 갑자기 등장하는 몇몇 예문이다.

- ① 香丹啊，**風力**忽然強了，我有點頭昏目眩，快拉住秋千繩吧。(9쪽) (風力 - 풍력)
- ② 堂上有高華之白衣夫人，輕揮玉手，**表示歡迎**。(95쪽) (表示歡迎 - 환영을 표시하다)
- ③ 你是春香嗎？**真可愛**。日前瑤池有會，當時許多人曾提起你的**事蹟**。(95쪽)
(真可愛 - 참 귀엽다. 事蹟 - 사적)
- ④ 她因爲不聽**官方的**守廳**要求**，刑杖幾至於死。(111쪽) (官方的 - 관방적. 要求 - 요구)
- ⑤ 而少了楊少遊**男主角**，爲誰在坐呢？(116쪽) (男主角 - 남 주역)
- ⑥ 而少爺爲何**失敗到這種地步**呢？(123쪽) (失敗到這種地步 - 이 지경까지 실패했다.)

이상 밑줄 친 부분은 모두 현대 중국어이다. 이런 용어들은 <춘향전>이라는 고전소설의 전체적인 문화적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다. 고어와 현대어에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은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화현상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문학작품 특히 고전문학작품에 언어는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언어자체가 예술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서 현대어로 고어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고어의 풍미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춘향전>의 중역본들은 각기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나 1956년 역본과 2010년 역본이 상대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다. 이 역본들과 비교해보면 허세욱 역본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역문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¹⁴⁾

3.4. 골계와 해학의 약화

골계와 해학은 <춘향전>을 비롯한 판소리계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런 골계와 해학은 민중들의 낙천적인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듣거나 읽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춘향전>에서는 비록 춘향의 고난과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들도 많지만 전체로 볼 때 고난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 낙관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골계와 해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순 한국어를 직역하면 뜻을 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장 내부에 담고 있는 미묘한 정서를 절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목낭청이 말하는 “정승을 못하오면 장승이라도 되지요.”에서 나오는 ‘정승’과 ‘장승’을 직역하면 원문에서 발음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해학적인 풍미를 역문에서는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춘향모가 “네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한나 시려 왔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서방’과 ‘남방’도 마찬가지로 직역하면 원문의 정취(情趣)를 잃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 중국 속어에 대한 지식이다.¹⁵⁾

사또가 사람을 보내 목낭청을 부르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서 목낭청은 아주 골계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그가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문: 낭청이 드러오난되 이 양반이 엇지 고리게 싱계던지 만지 거름속한지 근심이 담썩 드러던 거시었다
(17쪽)

14) 지면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제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역본 간의 비교를 후속 연구로 미루겠다.

15) 필자가 현재까지 조사한 <춘향전>의 모든 역본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한 역본이 없다. 번역하기가 어려워서인지 대부분 역본에서 ‘서방인지 남방인지’의 말을 번역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식을 취했다.

역문: 廊廳進來, 他爲人十分固執, 所以行步也快, 看來好像很愁悶的樣子.(23쪽)

우선 역자는 ‘고리게 생기던지’를 ‘爲人十分固執’로, 곧 ‘사람됨이 아주 고집하다’로 번역했다. 이는 역자의 나름의 의역(意譯)이라 볼 수 있으나 ‘고리다’의 ‘하는 짓이 더럽고 지지분하다. /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의심스럽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거름 속한지’를 ‘걸음도 빠르다’로 번역했는데 이는 이가원(李家源)과 조윤제(趙潤濟)의 주석을 참고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두 학자가 모두 ‘거름 속하다’를 ‘거름 속(速)하다’로 해석했기 때문이다.¹⁶⁾ 역문은 ‘낭청이 들어왔는데, 그의 사람됨이 아주 고집하고, 걸음도 아주 빠르며, 수심이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다. 전체로 볼 때 원문에서의 목낭청의 골계적인 인물형상을 역문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번역했다는 느낌이 든다. 한편 번역문에서 나타난 목낭청의 골계적인 인물형상의 약화는 그와 사또의 대화에서도 계속된다. 목낭청은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또의 말뜻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지여부지간(知與不知間)’에 사또의 말을 따르기만 한다. 결국은 아무 생각도 없이 “정승을 못하오면 장승이라도 되지요.”라는 말까지 한다. 사또의 꾸짖음을 들어어도 “대답은 하여싸오나 뉘 말린지 몰나요.”라고 한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형상이다. 그러나 역자가 “대답은 하여싸오나 뉘 말린지 몰나요.”를 “隨口而說, 並不指他而言.(그냥 해 본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라며 꾸짖음을 들은 후에 곧바로 정신을 차리는 형식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한 결과, 목낭청의 해학적인 형상이 많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전체의 생동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도령과 방자가 처음 춘향집에 찾아갈 때 춘향이 긴장해서 말을 거꾸로 하는 ‘도련임이 방지 모시고 오셔쨌오’라는 말도 독자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자는 이 문장을 ‘房子陪少爺來了(방자가 도령님을 모시고 오셔따오)’로 번역했다. 곧 말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런 역문에서 춘향의 긴장된 모습과 말을 거꾸로 하는 웃기는 모습이 모두 표현되지 못했다. 그 이외에 낙춘(落春)에 대한 묘사와 어사출도 후에 관리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장면에 대한 묘사도 원문의 골계와 해학을 생동하게 재현하지는 못했다. 어사출도 후에 관리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보자.

원문: 좌수 별감 녀슬 일코 이방 호장 실흔호고 삼식나줄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 인케 일코 과절 들고 병부 일코 송편 들고 탕근 일코 용수 쓰고 갓 일코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뉘기 부서진니 거문고요 췌지나니 북 장고라 본관이 쏙을 싸고 명석 궁기 시양쥐 눈뜨 듯호고 니아로 드러가셔 어 추위라 문 드러온다 바람 다더라 물 마른다 목 되려라 (83쪽)

역문: 座首, 別監, 吏房, 戶長都失魂落魄, 三色羅卒, 都在奔走. 各邑守令們正在逃亡, 丟棄了印櫃但帶了油菓, 遺失了兵符帶帶了松餅, 丟棄了宍巾戴上了荀子, 丟棄了冠帽但帶上了小盤, 掬著刀皮而解著手. 絃琴破裂, 杖鼓折斷. 府使屁滾尿流, 蒿席縫中老鼠一般, 溜進了內衙. “唉! 冷死了! 門來閉住風吧! 水渴拿口來吧!” (131쪽)

역자가 원문에서 ‘~일코(일고), ~들고’의 문장을 ‘丟棄了~帶上了~’의 형식으로 직역했다. 그러나 실제로 ‘~일코(일고), ~들고’의 문장은 ‘~대신에 ~잘못 들고’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인케 일코 과절 들고’의

16) 낭청이 드러오난디 이 양반이 엇지 ㉠ 고리게 생기던지만지 ㉡ 거름 속(速)한지 근심이 담속 들어던 거시였다. / ㉠ 하는 짓이 잘고 세차지 않아 코리탐탐한 것. ㉡ 걸음. 行步, 무슨 큰 事件이나 난 듯이 걸음을 빨리 걸음. 이가원, 앞의 논문, 84쪽, 각주 14, 16번.

郎廳이 들어오는데 이 兩班이 엇지 고리게 생겼던지 만지 걸음 속한지 근심이 담속 들어던 것이였다.

조윤제, 《陶南趙潤濟全集》六, 東國文化社, 1989, 50쪽.

한편 김현용이 ‘거름속한지’를 ‘꺼림칙하다’로 보기도 한다.

성기수, 앞의 책, 각주 133번 재인용. ‘뭇지 꺼림칙한지’ (김현룡의 주석).

뜻은 ‘인케 대신에 과절을 잘못 들고’라는 뜻이다. 역문에서도 이렇게 번역해야만 원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곧 ‘인케 일코 과절 들고’를 ‘把果盒當成了印匣’ 혹은 ‘錯拿了果盒當印匣’로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긴 문장보다 짧은 문장이 더욱 장면의 혼란함과 사람들의 당황함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 추워라, 문 드러온다, 바람 다더라. 물 마른다, 목 되러라.”라는 구절은 원문에서도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역문에서는 “문 드러온다, 바람 다더라.”를 하나의 문장 “門來閉住風吧!”로 번역했고, “물 마른다, 목 되러라.”를 하나의 문장 “水渴拿口來吧!”로 번역했다. 이런 번역에서는 우선 변학도가 말을 잘못된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다. 문장구조가 이상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의 짧은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합친 것도 변학도의 정신이 없는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원문의 짧은 문장을 그대로 짧게 번역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곧 “문 드러온다, 바람 다더라. 물 마른다, 목 되러라.”를 “門吹進來了, 趕快關上風啊. 水渴了, 趕快拿些嚙子來.”로 번역하면 의사전달이 훨씬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거꾸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설명을 붙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4. 허세욱 역본의 가치와 한계

〈춘향전〉은 한국 고전소설의 대표작품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본이 있다. 번역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춘향전〉을 번역대상으로 선택한 일자체가 〈춘향전〉의 문학적 가치와 한국 문학사에서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춘향전〉의 타국어 번역본은 내용이나 문학작품으로서의 질(質)로 볼 때 상당히 거칠다. 이는 〈춘향전〉의 역본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중국 고전소설의 타국어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다.¹⁷⁾ 낯선 동양의 문학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독자들하고 대면해야만 하는, 이런 ‘난감한 시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춘향전〉의 경우에는 최초의 일본어역본부터 이후에 영어·프랑스어(베트남어)¹⁸⁾·러시아어·중국어 등 역본이 두루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본들은 대개 〈춘향전〉이라는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만 그쳤다. 그리고 이런 ‘나름의 방식’에는 지나친 개작이 포함되어 있다.¹⁹⁾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17) 중국고전소설 외국어번역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 참고할 수 있다.

劉勇強, 〈中國古代小說域外傳播的幾個問題〉①, 《北京論壇》, 文明的和諧與共同繁榮-對人類文明方式的思考: “世界格局中的中華文明”, 國學論壇, 2006.

_____, 〈中國古代小說域外傳播的幾個問題〉②,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 2007.

曹振江, 〈淺談漢英古典小說翻譯中的必然損失〉, 《青年文學家》9, 2012.

黨爭勝, 〈中國古典代表小說在國外的譯介與影響〉, 《外國語文》29, 2013.

宋麗娟·孫遜, 〈“中學西傳”與中國古典小說的早期翻譯(1735-1911)-以英語世界爲中心〉, 《中國社會科學》6, 2009.

18)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춘향전〉의 베트남어역본이 프랑스어역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이 있다.

전상욱, 앞의 논문, 2010.

19) 〈춘향전〉의 일본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의 역본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西岡健治, 앞의 논문.

吳俞鮮, 앞의 논문.

전상욱, 위의 논문.

엄순천,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개별작품의 수용 사례 분석〉, 《한국시베리아연구》6,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김윤식, 〈〈춘향전〉의 특수성과 세계화의 가능성〉, 《내가 살아온 한국 현대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2009.

문화나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동·서양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처럼 같은 문화권에 속한 나라 사이에도 흔히 존재한다. 역본의 독자들이 역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문화적인 전통을 따라 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작업이고, 또한 좋은 번역방식이기도 한다. 허세욱의 경우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원작을 거의 모두 직역(直譯)했을 정도로 충실하게 번역했다. 다만 중국어 표현능력에 있어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원작의 문학적·예술적인 매력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원작의 내용을 적실하게 번역했고 내용에 대한 왜곡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춘향전>의 내용을 개작한 다른 나라의 역본과 비교하면 중국어 역본은 역사적·문화적인 친연성(親緣性) 때문에 원작의 내용과 사상을 적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춘향전>의 다른 타국어 역본보다는 원작의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비교적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허세욱 역본은 현재까지 대만에서 발견된 <춘향전>의 유일한 역본이다. <춘향전>을 번역할 당시는 역자가 아직 유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춘향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로 한 결정은 역자가 자국문학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뿐만 아니라, 대만독자들에게 이런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 열정과 책임감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중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런 작업에 착수한 것은 연구자로서의 열정과 용기가 대단했음을 의미한다. 역본의 질(質)을 떠나서 역자의 이러한 학자로서의 태도를 우선 높이 평가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중국어, 특히 고전적인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역자가 자신의 ‘자국식(自國式) 중국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외국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언어는 소설의 유일한 표현수단이기도 하다. 소설의 모든 구성요소, 소설에 담고 있는 인물의 감정과 사상 등은 모두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의 질(質)은 언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는 섬세한 감정이나 진실한 사상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허세욱의 <춘향전> 역본에 대한 논의는 역자의 열정과 그에 미치지 못 하는 표현능력, <춘향전> 원작의 가치와 역작의 평범함 사이의 갈등을 고려하면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역자의 번역수준과 역본의 질(質)에 대한 평가 또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연구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본에 대한 연구가 심중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만 번역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개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점점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에는 이미 <춘향전> 역본이 많이 존재한다. 번역의 수준이 각각 다르지만 역본들은 각기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본들을 충분히 참고하면 나중에 훌륭한 역본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허세욱 역본은 대만의 독자들에게 <춘향전>을 비롯한 한국 고전소설을 접촉하는 문을 열어주고, 나중에 더 훌륭한 역본의 출현과 함께 다른 한국의 고전소설이 대만에서 유입되고 전파되는 데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다. 이는 이 역본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번역 작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작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역문으로 원문의 뜻을 유창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Marianne Lederer의 정의를 참고하면 번역은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 다음, 이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재현’하는 것이다.²⁰⁾ 이런 정의를 토대로 비추어 보면 허세욱의 원작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재현’하는 데는 역부족인 곳이 많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번역가 엄복(嚴復, 1854~1921)이 제시한 번역의 신(信)·달(達)·아(雅)²¹⁾의 기준으로 보면 허세욱 역본은 신(信)의 정도에만 도달한다고 할 수 있다. 허세욱의 역본은 비록 원본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했지만 역문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언어의 문제보다는 이 작품이 고전소설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작품의 앞에 실려 있는 「〈春香傳〉考釋」이라는 논문의 문장은 아주 순수하고 유창하다. 역자가 익숙한 학술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잘 번역된 것이다. 한편 역자는 중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시적인 언어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제의 중점은 언어라기보다는 작품의 ‘고전’적 성격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²²⁾ 물론 언어의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 언어의 문제보다 작품의 고전적인 성격을 재현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본에서의 어색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자가 고전적인 용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그리고 본문의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자는 원문을 ‘직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직역을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일종의 ‘기계적인 번역’이 되는 위험도 있다. 번역자가 비록 중국어 구사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로 구비하고 있었으나 고전적인 소설의 언어, 곧 중국 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언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문에서 원작의 고전적인 풍미를 재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역본을 통해 고전소설을 번역하는 작업은 절대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시 한 번 전술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번역의 질(質)과 이 역본의 의미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고전소설을 타국어로 번역할 때 첫 번째의 역본이 바로 완벽하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오역과 적절하지 못한 번역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하면 나중에 나올 역본이 점점 나아지고, 최종적으로 훌륭한 역본의 출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967년 허세욱 역본이 출판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대만에서 〈춘향전〉의 새로운 역본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세욱 역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필자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피상적이거나 허세욱 역본의 번역양상과 특징을 검토해보았다. 부족한 글이지만 ‘포전인옥(拋磚引玉)’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필자가 갖고 있는 계획은 〈춘향전〉의 모든 역본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허세욱 역본의 특징과 양상에 대해 고찰한 본고는 〈춘향전〉의 중국에서의 번역과 개작에 대한 연구 중 하나로 수행한 것이다. 다른 역본과의 비교와 모든 역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이런 기초 작업을 완성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미진한 논의는 후속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20) Marianne Lederer, 전성기 옮김, 《번역의 오늘 (해석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3쪽.

21) 엄복이 제기한 ‘신’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달’은 역문이 순탄해야 한다는 것이며, ‘아’는 표현이 옛스러우면서 우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해, 《中韓번역 이론과 기교》, 국학자료원, 2002, 33쪽.

22) 현재 중국에서 번역되고 출판된 한국의 문학작품이 95%이상 현대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고전작품 번역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번역자라도 고전작품을 번역하는 작업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많다. 한 나라의 고전적인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능력은 절대 단순히 ‘외국어 전공’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경제적인 요소도 외면할 수 없다.

< 參考文獻 >

자료:

- 성기수, (원문영인 및 주석) 《춘향전》, 글솜대, 2005.
허세옥, 《春香傳》, 臺灣商務印書館, 1967
이가원, 〈春香傳註釋〉, 《李家源全集》 17, 정음사, 1986.
조윤제, 〈校註春香傳〉, 《陶南趙潤濟全集》 六, 東國文化社, 1989.
김사업, (校註解題) 《春香傳: 열녀춘향주절가》, 大洋出版社, 1962.

논문과 단행본:

- 오륜선, 《韓國 古小說 英譯의 樣相과 意義》,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전상옥, 〈완관 〈춘향전〉의 변모양상과 의미 -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6, 판소리학회, 2008.
전상옥, 〈프랑스판 춘향전의 개작양상과 후대적 변모〉, 《열상고전연구》 32, 2010.
西岡健治, 〈일본에서의 〈춘향전〉 번역의 초기양상 - 桃水野史譯 《鷄林情話春香傳》 대상으로 -〉, 《어문론총》 제 41호, 2004.
이용해, 《中韓번역 이론과 기교》, 국학자료원, 2002.
Marianne Lederer, 전성기 옮김, 《번역의 오늘 (해석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劉勇強, 〈中國古代小說域外傳播的幾個問題〉 ①, 《北京論壇》, 文明的和諧與共同繁榮-對人類文明方式的思考: “世界格局中的中華文明”, 國學論壇, 2006.
_____, 〈中國古代小說域外傳播的幾個問題〉 ②, 《上海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5, 2007.
宋麗娟·孫遜, 〈“中學西傳”與中國古典小說的早期翻譯 (1735-1911) -以英語世界爲中心〉, 《中國社會科學》 6, 2009.
曹振江, 〈淺談漢英古典小說翻譯中的必然損失〉, 《青年文學家》 9, 2012.
黨爭勝, 〈中國古典代表小說在國外的譯介與影響〉, 《外國語文》 29, 2013.

< ABSTRACT >

A study of a Chinese translation of 〈ChunXiang Zhuan(춘향전)〉 by Xu Shixu

WANG FEIYAN

This paper aims a study of a Chinese translation of 〈ChunXiang Zhuan(춘향전)〉 by Xu Shixu. There are many translated versions of 〈ChunXiang Zhuan(춘향전)〉 in China, but in Taiwan, Xu's translation is the only one. Even though Xu has a high proficiency of Chinese as a foreigner, there are still many mistranslation and awkward expressions in his book, through which we can recognize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his translation. Also, the classical Chinese and modern Chinese was mixed together in his book, which destructed the classic atmosphere of this story.

But, in spite of the issues mentioned above, we can still feel the rhythmic in his book as the translator worked very hard to keep the musical character of Pansori(판소리), even though he did not express the taste of humor and witty of Pansori well. It's very hard for a foreigner to use Chinese, especially classical Chinese well, so we have to say that Xu might really tried his best. The translation errors we learned from Xu's book can help us recognize how to revise it and make some improvements. Thus we could expect a better translation version of 〈ChunXiang Zhuan(춘향전)〉 in the future.

KEYWORDS: 〈ChunXiang Zhuan(춘향전)〉, Chinese translation, Xu Shixu, Pansori(판소리), mistranslation.

<현대문학>

1.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2. 정지용 시의 근대의식과 도시적 감수성
3. 읽기·말하기·쓰기를 연계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독서와 토론> 강의사례를 중심으로
4. 한국현대 소설에 나타난 문신의 유형과 그 의미

1. 분단현실과 탈북디아스포라 문학
 - 1-1. 탈북작가와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
 - 1-2.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에 대한 최근 연구사 검토
 - 1-3. 연구대상 선정과 연구방법론
2. 증언과 고발문학으로서 탈북서사
3. 『청춘연가』에 나타난 탈북자의식
 - 3-1. 탈북자의 양가적 감정 - 선화의 경우
 - 3-2. 일방적 동화의 거부감과 탈북자의 자존감 - 복녀의 경우
 - 3-3. 동화 욕망과 자본주의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결여 - 경옥의 경우
4. 『청춘연가』가 보여주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5. 탈북자는 말할 수 있는가

1. 분단현실과 탈북디아스포라 문학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디아스포라’¹⁾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장 속에 이주민, 유민, 난민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이제 세계사적 관심사가 되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이산離散 유대인’을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여러 요인으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이산인, 이주민들을 지칭하는 보편화된 기호가 되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띠면서도 동시에 한 국가, 하나의 민족이 가진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포함한다.

본고는 한민족의 탈북 디아스포라들을 형상화한 문학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이 지닌 집단성과 정치성 등을 고찰하였다. ‘북한이탈’과 ‘월남’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개별적이고 민족적인 현상으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95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난 탈북자들은 한국은 물론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미국, 서유럽 등지로 흩어져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이후 북한정권이 중국 접변의 국경지역의 경계를 강화함에 따라 탈북증가율은 일시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 중 남한으로 유입된 사람들은 2013년 현재 2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 주민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이들과 섞여 살아가야만 한다. 우리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이산’과 ‘월남’ 경험을 갖고 있는 직·간접적인 디아스포라들이다. 지금의 ‘탈북’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월남’이 그랬듯 한민족의식의 한 단면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월남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듯 탈북과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은 바라보는 자의 시선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면화되어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북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재 탈북자 소설의 현황과 문제점은 물론 탈북서사에 담긴 다양하고 집단적인 탈북자 의식을 도출하려 하였다.

1) 지금까지의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는 재외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시대, 한국전쟁기를 걸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의든 타의든 해외에 흩어져 살았던 일본, 중국, 러시아의 유민들과 이주민들은 물론 미국과 유럽, 동남아 이민자들에 대한 고찰은 그동안 ‘코리아 디아스포라’란 이름으로 연구되어왔다.

본고가 소설장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서사형식이 작가의 구체적 현실인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 속 가상현실과 인물들을 실제 현실과 저자로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공적인 문학적 형상화를 전제할 경우, 소설 속 가상현실과 작중인물들은 오히려 실제보다 더욱 전형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 탈북자가 주체가 된 소설 속의 담론과 의식구조 분석은 북한 이탈주민의 의식지향을 밝혀내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작업이다.

1-1. 탈북 작가와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

현재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은 ‘탈북’을 배경으로 탈북자를 대상화하고 있는 한국기성작가들의 작품과 탈북자가 주체가 되어 창작된 작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탈 주민(이후 탈북자로 호칭)의 탈북 과정과 유랑의 경험, 뿌리내리기 과정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국 내 기성작가의 작품들로는 박덕규의 『고양이 살리기』(청동거울, 2005.), 강영숙의 『리나』,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황석영의 『바리데기』, (창비, 2007.)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 (실천문학, 2008.) 정도상의 『찔레꽃』, (창비, 2008.)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 (아이엘앤피, 2008.) 강희진의 『유령』(은행나무, 2011.), 조재진의 『로기완을 만났다』(창비, 2011), 윤정은의 『오래된 약속』(양철북, 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제 3국 작가의 소설이나 기자, 탈북 조력자들이 쓴 취재기록이나 르뽀 등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되고 있다. 제프 탈라리고의 『다시 그 강가에 서다』(소수출판사, 2009.), 이학준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쌤앤파커스, 2012.)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뿌리내리기 과정을 형상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로 하여 한국 사회의 불모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작가가 지닌 정치적 성향이나 이데올로기 양상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펼쳐진다.

가령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가 남북한의 대결구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면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나 강희진의 『유령』은 탈북자에 대한 비유적 묘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분법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권리나 강희진은 게임이나 환상 등의 소설적 장치를 통해 무겁게만 느껴졌던 탈북자담론을 열린 상상력으로 풀어나간다. 이들은 탈북자의 출구 찾기의 과정을 통해 분단 현실이 가져온 공고화된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길 종용한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기성작가의 상반된 시선은 이들의 남한 정착과정을 형상화하는 방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의에 의해 월경했지만 인신매매로 인해 탈북자 신세로 전락한 ‘충심’(정도상, 『찔레꽃』)이 정착 이후에도 북한을 그리워하는 장면은 북한의 참상을 고발하며 한국사회와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표창숙’(이대환, 『큰 돈과 콘돔』)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윤정은의 『오래된 약속』(양철북, 2012)은 탈북 동기나 배경에 따라 상이한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뿌리내리기 양상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능한 배제한 채 탈북자들의 다양한 내면 묘사에 힘쓰고 있다. 소설 속 탈북자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긍정적 인물(강만금의 경우)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때론 교활하고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부정적 인물로 거침없이 묘사된다. 소설 속 송옥란, 김민규, 리옥주, 조학수, 박철이 등은 탈북목적이나 전력(前歷)의 상이함으로 다양한 탈북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소설에는 남한사회와 탈북 조력자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경계와 의

심의 눈초리 또한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

황석영의 『바리데기』(창비, 2007)와 강영숙의 『리나』(랜덤 하우스, 2006), 제프 탈라리고의 『다시 그 강가에 서다』(소수출판사, 2009) 등은 ‘탈북자’의 사회 역사적 의미를 세계화의 그늘에 놓여진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들의 소설에서 ‘탈북자’는 국지적이고 민족적인 특수성을 넘어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아래 버려지고 소외된 약소민족의 보편적 문제로 확대된다. 또한 조재진의 『로기완을 만났다』(창비, 2011)처럼 탈북자를 매개로 현대인이 지닌 보편적 소외의식과 이에 수반하는 죄의식의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탈북자들의 사회적 정체성 혼란과 뿌리내리기 고통이 현재 한국 사회의 하위주체가 지닌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작가들의 문학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 78회 국제 펜대회(경주, 2012.9.)에 장해성, 김성민, 림일, 도명학, 김영순 등 8명의 탈북작가가 동참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탈북자 서사의 고발, 증언의 성격만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문학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역효과도 일어나고 있다.

탈북작가의 소설들로는 김대호의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상.하권, 북치는 마을, 2004), 리지명, 『삶은 어디에』(아이엘앤피, 2008), 김유경의 『청춘연가』(웅진씽크빅, 2012), 장해성의 『두만강』(나남출판, 2013) 등이 주목을 끈다.

이들 탈북자 소설의 표면적 특징은 극적인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분출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서사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자기체험의 강렬함으로 인해 고발의 성격을 띠는 수기의 형태³⁾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경험이 집단적, 사회적 의식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주관적이고 생생한 논픽션의 목소리가 작품 표면에 거칠게 드러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탈북자 문학의 수기적이고 고발적 성격은 소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전소설 또는 고발소설, 체험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다.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민감하고도 정치적인 소재를 남성적인 문체로 고발하고 있는 김대호⁴⁾의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상.하권, 북치는 마을, 2004)와 중국 국경의 삶이 배경이 되고 있는 리지명⁵⁾의 『삶은 어

2) 졸고,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문화콘텐츠 연구 2 호, 문화콘텐츠 기술 연구원, 2009, 135쪽.

3) 탈북자 서사에서 수기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강철환의 『수용소의 노래- 평양의 여항(북한 정치범 수용소 체험수기)』(시대정신, 2003.), 최진이,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북하우스, 2005.), 김혜숙, 『인간이고 싶다』, (에세이 퍼블리싱, 2009.) 등을 비롯하여 자기체험을 쓴 다수의 수기가 있다. 잘 알려진 시집으로는 장진성,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조감제닷컴, 2008.) 탈북자, 『별거벗은 시의 고백』(리빙박스, 2004.) 등이 있다.

4) 김대호는 1987년 이후 원자력 공업부 남천 화학연합기업소에 근무하고 1992년에는 핵 개발 자금(710호 자금) 확보를 위한 외화벌이 채취대 대장으로 활동하다 1994년 망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창작 후기를 통해 북한의 핵 야욕 실상을 세계와 한국에 고발하기 위해 여만철 가족 등과 함께 남한으로 귀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설에 담긴 선명한 정치적 색채는 자발적인 탈북 동기와 월남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가상의 남북통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쓰여진 『동방의 독수리』(북치는 마을, 2012.)는 탈북자가 지닌 정치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5) 리지명은 1984년 조선작가 동맹 후보 맹원, 1992년 정맹원으로 활동한 경력의 북한 정작가 출신이다. 그는 부농 집안이라는 출신성분의 제약으로 소외된 삶을 살다가 1998년 탈북을 감행, 월남한다. 소설, 『삶은 어디에』는 북한에서의 글쓰기 습관으로 북한에서 쓰는 생경한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북한 사회의 실상을 짙진감 있게 묘사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한다. 압록강 군부대를 배경으로 최문기, 춘희, 한태규, 김행우, 강기수, 장신미, 리영식 등 북한 군부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마약밀매 등 암약과 음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북한 사회의 부패된 실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탈북과정인 아닌 북한에서의 생활, 그것도 ‘고난의 행군’시기, 국경 근처의 군부대를 배경으로 한 복수극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디에』(아이엘애플, 2008.)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고발형식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요덕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강철환의 체험수기, 『수용소의 노래- 평양의 어항(북한 정치범 수용소 체험수기)』⁶⁾(시대정신, 2003.)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탈북자 문학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필명을 사용하거나 익명의 저자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탈북'의 꼬리표를 벗어던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은 자신의 전력이 밝혀지기를 꺼려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⁷⁾ 하지만 이들의 문학에서 이전의 작가로서의 이력이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한에서 활동하던 많은 기성문인들은 월남 이후에도 문학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선작가동맹의 일원이었던 최진이, 리지명, 장진성, 김유경(가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무엇보다 탈북자중 여성비율이 3분의 2를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탈북여성작가들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최진의의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⁸⁾(북하우스, 2005.)나 김혜숙의 『인간이고 싶다』(에세이 퍼블리싱, 2009.), 김유경의 소설, 『청춘연가』(웅진씽크빅, 2012.)는 탈북과 정착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억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탈북여성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낸 대표적 작품들이다.

1-2. 탈북디아스포라 소설에 대한 최근 연구사 검토

최근에는 창작활동만큼이나 탈북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탈북자 문학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와 경향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세용의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 이탈 주민 창작 소설 연구」(『한중인문학연구』 35집,

- 6) 북한전략센터 대표인 강철환의 『수용소의 노래』는 저자가 직접 겪은 요덕 수용소에서의 궁핍하고 처절했던 삶과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핏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수기는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국했지만 자본주의 잔재를 버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한 재일 북송 교포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7) 하지만 일부 시집들과 수기들은 신원이 노출되기 꺼려하는 북한 이탈자들의 속성상 익명과 가명으로 발표되어 신뢰성이나 문학성에 흠집을 남기기도 한다. '탈북자'란 이름으로 발표된 『벌거벗은 시의 고백』(리빙북스, 2004.)은 '벌거벗은'이란 시의 표제가 상징하듯 시와 함께 곳곳에 누드 사진이 담겨 있다. 이는 '고백'의 의미와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가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대부분의 시편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진하게 묻어나긴 하지만 정제된 감정 표현이 아쉽다.
- 8)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는 작가가 어떤 이유로 북한문단에서 추방당하고 가정으로부터 이탈하여 월남하게 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자신이 속한 탈북자 집단의 의식지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4부 '남녘 땅에 밥상을 차리고'에는 자신의 뿌리내리기 과정은 물론 주변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 과정을 탈북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어 탈북자의식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탈북자를 위한 변론'에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북한 문학작품과 작가에 대하여'에서는 북한문학을 단순화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문단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북한의 문학작품에 대한 소개(북한 1호 문학작품의 다양한 특성 제시, p.321.)와 가치평가는 물론 북한문단을 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9) 이밖에 탈북자에 대한 최근의 담론으로는 이경재의 「네이션과 2000년대 한국소설」(문학수첩, 2009. 겨울호), 백지연의 「타자의 인식과 공공성의 성찰」(창작과 비평, 2009. 겨울호),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다문화콘텐츠연구 2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 정도상 짚레꽃, 이대환 큰돈과 큰돈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 제 40집, 2009.12.),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52집, 2009.8. 한국문학회),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김원일과 정도상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56집, 한국문학회, 2010. 12.), 「탈북자 소설에 드러나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51집, 한국문학회, 2009.4.) 등이 있다.

2012. 4.)는 탈북자 문학을 질 들뢰즈와 펠릭스 카타리의 ‘소수집단의 문학’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성희의 「탈북 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우리말글』 제 56집, 2012. 12.)는 정도상의 『찔레꽃』과 박덕규의 『고양이 살리기』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 과정과 탈북자들의 긍정적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한다. 호네트의 ‘인정 투쟁’처럼 탈북자들이 남한의 부당한 대우에 인정투쟁을 거쳐 한국사회에 비판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고인환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한민족 문화연구』 제 39집, 2012. 2.)는 이들 소설 속에서 ‘탈북디아스포라’가 대상이 아닌 서술 주체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재는 「현안의 탈북자 소설의 성찰」(『한국문학의 성찰과 재조명』, 학고방, 2013.)에서 탈북서사의 좌경화에 우려를 표한다. 논자는 ‘북한의 폭정에 눈감으면 안된다.’며 탈북자문학을 바라보는 좌우편향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또한 김은하는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찔레꽃』, 『바리데기』를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55집, 2010.8.)을 통해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탈북자 소재의 소설에 담긴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한다.

탈북문학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단행본으로는 기존의 탈북문학의 연구성과를 모은 박덕규·이성희 편저의 『탈북 디아스포라』(푸른 사상사, 2012.)와 탈북자의 실제 인터뷰와 탈북소재 영화를 분석한 김성경·오영숙 공저의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상』(문화과학사, 2013.) 등이 있다.

1-3. 연구대상 선정과 연구방법론

이상의 탈북디아스포라문학은 탈북자가 대상이 된 서사와 탈북자 주체의 서사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의 경우, 탈북자가 지닌 내면의 균열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피상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기성작가들의 탈북서사들이 탈북디아스포라의 보편적 특성을 담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탈북자 내부의 집단 의식과 정치성 등을 형상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이유다.

반면 탈북자 주체의 자기서사는 그 체험의 강렬함으로 인하여 대부분 수기형식을 취함으로써 내용의 단순함을 표출한다. 이는 탈북자의 자기 서사의 욕망이 한국 사회가 탈북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로 제한되어 드러난 결과다. 하지만 대부분 탈북자의 수기문학은 개별적 자기 체험에 대한 사실의 재현에 치우친 나머지 자신은 물론 여타의 탈북자들이 지닌 다양한 의식지향을 객관적으로 서사화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북자의 이러한 자기중심의 서사가 탈북의 과정이나 뿌리내리기 과정은 보여주지 못한 채 떠나온 북한현실이나 정권에 대한 고발에 그치고 있어 탈북자가 지닌 다양한 의식지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혜숙의 『인간이고 싶다』와 최진이의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는 이전 탈북서사와는 달리 자신의 남한 정착과정과 탈북자의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에세이 또한 개인사에 대한 사실적 전달에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탈북자 전형과 탈북자 의식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탈북자의식의 다양성과 탈북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김유경¹⁰⁾의 『청춘연가』에 이르러서다. 『청춘연가』는 탈북자의 다양한 뿌리내리기 과정과 새로운

10) 김유경(가명)은 평양 출신으로 조선작가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2000년에 탈북하여 한국에 뿌리내리기를 시도한다. 공인이기에 한국뿌리내리기가 그 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명을 감춘 채 김유경이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였음을 짐

정체성 찾기를 허구적 인물의 다성적 목소리를 통해 처음으로 소설화하고 있다.

본고는 『청춘연가』의 담론과 인물분석을 통해 탈북자의 집단의식과 전형성(Typicality)을 도출하려 애썼다. 이는 소설 속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현실대응 방식이 저자와 저자가 속한 집단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본고는 단순한 반영론을 넘어서기 위해 소설 속 담론의 미세한 틈새도 실증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탈북자의식의 자립적, 집단적 형성은 사회, 역사적인 관계망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 구성된다. 본고는 탈북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객관적 규명을 위해 루카치나 루시앙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적 방법을 차용하였다. 또한 가야트리 스피박과 존 베벌리의 하위주체 개념에 기대어 탈북디아스포라의 보편성과 집단의식을 고찰하고 탈북자소설의 증언문학적 성격을 재고해 보았다. 나아가 소설 속에 나타난 탈북자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소수집단의 문학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2. 증언과 고발문학으로서 탈북서사

탈북자를 단순히 대상으로 하는 탈북서사보다는 탈북자가 주체가 된 문학이 탈북자의 현실을 보다 찰진하게 형상화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존 탈북자 주체의 서사 또한 자기 체험의 강렬함으로 인해 자신과 주위의 탈북자들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사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서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북한시절과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이들의 길지 않는 남한 정착 기간과 탈북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탈북자 수용소를 경험한 김혜숙의 다음 토로는 끔찍했던 당시 경험에 대한 증언과 고발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보여준다.

기억하자, 비록 펜과 연필은 없어도 잊지 않게 머리에 쓰자.

설야! 네 머리가 컴퓨터일 수도 없고 온갖 수난에 이제는 작은 기억마저도 가물거리지만 그래도 잊을 만할 때마다 열 번 백번이라도 더욱 곱씹어 저장하면 되지 않는가?

꼭 살아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비록 그 세상도 냉정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려야 지옥 같은 쥐구멍에도 해가 비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¹¹⁾

하지만 이러한 자기서사의 욕망은 ‘사회,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주변을 역사화하는 증언’¹²⁾서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기 서술의 서사가 대부분 객관적인 시선을 담보하지 못한 채 고발의 현재성과 절박함으로 고발문학의 차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한계를 느낀다.

왜 앞선 작가들이 그 모든 것을 판타지로밖에 끌고 갈 수 없었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들이 적어 내려간 소설과 수필들을 보면서 적절치 못하고 리얼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나는 정말

작할 수 있다.

11) 김혜숙 『인간이고 싶다』, 에세이 퍼블리싱, 274쪽.

12) 정찬영, 『한국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49쪽. 정찬영은 사실을 중시한 기록문학에 일기, 자서전, 회고록, 수기문학 등을, 상상력의 문학에 역사소설, 사회소설 등으로 대별한다. 또 그 사이에 사실과 허구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증언문학을 구분한다. (같은 책, 24쪽.)

로 잘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해 본다.¹³⁾

이처럼 이들 탈북자들의 서사는 자신의 고난사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들의 특수한 경험은 분단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철저히 사실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앞선’¹⁴⁾ 증언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서사는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인칭 서술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문학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사실 탈북의 경험을 재현하려는 욕망은 『청춘연가』에도 드러난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다듬어 소설을 집필하도록 나의 등을 떠민 것은 내 고향 사람들의 수난이었다. 너무도 비참해 스스로도 부끄러운 삶의 설움이 저도 몰래 터져 나왔다. 다만 이 소설은 고통의 일부만을 그렸다. 아픔의 조금만을 꾸밈하였다.”(『청춘연가』 작가의 말, 316쪽.) 라는 작가의 토로는 경험의 강렬함이 자연스럽게 서사로 분출되는 과정을 말해준다.

하지만 『청춘연가』의 변별점은 이전의 기록문학과는 달리 소설의 미학적 측면과 허구성을 바탕으로 탈북자의식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려는 증언문학의 성격을 보여준다는데 있다. 작가는 자신은 물론 탈북의 경험을 공유한 여타의 증언자들의 집단적 의식을 다성적인 목소리로 담아내기 시작한다. 소설이란 장르적 특성은 『청춘연가』가 탈북자로서의 자기 성찰은 물론 탈북자의식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해준다. 소설 형식은 에세이나 수기와 달리 허구성에 기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검열이 심한 탈북자의 압박감을 덜어준다. 또한 다성적 인물형의 형상화를 통해 작가와 작가가 속한 집단의 집단적의식(탈북자의식)과 작중인물의 전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탈북서사가 사회·역사적 의미로 확대되기 위해선 형식보다 사적 증언을 넘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의식지향을 창출¹⁶⁾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언소설의 경우 사실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가 ‘실제 사실인가 아닌가’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나 ‘핍진하고 총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¹⁷⁾ 그러므로 단순히 탈북작가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가 속한 탈북자 집단의 의식지향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를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가의식이 절실하다.

이를 염두에 두면 과거 월남민의식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호철의 소설들을 전범으로 삼을 수 있다. 지금도 분단체제와 자신의 월남민의식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호철은 탈북자 주체의 소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탈향」, 「탈각」, 「세 원형 소묘」, 「판문점」, 「이산타령 친족 타령」 등을 통해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월남민 집단의 의식지향의 변화양상¹⁸⁾을 그려낸다. 그가 소설을 통해 창출한 월남민의

13) 김혜숙, 앞의 책, 245~246쪽.

14) 정찬영, 앞의 책, 49쪽.

15) ‘일기, 수기 자서전, 회고록 등의 수기 문학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연대기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증언문학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중심이 되며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관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접근 방법을 이용’(정찬영, 『한국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31쪽.)한다는 점도 탈북서사의 수기문학적 특성을 말해준다.

16) 『나, 리고베르타 멘추』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리고베르타 멘추는 이 소설은 ‘나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민중에 대한 증언이다’(존 베벌리, 박정원 역, 『하위 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175쪽.)라고 주장한다. 증언자의 이러한 의식적 발언은 증언소설이 지녀야만 하는 집단성과 전형성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17) 리고베르타 멘추 또한 자신의 남동생의 처형에 대한 서술의 논란에서 보여주듯 자신의 이야기가 가 공되었음을 인정한다.(같은 쪽.)

18) 「탈향」의 ‘나’와 ‘하원’, 두찬’, ‘광석’은 월남 후 다양한 남한 정착과정과 월남민의 복잡한 심리를, 「

전형들은 ‘한국전쟁’과 ‘월남’의 강렬한 생체험에서 벗어나 월남민 집단의 의식지향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설 속 월남민의식의 다양성과 전형성은 이후 월남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탈북작가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처럼 현실반영의 총체성과 인물의 전형성, 대표성의 확보는 증언소설의 성패를 좌우한다. 『청춘연가』는 탈북자의식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을 창출함으로써 탈북서사의 총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3. 『청춘연가』에 나타난 탈북자의식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한국내 소수집단을 형성한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탈북자 집단의 보편성과 탈북동기와 배경이 따라 상이하게 펼쳐지는 개별성 사이에서 진동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청춘연가』는 이와같은 탈북자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과정을 탈북주체의 입장에서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춘연가』에 등장하는 정선화와 복녀, 경옥은 각각의 위치에서 탈북자 의식의 다양한 실체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 하나원 동기들은 남한 정착 이후에도 배정받은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남한 내 탈북자로서 집단의를 공유한다. 또한 주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정선화를 사이에 두고 복녀와 경옥은 서로 상반된 탈북자의식의 개별성을 보여준다. 이들 주변의 성철이나 강화영, 미선네 등의 탈북자들도 서로 다른 뿌리내리기를 보여주면서도 ‘탈향’의 결핍을 메우는 관계들로 설정된다.

3-1. 탈북자의 양가적 감정 - 선화의 경우

주인공 정선화는 대학교수였던 아버지를 좇아 자신도 교원생활을 하며 북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시기 갑작스럽게 가정이 몰락하면서 병든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중국 농가로 팔려간다. 하지만 매매혼으로 맺어진 중국의 시댁과 남편은 선화를 인간이하의 대우를 하며 핍박한다. 남편 형제의 운간과 감금은 선화가 딸 메이밍을 낳을 때까지 계속된다. 선화에게 이와 같은 과거는 부정하고 싶은 고통의 기억으로 각인된다. 선화의 토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전신을 으깨던 치욕과 고통의 나날들이 전혀 없었던 듯, 순간의 악몽에 불과했던 듯, 그렇게 과거가 없는 여자가 될 수 있다면 ”(『청춘연가』, 9쪽.)은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지닌 탈북자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탈북자들이 경계를 넘어 겪게 되는 인권유린과 폭압적 현실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회피의식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녀가 탈북 이후에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죄의식과 상처는 중국 농가에서의 성적 유린 끝에 남겨진 딸, ‘메이밍’으로 상징화된다. 선화가 병으로 누운 어머니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스스로 매매혼에 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중국에 남겨놓은 ‘메이밍’은 북한에 홀로 남겨져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어머니’(고향)에 대한 죄의식을 상기하게 하는 존재다. 자신을 품어주지 못한 고향에 대한 증오만큼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절연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세 원형 소묘의 ‘전상동’, ‘영어선생’, ‘나’는 각각 ‘해방 직후 월남민’과 ‘1948년 월남민’, ‘전쟁기 월남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양한 월남민집단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그려낸 결과다. (졸고, ‘전후 월남 작가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133쪽.)

탈북자들에게 죄의식으로 표출된다. 선화의 ‘메이밍’에 대한 모순된 감정,- ‘한국말은 한마디도 할 모르는 딸, 그녀가 그 지옥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던 원수 같은 딸’ (『청춘연가』, 10쪽.)/ ‘모성애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닌가 보다.’(『청춘연가』, 11쪽.)- 은 고통으로 대면키 싫지만 외면하기도 불가능한 고향에 대한 탈북자의 애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처럼 탈북자들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귀소본능¹⁹⁾만큼이나 고향으로 인한 삶의 불모성과 공포감으로 고향을 거부하는 양가감정²⁰⁾을 가진다. ‘그 세상으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었다.’(『청춘연가』, 17쪽.)는 이와같은 탈북자의 양가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선화’는 이처럼 과거의 나를 온전히 보존할 수도, 그렇다고 과거의 나를 지운 채 새롭게 새터에 동화할 수도 없는 탈북자의 모호하고 불완전한 정체성을 함축한 인물이다. 이러한 탈북자의 과거에 대한 은밀하고 모호한 양가감정은 과거를 증오나 고발의 형태로 전면(前面)화되거나, 그리움과 죄의식의 내면을 은밀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나는 자유 세상으로 왔지만 스스로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명은 물론 나의 과거 행적을 밝힐 수 없으며 숨어서 손만 간신히 내밀고 세상에 이 소설을 보낸다. 그것은 나의 몸 절반이 아직도 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픔은 늘 함께 존재한다. 그렇게 북한은 여전히 나를 옥죄다. (『청춘연가』, 작가의 말, 318쪽.)

『청춘연가』는 탈북자로서 김유경이 지닌 과거에 대한 드러냄과 은둔에의 양가적 욕망이 서사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선화를 통해 북한 정권과 탈북과정의 준 고통과 분노를 날 것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탈북자 이면의 양가적 감정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화는 남한사회에 동화해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도, 복제되듯 동화되고픈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같은 맥락에서 선화는 탈북작가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체성 찾기의 복잡하고 양면적인 내면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선화에게서 북한 출신의 작가로만 호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항하면서도, 남한의 작가로 거듭나고픈 작가의 욕망을 읽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3-2. 일방적 동화애의 거부감과 탈북자의 자존감 - 복녀의 경우

『청춘연가』의 복녀는 힘든 탈북 과정을 겪으면서도 중국에서 낳은 딸과 함께 남한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복녀는 비

19) 북한시절 정선화의 학교제자였던 탈북자 성철의 선화에 대한 사랑도 이같은 고향에 대한 회귀의식과 맞닿아 있다. 탈북 후 외롭게 살아온 성철에게 남으로 넘어온 선화는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 여겼던 고향과 유년의 현현(appearance)이다.

20) 이와같은 고향에 대한 양가감정은 과거 월남작가들의 서사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탈향이란 뿌리뽑힘의 경험과 함께 북한 내 가부장적 권위의 무너짐을 확인하는 최진이나 김혜숙의 탈북 서사는 전쟁기 상흔과 월남후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박완서의 소설을 떠올리게 한다. 등단작 『나무』은 가부장적 사회에 짓눌렸던 여성들이 가부장적 그늘이 황망히 벗겨졌을 때 지니게 되는 그리움과 증오의 양가적 감정을 적나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살기 위해 쫓겨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에 대한 애증의 감정은 월남과 탈북 체험의 소설 속에 공존한다. 과거의 월남민과 최근 탈북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고향의식의 양가성은 한민족만이 지닌 독특한 디아스포라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교적 현실에 만족하며 탈북자들이 지닌 죄의식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친동기와 같은 선화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주관으로 당당하게 남한 정착에 성공한다.

“난 죽어두 한국말 흉내는 못 내겠습네, 북한 사람이라는 거 숨길 거 뭐 있수?”

복녀는 몇 번 따라해 보더니 도리머리를 지었다. (『청춘연가』, 59쪽.)

복녀는 음식점 점원에서 출발하여 결국엔 음식점을 인수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복녀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북한 순대를 새로운 메뉴로 개발하는 등 탈북자임을 창피해 하지고 숨기지도 않는다. 복녀는 중국인 사이에서 낳은 딸, 청이를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혈육으로 인정하는데, 이는 과거에 대한 선화의 대응과 대조적이다.

이와같이 탈북자로서 자신의 이력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남한 정착에 성공하는 인물로 박애란 기사를 꼽을 수 있다. 선화의 방송국 선배인 박애란은 북한군 대대장 출신이라는 전력을 강한 자존감으로 표출한다. 그녀는 남한 사회가 탈북자에게 던지는 일방적 편견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한다. 북한 출신들을 무시하는 태도의 이동화 PD와 벌이는 직장 내 신경전은 사선을 넘어 왔다는 탈북자의 강한 자존감을 보여준다. 박애란 기사는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낸다.

“우선 제일 맘에 안 드는거. 끼리끼리 사람 가림 너무 하는 거야. 잘난 사람, 있는 사람만 사람이구. 저 북쪽으로 말하면 줄기 없는 사람은 애초에 사람값에 들기 힘들더라고, 남한 토박이들끼리도 그렇게 장벽을 만들고 경계를 하는데 굴러온 돌인 탈북자들이야 오죽하겠시오? (『청춘연가』, 231쪽.)

“나 말이요. 이젠 한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살았는데 옆집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시오. - 중략 -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난다니까. 동네도 그래, 사회도 그래” (『청춘연가』, 232쪽.)

『청춘연가』에 담긴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담론은 남북을 동시에 경험한 경계인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탈북자서사와 변별된다. 하지만 이와같은 소설 속 탈북자의 비판의식은 남한 사회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청춘연가』는 남한사회의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탈북자들이 지닌 남한사회에 대한 상대적 편견과 오해를 드러낸다.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행위가 일관성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한가지라도 더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고마워, 그녀들은 거듭 인사를 했다. -중략- “에구 요건 그저, 형사님. 정말 감사하다.”(『청춘연가』, 93쪽.)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상식과 자본주의 논리를 간단히 가르쳐 준다. 배우는 내용을 떠나서 그저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는 것이 좋다. 이때만큼은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진다. (『청춘연가』, 12쪽.)

하나원에서 나온 선화나 복녀, 경옥 등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담당형사들의 친절에 과거 강압적이었던 북한보위부원과 비교하며 감동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남한인에 대한 상대적 열패감이 자본주의와 남한 체제에 대한 맹목적 신임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결국 남

한 체제에 복속하고 남한인을 모방하는 것만이 가장 성공적 뿌리내리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응 맞아. 슈퍼마켓. 참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싫다잉. 왜 상점이라는 좋은 말을 두고 슈핀지 슈핀지 하는 이상한 말을 쓰메”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문화와 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겠어요. 우리야 그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 부르는 수밖에요.”(『청춘연가』, 100쪽.)

이동화 PD와 날을 세우던 박애란 기자가 이동화 PD의 친절하 행동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남한사회 내 소수집단인 탈북자의 위상과 비애를 보여준다.

또한 탈북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은 듯 보이던 복녀도 선화의 배필로 같은 처지의 탈북자인 성철을 탐탁지 않게 여김으로써 내면에 숨긴 남한사회에 대한 동화 욕망을 드러낸다. 이는 복녀가 온전히 남한인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동화를 일찌감치 포기한 것일 뿐, 동화예의 욕망은 다른 탈북자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같은 탈북자의 자기보존과 동화의 상반된 욕망은 뿌리내리기 양상만큼이나 복잡한 형태로 은밀하게 서사화된다. 이들은 탈북자로서의 자의식을 생경하게 드러내며 남한사회의 소수집단적 특성을 보여주다가도 과거의 나를 지우고 남한인처럼 살아가기를 욕망한다.

3-3. 동화 욕망과 자본주의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결여 - 경옥의 경우

『청춘연가』의 ‘경옥’은 선화. 복녀와는 또다른 남한 내 탈북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경옥은 정체성의 혼란과 과거의 고통에서 방황하는 다른 탈북자들과는 달리 과감하게 남한 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과거의 나’와 과감히 절연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화욕망을 서슴지 않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복녀와도 대조적이다. 하나원에서 경옥은 탈북자의 표식이랄 수 있는 북한어투를 재빨리 버리고 남한의 언어를 습득한다. 북한에서도 가장 하위계층에 속했던 경옥은 목숨을 연명하고자 중국으로 월경하지만 인신매매에 걸려들어 노래방을 전전한다. 이 와중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월남 후 출산한 아이를 어렵지 않게 입양 보내는 모습은 선화나 복녀가 보여주는 모성애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출산 후 아이보다는 몸매가 망가질까 걱정하고 성형에 매달리는 경옥의 모습에서 어느 곳에서든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하위계층의 극단적 자기방어를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경옥’의 인물형이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탈북자 서사에서 금기시되었던 자본에 대한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동기의 대부분이 궁핍과 기아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탈북자들의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북서사에서 탈북자들의 돈에 대한 욕망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이는 오랫동안 각인된 자본 추구에 대한 윤리적 죄의식과 함께 ‘돈’을 쫓아 탈북한 것이 아니라는 반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급격히 윤리가 붕괴된 북한사회에서 오히려 돈의 위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또한 중국에서의 매매혼과 인신매매 등 자본의 가장 비인간적인 면을 체험한 대다수 탈북자에게 있어 자본은 탈북과 정착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으로 인식된다.

경옥 또한 남한사회에서의 생존이 돈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중국에서의 노래방 생활을 통해 선험적으로 체득한다. 하나원에서 벌어졌던 경옥과 또다른 탈북자인 미선의 싸움은

출신성분과 자본에 의해 갈라졌던 북한 내 계층의 갈등이 정착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내 고위계층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하다 비교적 손쉽게 탈북한 미선과 달리 어느 곳에서든 하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경옥에게 돈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온다. 경옥은 남한사회에 진입해서도 노래방과 매춘행위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버는 방식으로 뿌리내리기를 시도한다. 소설 속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과 중국에서의 교환가치로 가능하며 뿌듯해 하는 장면은 자본의 부재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내해야만 했던 이들의 설움과 트라우마를 짐작케 한다.

여기서 문제는 경옥이, 자신은 물론 북한에서 경옥모가 불가항력적으로 매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모순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인식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비인격화(Entpersonalisierung)²¹⁾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선화나 복녀 등 다른 여성탈북자들도 마찬가지다. 선화나 복녀 등은 경옥의 매춘행위를 윤리적으로 비난하지만 결국엔 묵인하고 만다.²²⁾ 이들에게는 경제행위 자체가 힘들었던 북한과 중국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국사회는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이처럼 『청춘연가』는 탈북자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 재식민화되는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 모습의 탈북자를 형상화하지 못한다. 탈북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탈북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침해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아래 억압받는 여성하위주체의 보편성과 연결된다. 하지만 작가는 돈에 의한 경옥의 몰락을 자본주의의 생태학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의 윤리의식과 무지로 돌린다. 이는 북한의 실상과 비교하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폐해는 상대적으로 묵인할만한 것이라는 안일한 현실인식의 표출로 비춰질 수 있어 문제적이다. 탈북자집단 내에서도 하위계층에 속하는 경옥에 대한 이러한 소설적 재현은 탈북자집단 내에서의 작가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언론을 확보한 탈북작가의 경우 왜곡된 탈북자상을 허물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식지향을 올바르게 이끌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³⁾

하지만 작가의 이같은 서사전략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청춘연가』의 ‘경옥’ 등이 보여주는 ‘자본’에 대한 거침없는 욕망은 오히려 탈북자의식의 한 단면이 솔직하게 표현된 것은 아닐까. 경옥의 자본주의로의 침잠은 북한의 하위주체가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남한 정착 후에도 여전히 하위주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보여준다.

4. ‘청춘연가’가 보여주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탈북자주체의 서사문학은 이처럼 탈북자들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반영하면서 남북한의 서사문학과는 구별되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현재적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한

21) 김태원, 『집협의 사회학』, 한국학술정보, 2007, 157쪽.

22) 음식집 주인이 된 복녀가 경옥에게 150만원을 제시하며 같이 일하자는 장면은 흥미롭다. 이같은 제안에 경옥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노래방에서 3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거절하는데 이에 선화와 복녀는 반박하지 못한다.

23) 가야트리 스피박은 ‘하위주체가 우리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경청하도록 이끌린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위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존 베벌리, 박정원 역,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160쪽.) 이는 서술자와 재현자가 증언의 왜곡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국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욕망을 드러낸다. 탈북자들의 재영토화는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 속에 양산된 디아스포라의 보편적 특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탈북디아스포라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너’와 ‘나’가 구분된 대립적 관계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탈북자서사에 담긴 탈영토화의 모습은 우선 언어에서 드러난다. 탈북자 주체의 서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북한어투의 표현은 탈북서사를 한국의 다른 서사와 구별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북 후에는 동일화의 욕망으로 북한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남한의 언어를 취득함으로써 재영토화를 꿈꾸기도 한다. 결국 이들의 서사는 남북한 언어가 혼용된 경계적 위치에 놓인다. 물론 탈북자 서사에 담긴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언어적 혼용에는 탈북자들이 갖는 정체성의 혼란이 내재되어 있다. 『청춘연가』에도 탈북자집단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복합적이고 경계적인 서사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우선 필명으로 출판된 것과 ‘청춘연가’라는 제목이 주는 생경함은 이 소설이 지닌 북한문학으로부터의 연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춘연가란 제목의 명명법은 남대현의 『청춘송가』(문예출판사, 1987.)와 『통일련가』(문학예술출판사, 2003.)의 교묘한 결합으로 보인다. 『청춘송가』는 혁명화로 인해 황해 제철소 용해공 생활체험을 했던 작가 남대현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 숨은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반면에 『통일련가』는 비전향장기수 고광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청춘연가』가 탈북여성의 북에서 남으로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통일련가』는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배경으로 남에서 북으로 전개된다. 『통일련가』에는 나이차를 극복한 남한의 비전향 장기수와 북한 여성인 옥이의 사랑이, 『청춘송가』에는 진호와 현옥, 정아와 기철 사이의 사랑과 갈등이 부조화되고 있다는 점은 선화와 성철의 사랑이 배경이 되고 있는 『청춘연가』와의 구조적 상동성을 드러낸다.²⁴⁾ 창작방법론에 있어서도 현실의 반영을 중시하는 리얼리즘 방법론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청춘연가』는 북한소설의 맥을 잇고 있다. 작가양성반이나 문학예술 출판사 기자, 작가동맹 맹원 등의 이력을 지니고 있는 탈북문인들의 서사에는 이같은 북한에서 받았던 정규문학수업의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청춘연가』에는 작가가 서술화자로 등장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러한 설명 담론은 이 소설을 낯설게 만드는 탈북서사만의 경계적 특성이다.

‘남한에 노동재해에 보상하는 제도가 있듯이 북한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에 불과하다. 일단 노동재해로 죽는 사람에 한 해 장례를 치러주고 소량의 식량을 주는 것 외에는 전혀 보상이 없다. 죽은 자의 가족과 불구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한 사람당 300그램의 식량과 한 달 60원의 보조금을 주는데...’(『청춘연가』, 111쪽.)

하지만 『청춘연가』는 이같은 탈영토화된 특성만큼이나 남한 내 재영토화를 꿈꾸는 작가의 욕망을 보여준다. 『청춘연가』의 경우 이전의 탈북자 서사²⁵⁾와는 달리 북한 어투의 언어를 지

24) 『청춘연가』에 보이는 북한 소설가 남대현의 영향은 김유경이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듯 김훈과의 연관성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유경은 작가의 말에서 창작과 출판에 있어 도움을 준 김훈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2005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작가회의에서 만난 김훈과 남대현은 서울 돈암초등학교 동창임을 확인한다.

25) 권세영은 탈북서사의 언어가 보여주는 탈영토화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철원의 『평교』의 경우처럼 대화는 북한어로, 내면심리와 소설은 남한어로 뚜렷히 대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철우의 『솔롱고, 그 연인의 나라』의 경우처럼 대화의 종결어미 부분에서만 단편적으로 북한어투가 나오며 전반적으로 남한어로 된 작품 또한 있다.’(권세영, 「소수집단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연구

양하고 남한의 언어와 문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탈북자의 모습을 남한의 문법으로 담아 알리고 싶은, 작가의 동일화 욕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가는 이전의 탈북서사들과는 달리 탈북이나 북한시절 보다는 남한 내 정착과정에 주목한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의 동일화 욕망은 탈북청년과 남한여성의 결혼이나 탈북자 강화영의 재혼, 탈북자 박애란과 남한출신의 이동화 PD 사이의 갈등해소 등으로 서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탈북자의 ‘우리’를 지향한 새로운 정체성 찾기는 과거의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면서 비로소 온전히 시작된다.

그런데 이젠 그 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딸이 상처를 입을까 봐 비록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대문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간다. 북한 여자라는 것을 숨기느라 전전긍긍하고, 공안의 옷자락만 보아도 간이 콩알만 해지던 그 북조선 여자가 이제는 아니다. (『청춘연가』, 296쪽.)

소설의 결말, 선화가 중국에 남겨두었던 딸 ‘메이밍’을 찾아가는 행위는 선화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에 있어 통과제의적 의미를 지닌다. ‘그 모든 연들이 줄레줄레 중국을 거쳐 북한까지 아득히 뻗어 있다.’(『청춘연가』, 12쪽.) ‘에서 의미하듯 죄의식의 근원인 딸을 만나러 가는 길, 그 끝엔 북한이 놓여있다.’

숲이며 산의 정취가 잠시 중국 땅이라는 것을 잊게 한다. 신통히도 북한의 경치와 같았던 것이다. 북한의 북부 지방에도 여기와 같은 수종들이 살고 있다. 선화는 불현 듯 고향에 가봤으면 하는 생각에 목이 뻐다. 고향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사죄의 절을 하고 싶었다. (『청춘연가』, 297쪽.)

이처럼 선화는 북한으로의 길이 막혀 버린 지금, 중국의 메이밍을 만남으로써 탈북 후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죄의식에서 벗어나려 한다. 운간의 고통 끝에 남겨진 딸은 떠난 북한 땅처럼 선화에게는 마주하기 두려운 고통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녀는 삶의 끝자락에서 탈북자로서 지닐 수밖에 없었던 죄의식과 고향땅에 대한 애증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탈북자들이 과거의 상처에 맨얼굴로 맞서야만 새로운 뿌리내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선화의 쓸쓸한 토로- ‘딸이 상처를 입을까봐 비록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보러 하지만’(『청춘연가』, 296쪽.)- 는 ‘숨어서 손만 간신히 내밀고 이 소설을 보낸다.’(『청춘연가』, 305쪽.)라는 작가의 고백과 교묘히 겹쳐진다.

결국 『청춘연가』는 ‘탈영토화’를 넘어 ‘재영토화’를 꿈꾸는 탈북자서사라 할 수 있다. ‘몰래 숨어서’ 딸을 보고만 오려 했던 선화는 딸과 직접 대면한다. 아프지만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없다면 온전한 ‘현재의 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선화의 정체성 찾기는 ‘우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서로 닮은 선화와 메이밍의 재회에서 서로의 상처를 딛고 대면하는 ‘남’과 ‘북’을 보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한참 울고 나서야 선화는 딸의 팔을 잡고 마주 보았다. 뜻밖에도 선화는 그 애의 약간 도톰하고 반듯한 이마며 맑은 살결이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메이밍의 흘러내린 어깨며 곧고 긴 목이 신통히 자기와 같다는 것도 발견했다. - 중략 - 선화는 더 힘을 주어 딸을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그녀는 굳어진 듯 딸을 안고 있었다. (『청춘연가』, 304쪽.)

1, 한중인문학회, 2012.4. 301쪽.)

5. 탈북자는 말할 수 있는가

이상으로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탈북자 주체의 소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탈북자의식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탈북 후 중국과 한국에서의 뿌리내리기 과정이 탈북의 과정만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탈북작가에 의해 쓰여진 『청춘연가』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정체성 찾기를 서사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청춘연가』는 2만 6천명의 탈북자 중 70%를 차지하는 탈북여성이 탈북과 정착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중, 삼중의 억압을 보여준다. 탈북여성들이 국적없는 유랑민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억압과 착취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던져진 하위 여성 주체의 보편적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부로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들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이들의 목소리가 겹겹의 식민담론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²⁶⁾

탈북에 대한 담론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탈북자들은 분단현실이 낳은 겹겹의 억압을 뚫고 자신들의 집단 의식과 정치성, 재영토화의 욕망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외부의 강압적 시선에서 벗어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탈북자에 대한 기성문단의 관심은 이같은 ‘말걸기 작업’의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사들이 경계해야 할 점은 바라보는 자의 입맛대로 탈북자들의식을 선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탈북자들을 또다시 이분법적 구도 안에 속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스피박이 언급했듯 ‘서발턴 집단의 역사적 재현’이 ‘통치권력이나 권력을 장악한 계급의 시각과 이해 관계에 따라 짜 맞춰’²⁷⁾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탈북자 서사와 담론 또한 남북한의 지배담론에 종속되어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덧붙여 탈북자의 고난사를 매개로 한 탈북서사가 동정심과 생경함을 부추기는 상업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탈북작가들 또한 자신의 서사가 지닌 사회·역사적 반향성에 대해 심각히 고심해야 한다. 초기 탈북서사는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상상초월의 고난사 등을 고발하고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외부로 들리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는 소수집단의 정치적 욕망과 폐쇄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픈 외부의 욕망이 교묘히 맞닿아 가능케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비판이나 탈북과정에 대한 단순한 서사로는 뿌리내리기 과정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탈북자 의식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같은 의미에서 『청춘연가』는 이전의 증언서사와는 달리 소설적 화자를 통해 다양하고 우회적으로 탈북자 집단의 의식지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소설 속 탈북자들이 양쪽 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경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탈북 주체의 서사는 한국 내 소수집단의 일원으로서 탈북자들이 지닌 다양한 의식지향이 지배적인 정치체제 안에서 왜곡²⁸⁾되지 않도록 열린 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26)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543쪽 <역자의 글> 참조.

27) 스티브 모튼,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98쪽.

28)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가 힘을 박탈당한 특정 집단들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발화 행위가 재현의 지배적인 정치체제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인식되지 못한다는 뜻’(같은 책, 126~128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른 ‘서발턴’의 의미를

해선 탈북자 사이의 소통은 물론 한국 내 다른 소수 집단과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의식의 다양하고 솔직한 표출을 위해서는 탈북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세대 탈북작가들의 등장도 필요하다. 남한에서의 문학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탈북자 세대의 등장은 탈북자서사의 내용, 형식적 확대는 물론 남북한 사회에 대한 거리두기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맥락으로 난민에 대한 국제적 정서와는 다르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랑하고 있는 제3국 탈북자들과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

이제 탈북자들의 한국 내 뿌리내리기는 ‘타자’로 남는 것이 아닌 ‘타자-되기’를 통한 ‘우리-되기’²⁹⁾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사회 내 탈북자들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서사화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길 기대해본다.

<기초자료>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 지식하우스, 2012.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상,하), 시대정신, 2003.

김대호,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상,하), 리빙북스, 2001.

- , 『영변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다』(상,하), 복치는 마을, 2004.

김성민, 『고향노래는 늘 슬픈가』, 도서출판 다시, 2003.

김혜숙, 『인간이고 싶다』, 에세이 퍼블리싱, 2009.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앤피, 2008.

장진성,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조갑제닷컴, 2008.

장해성, 『두만강』, 나남출판, 2013.

최진이,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북하우스, 2005.

탈북자, 『별거벗은 시의 고백』, 리빙북스, 2004.

<단행본>

김성경·오영숙,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상』, 문화과학사, 2013.

김승숙, 『소수의 시학』, 한국학술정보, 2009.

김종균·정진아 편,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김태원, 『짐멜의 사회학』, 한국학술정보, 2007.

박덕규·이성희 편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 사상사, 2012.

- , 『내 소설 속의 탈북자들』, 포엠 Q 픽션, 2002.

박명규 외,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1.

이명재, 『한국문학의 성찰과 재조명』, 학교방, 2013.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탈북자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소수집단인 탈북자 담론이 지배적인 남북한 담론 안에서 실제적 의미가 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9)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88쪽.

- 정찬영, 『한국 증언 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 최재철 외, 『소수집단과 소수문학』, 월인, 2005.
-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출판, 2013.
- ,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3.
-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돈의 철학』, 길, 2013.
- 들뢰즈와 가타리, 조한경 역,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2.
- 스티브 모튼,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 존 베벌리, 박정원 역,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논문>

-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제 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2.
- ,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집, 한국문학회, 2009.8.
- 권세영, 「소수집단 문학으로서의 북한 이탈 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회, 2012.4.
-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짚레꽃』,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집, 한국문학회, 2010.8.
-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김원일과 정도상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집, 한국문학회, 2010.12.
- , 「탈북자 소설에 드러나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집, 한국문학회, 2009.4.
- , 「탈북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 56집, 우리말글학회, 2012.12.
-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 정도상 짚레꽃, 이대환 큰돈과 큰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 40집, 2009.12.

- | |
|-------------------|
| 1. 서론 |
| 2. 대도시의 형성과 인식 변화 |
| 3. 도시 감각의 내면화 |
| 4. 화폐 형식의 시적 수용 |
| 5. 결론 |

1. 서론

1930년대의 한국시는 그 언어 형식과 시적 인식의 측면에서 근대성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대성의 구체적인 국면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근대성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복수의 사건이며, 중요한 것은 텍스트 내부에서나 시인의 내면 의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지용의 시는 1930년대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근대성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지용의 시가 드러내는 근대성의 문제를 도시의 형성에 따른 시인의 감각 변화와 그것의 내면화, 그리고 근대를 관통하는 화폐 형식의 시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리 역사에서 1930년대는 근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의 문화가 화폐 형식을 통해 대중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가게 된 것이다. 가시적인 외형적 조건들의 변화에만 주목한다면 그것이 당시 경성이라는 도시의 물리적인 범위 안에 한정되었다거나, 심지어 경성의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에 외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변화들 그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화폐의 형식을 고려한다는 것은 근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심리적-문화적 관계들의 근본적 차원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외부적 현상들, 예를 들어 대도시적인 공간의 탄생이나 백화점, 카페 문화 그리고 대중적인 유행 등은 모두 화폐의 형식에서 비롯된 리듬을 따르는 동시대의 문화적인 흐름 전체와 동일한 맥락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정지용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급변하고 있던 삶의 조건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단순히 기법적인 차원으로 모더니즘적 인식을 받아들였다기보다 실제 근대적인 것(modernity)을 감각하고 자신의 삶과 문학의 영역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정지용의 문학을 문예사조적인 차원에서 그 성과를 논의하기보다 당시 변모되는 삶의 조건들 이면에 자리 잡은 근대적인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지용의 문학에 나타나는 공간인식에 대한 새로움을 대도시로 급변하고 있던 당시의 경성과 위상학적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화폐의 운동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지용으로 대변되는 당시 모더니즘의 수용과 확장이 단순히 서구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양식의 실험이라는 평가를 넘어 당대 전반을 아우르는 근대적 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 대도시의 형성과 인식 변화

현대에까지 이르는 문화사적인 흐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도시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6세기 이후 도시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수십만 명이 넘는 거주자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 즉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문화적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시의 발생과 확장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상품거래가 늘어나면서 보다 용이한 거래를 위한 집중화의 요구가 도시라는 형태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18세기에 오면 각지에 지방 도시들이 점차 생겨나게 된다.¹⁾ 18세기 후반에 오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상인계층의 등장과 더불어 각 시장들이 전국적인 유통망 안으로 편입되고, 그 중심이던 당시 한성은 자연스럽게 대도시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당시 경성은 인구의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1914년 25만 명 정도에서 1925년에는 34만 명, 1935년에는 44만 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면서 대도시로의 가속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²⁾

이처럼 경성이 대도시로 급속하게 변모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로는 일본에 의한 강제 합병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한제국의 주체성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성의 근대 도시화 사업은 일제 주도의 근대화로 이어지면서 소비도시화와 병참기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이중 도시(dual city)’로 발전을 하게 된다.³⁾ 이는 당시 경성 내부에서도 일본인의 거주 지역이었던 남촌과 전통적 거주지였던 북촌의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근대화의 지표로서 우리의 1930년대는 사실 경성에서도 그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경성부의 시설로 일본사람의 만히사는 남촌과 조선사람의 만히 사는 북촌에 대하여 엇더케 구별하는가 이것을 잠간 살펴보건대 위선 남편으로는 한양공원이나 남산공원이나 장충단공원이나 불쇼한 금익을 드러서 설비에 고심하지만은 북부로 말하면 하로 이십사시에 여는 시간보다 닷는 시간이 만흔 총독부 직할의 손바닥갓흔 탑골공원이 하나 잇슬뿐이오

-『동아일보』 1920.5.23. 3면.

近日의 京城街道는 정말 紅塵萬丈이 쯤 十萬丈, 其中에도 鐘路大街가 尤甚, 府란 것이 업슨

1) 『東國文獻備考』에 의하면 영조시대의 시장 수는 1,064곳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행정관부의 소재지인 각 도나 읍, 그리고 연안의 포구를 비롯한 교통의 요지나 물화가 집적되는 鄉市를 거점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수원, 원주, 충주, 공주, 경주, 대구, 안동, 부산, 마산, 목포, 인천, 해주 등이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김호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상품화폐경제 발전에 관한 비교·고찰」, 『경제학논집』 5권1호, 1996. 570~571면.

2) 1935년까지 당시 경성의 면적이 지금 서울시 규모의 1/16 정도인 36.18km²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당시 경성 인구의 높은 밀집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이화,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한길사, 2004. 27면.

3) 일제 주도하의 도시 발전 계획은 필연적으로 경성을 ‘이중 도시’로 발전시켰다. 김백영의 설명에 의하면 이 때문에 경성부가 지리적 형태상으로도 ‘표주박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가 이미 군사기지화한 용산을 예전의 한성 관할지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성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형태가 마치 중심의 외부에 위치한 용산이 전통적 공간이었던 성곽 내부를 감시하는 듯한 표주박 형태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김백영, 「러일전쟁 직후 서울의 식민도시화 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2호, 2005. 106~115면, 136면.

들 이에서 더할라고 曰 물이 얼어서 撒水不能, 曰 豫算不足이 되어서 鋪裝不能, 도대체 終日
가도 步行客五六人이 잇슬락말락한 南村道路에다가 돈을 쳐들었스니 안그럴리가잇나

-『동아일보』 1930.1.21. 1면.

위에서 인용한 두 신문 기사를 보면 경성의 도시화가 10여년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촌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의 이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성이라는 확정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이나,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간의 실질적인 변형·발달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 주체나 목적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대적인 도시로서 합리적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은 이미 경성이 소비자들의 거주지⁴⁾로서 대도시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바르트에 의하면 도시의 거대화는 단순히 상품을 거래하는 상업도시들의 역사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도시화는 본질적으로 소비의 집중에서 기인하는데 이때의 소비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소비, 즉 사치를 의미한다. 사치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사치 행위는 명예욕(Ehrgeiz)과 감각의 즐거움(Sinnenfreude)이라는 두 가지 원동력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측면을 갖는다.⁵⁾ 여기서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후자에서 비롯된 개인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사치이다. 명예욕에서 비롯된 상류계층의 독특한 소비양식인 사치가 그것을 증대시키는 수많은 조건들 역시 끌어 모아 결국 일반적인 생활양식인 소비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가능한 공간적 구성으로서의 도시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감각적으로 즐기는 쾌락을 좇아 눈, 귀, 코, 입 그리고 촉각을 자극하는 방식이 일용품 속에 표현되고, 또 그러한 일용품들이 다시 소비를 자극한다.⁶⁾

이처럼 일상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대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화폐이다. 화폐 유통의 구조에는 본래부터 공간성이 동반된다. 즉, 화폐는 결코 무한정한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 안에서 유통되는 성향을 갖는다. 애초에 두 지역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교환의 당사자들이 교환을 원할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폐는 자신이 매개하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⁷⁾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재고를 처리함으로써 재화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시간'까지도 교환하게 된다. 이는 화폐가 대도시라는 공간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단순히 대칭적인 것들을 교환하는 소재적 차원을 넘어 비대칭적인 것들을 매개하는 근본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⁸⁾

4) 베르너 좀바르트, 이상률 역,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1997. 48면.

5) 위의 책, 142면.

6) 위의 책, 111면.

잘 알려진 대로 마르크스는 이를 '상품'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중국에는 상품에 투여된 노동의 가치를 소외시키는 자본주의의 '물신화' 과정을 비판했다. 이러한 상품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화폐'이다. 그는 화폐를 현실적인 물체형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형태로 보았다.(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I(상)』(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1. 120~158면 참고.)

이처럼 화폐가 가진 비물질성은 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논하고자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定期市 형태가 가장 가까운 예가 될 것이다.

8) 구로다 아키노부는 이를 '화폐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면서 다양한 층위의 시장들이 보여주는 부정합(不整合) 현상이 적극적으로 화폐를 발생시켰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화폐의 기능 덕분에 시장들

보다 단순한 사례를 든다면, 길을 걷다가도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수준의 일상적 소비를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이것이 가능하려면 비계획적이고 순간적인 소비욕구에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액면금액이 아주 소액인 화폐까지 발달해 있어야 하며⁹⁾, 그것과 교환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자극하는 일용품이 생산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일용품은 단순한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특정한 공간 안에서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적 삶과 그것의 결정적 계기인 화폐와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폐에 대한 판단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제외하면 근대형성의 초기부터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더구나 부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물적·경제적인 차원에서 화폐가 그 사용 영역을 넓혀가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 하게 되는 근대적인 현실은 그 확산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반감을 조성하게 된다. 어쩌면 이같은 역설적 상황 역시 화폐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방해해온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때,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적인 삶의 방식과 화폐와의 상관성에 주목한 짐멜의 연구는 화폐를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알려주는 동시에 근대 도시인들의 내면과 문화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미학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리는 화폐 경제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오직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그것이 아무리 고유의 순수한 내재적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화의 모든 동시대적인 움직임들을 규제하는 동일한 리듬을 따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말이다. 모든 문화 과정을 경제적 조건들에 종속 시키는 사적 유물론과는 달리, 화폐에 대한 성찰은 경제적 삶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 모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¹⁰⁾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짐멜은 화폐를 근대 문화 현상의 근본 원인인 동시에 대도시적인 삶의 형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화폐를 매개로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근대를 바라본다. 이렇게 짐멜을 통해서 화폐가 그것이 가장 일반화된 근대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삶의 방식이며, 근대에 새롭게 양식화된 예술 장르 등을 생성하고 확산하는 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¹¹⁾ 물론, 짐멜 역시 화폐가 자연 경제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인격과 물질간의 통합적 관계를 해체하면서 모든 경제 행위에 비인격성을 부여하는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수평화의 비극(tragedy of every levelling process)’이라고 불렀는데, 하지만 이것은 점점 더 광범위한 사회 영역을 창출하면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개인주의가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¹²⁾ 이

역시 보다 거대한 차원의 경제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구로다 아키노부, 정혜중 역, 『화폐시스템의 세계사』, 논형, 2005. 163면, 213~232면 참고.

9) 188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해관세 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일본 제일은행은 1901년부터 국내에서 은행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1904년에는 일본이 발행한 군표 교환 업무를 하면서 50센(錢), 20센, 10센의 소액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제일은행권에 대한 배척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으나 실제 유통액은 점점 늘어났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소액권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한국은행 발권정책팀, 『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 한국은행, 2006. 67~71면.

10) Georg Simmel, *Money in Modern Culture*, translated by Mark Ritter and Sam Whimster, *Theory Culture & Society*, vol.8, 1991. p.30.

11) 이것은 경제적 관점의 화폐 결정론과는 구별된다. 짐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 사회에 널리 퍼진 화폐 형식이 가진 문화적 의의이다.

는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에서 촉발된 근대 모습의 근본적인 차원 속에서 이미 내포 하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을 화폐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짐멜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들이 일종의 교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한 번 흘끔 쳐다보는 행위들까지도 말이다.¹³⁾ 범주상 ‘교환’은 ‘상호작용’보다 더 좁은 개념이지만 문화를 포함하여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르면 교환은 어떤 주체가 이전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소유하게 되거나 이전에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내주는 방식 모두와 연관을 갖는 ‘이중의 사건’이다.¹⁴⁾ 하지만 이같은 교환의 보편적인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것과 관련된 요소들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교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짐멜에게 교환은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 내부의 변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득과 손실 또는 증가와 일상 등 현대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과정들이 주체들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제적 관점 이외에도, 주체들 ‘내부’의 정신적·문화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일반화된 교환의 형식을 통해 이전 시대의 구성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적·내부적으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¹⁵⁾ 이는 또한 노동 분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의 형태인 분업은 교환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등장할 수 없는 형태이다. 교환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가진 수많은 특성들에서 공통의 가치를 추출해 낼 수 없고, 따라서 교환이 가능한 사물들을 생산하기 위한 분업의 방식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을 통해 시작된 분업은 보다 전면적인 분업화를 촉진하고 그에 참여하는 현대인들 모두를 필연적으로 결합시킨다.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노동의 형태로서 분업이 개인의 일면적인 생산을 보충하면서 광범위한 경제 단위를 창출한다. 따라서 교환은 노동의 형태를 분업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를 광범위한 경제단위로 일원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공통적인 수준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한다. 교환으로 마련된 상호 관계의 토대가 그것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행위 규정들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 성립하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¹⁶⁾ 또한, 교환의 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무나 봉사 등을 지불 의무로 단일화시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독립성이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보다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화폐가 가진 계산적 본질은 교환을 통해 삶의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동일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규정하는 정확성과 확실성, 약속과 협정의 명확성이 지배하게 만들었다.¹⁷⁾

12) Ibid., p.21.

13) Georg Simmel, *Philosophy of Money*(Third Enlarged Edition), translated by Tom Bottomore and David Frisby, Routledge, 2004, p.82.

14) Ibid., p.83.

15) 이때 화폐는 상호작용이나 교환이 가장 순수한 형식으로 구체화된 것이기도 하다.

16) op. cit., pp.20-21.

17) Georg Simmel,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edited by Jan Lin & Christopher Mele, *The Urban Sociology Reader*, Routledge, 2005. p.14.

짐멜은 이와 같은 현상의 외적 조건으로 회중시계(pocket watches)의 보급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에 오면 회중시계가 이미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용 회중시계’와 같은 광고(『동아일보』 1921년 10월 7일, 4면)나 ‘일년 간 대구에서 분실물 발생 신고 650여건 중 회중시계나 손목시계가 두 번째로 현금 다음을 차지한다’는 기사(『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3면)는 휴대용 시계에 대한 필요나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폐에서 비롯된 교환의 형식이 사회 내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 도시 감각의 내면화

정지용은 우리 시문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시를 재현하고자 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¹⁸⁾라고도 불리는 정지용은 시작 활동의 초기부터 주목받는 창작활동을 전개해나갔다. 특히 김기림이 “우리 시 속에 현대의 호흡과 맥박을 불어넣은 최초의 시인”¹⁹⁾이라고 했을 때, 정지용의 시 작품들은 도시 문화의 리듬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정지용은 역사현실의 변화에 따른 문학양식 변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자각했던 시인이다. 그의 시들이 근대 문명사회를 구성하는 물질적 분위기와 풍경을 즉물적인 이미지로 포착하고 있는 것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시인의 시적 반응이다. 그는 도시에서 근대문명의 풍경들을 보았으며, 그것들은 결코 재래의 감각으로는 온전하게 재현할 수 없고 오로지 새로운 감각과 시어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시의 소재 차원에서도 종래의 시인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의 시학을 이미지즘 계열로 보는 평가에서도 역시 그가 도시와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할 수 없다. 이는 이미지즘이 눈의 감각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그 시각성의 문제는 도시문화를 통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느으릿 느으릿 한눈 파는 거물에
사랑이 수히 열알어질가도 싶구나.
어린 아이야, 달려가자.
두뺨에 피여오른 어여쁜 불이
일즉 꺼져버리면 어찌 하자니?
줄 다름질 처 가자.
바람은 휘이, 휘잉.
만들 자락에 몸이 떠오를 듯.
눈보라는 풀. 풀.
붕어새끼 피여내는 모이 같다
어린 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뺨안 기관차처럼 달려 가자!

-「새뺨안 機關車」

기계문명, 이국정서 등은 정지용이 관심을 보이는 근대문명과 도시문화의 구체적 장면들 중 하나이다. 주지하듯, 근대 기계문명의 상징인 기차는 위의 작품에서도 반복되면서 근대문명에 대한 정지용의 지향성을 강렬하게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기차로 대변되는 기계문명의 완숙함을 누리기 위해 성장해야 할 시인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현재 사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컨대 시인에게 기계문명은 지지와 기대의 대상인 것이다. 그의 시에서 기차, 배, 비행기, 프로펠러 등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점도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처럼 근대풍경과 새로운 감각의 발견자로 자처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감각의 시를 써야 한다는 자의식이 강했던 정지용은 종종 도시 경험을 피력했다. 그의 이러한 도시 경험은 우선 교토에서의 유학시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8) 유종호, 「現代詩 50年」, 『思想界』, 1962.5. 305면.

19) 김기림, 「1933年 詩壇의 回顧」,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2』, 심설당, 1988. 62면.

① 그 집 陳列場이 좁기는하나 꽤길어서 으리으리한속으로 휘이 한번 돌아나오는 맛이 不愉快할것이 아니었다.

꽃밭이나 대밭을 지난 지음이나 고삿길 산스길을 밟을적 心氣가 딸짜로 다를수 있담녀 가볍고 곱고 칠칠한 비단폭으로 지은 옷이 가진 花草처럼즐비하게 늘어슨 사이를 슬치며 지나자면 그만치 感覺이 바뀔 것이 아닌가.

② 茶房 「고마도리」는 단골로 다니는 손님들의 입이 看板노릇을 하고도 남았다. (...) 상당히 크고도 구석구석이 넉넉하였고 (...) 書齋를 갖지못한이들은 넉넉히 글을 쓸수도 있었고 同人끼리 모히어서 산뜻한 잡지를 꾸밀 의론도 하여든것이였다.

③ 그집의 特色은 차날르는 아이들이였는데 많아야 열네살쯤 된 시약시들이 三四人이 모다 꼭 같은 단발이마에 까만 원피스를 짝르오게 해입히고 역시까만 스타킹이며 까만 신을 가볍게 신기였다.²⁰⁾

위의 글은 도시성의 주요 측면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처음 ①에서는 ‘고마도리’라는 가게의 진열장과 그 진열장 앞으로 돌아다니는 ‘산책’이다. 상품과 진열장 그리고 소비자의 동선을 유도하는 복도의 구성과 체험양식은, 규모만 다를 뿐 도시에서 느끼는 일상적 체험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은 점포의 구성은 도시적 시각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 전체와 점포는 상동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로 제시되면서 새로운 감각의 출처가 되어가는 도시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지용의 말대로 그 복도와 진열장을 보면서 걷는 와중에 일어나는 상품과의 만남이 자신의 감각을 바꾸고 있다는 언급은, 도시 구성 원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감각을 변화시키는 중요요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②부분은 다방의 내부 풍경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일본의 다방이 ‘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방은 작가들이 교류를 하는 장소인 동시에 생산의 거점이기도 하는 등 단순한 상품 교환장소의 성격을 넘어 일종의 문화적 거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축음기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이나 그림 등 서양 문단 사정에 대한 정보의 유통 역시 다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다방의 문화는 근대적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방은 정지용을 비롯한 문인들이 자신의 근대적 도시 감각을 키우는 사교의 장소였던 것이다.

동시에 다방은 도시화의 문제상황을 내포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일본에서처럼 식민지의 경성 역시 다방은 도입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다방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 인구의 증가 때문인데, 즉 대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희박한 인간관계와 대응을 이루고 있다. 다방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합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임시적 관계이다.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잠시 대면 상태에 있다가 금방 흩어지고 만다. 도시인의 무관계성을 구현하는 다방은 전통 사회의 가치관에 얽매인 종래의 인간관계를 벗어나 근대적인 해방감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의 해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바로 다방을 통해 드러나는 도시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짐멜이 예로 들고 있듯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 이같은 경험은 근대 도시 출현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다방뿐만이 아니라 기차, 버스, 전차 그리고 대합실 등의 공간에서 반복된다. 말하자면 우연히 순간적으로 만났다가 흩어지는 ‘거리에서의 만남’이라는 도시문화를 보여주는 기호들인 것이다.

③에서는 다방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각적 쾌락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을 보여준다. 백화

20) 정지용, 「茶房 「고마도리」 안에 연지찍은 색시들」, 『三千里』 96호, 1938.5. 613-616면.

점의 여점원, 버스의 여차장, 박람회 안내원 등 도시에 진출한 여성은 남성의 시선에 일종의 스펙터클로 포착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지용은 다방을 통해 자신의 감각이 이와 같은 도시적 감각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 감각의 내면화 혹은 그것에 기반한 그의 감수성은 이제 도시문화에 대한 높은 동일화의 수준으로 나아간다.

거를 량이면 아스팔트를 밟기로 한다. (...) 아스팔트는 고무밀창보다 징 한 개 박지 않은 우피 그대로 사뭇사뭇 밟아야 쫘득쫘득 받이후는 맛을 알게 된다. 발은 차라리 다이아처럼 굴러간다. 발이 한사코 돌아다니기에 나는 자꼬 끌리운다. (...)

가로수 이팔마다 潑潑하기 물고기 같고 六月 초승 하늘 아래 밋밋한 고층건축들은 衫나무 냄새를 풍긴다. (...) 나는 심히 流暢한 푸로레타리아트! 고무뽕처럼 풍풍 튀기어지며 간다. (...) 풀포기 없어도 종달새가 내려오지 않아도 좋은, 폭신하고 판판하고 만만한 遊牧場 아스팔트! (...) 탁! 탁! 튀는 生麥酒가 瀑布처럼 싱싱한데 黃昏의 서울은 갑자기 膨脹한다. 불을 켜다.

- 「아스팔트」

여기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시인 자신이 도시를 적극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아스팔트는 “쫘득쫘득 받이후는 맛을” 주는 촉감의 대상이며 자신을 그것을 즐기는 “고무뽕”로 나타난다. 특히 “풍풍 튀기어지”는 표현에서 도시를 즐기는 고양된 감정이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시를 즐기는 이런 태도 자체는 자신의 감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삼나무 냄새와 빌딩을 비교하고 있는데서 명확해진다. 시인의 원초적 감각은 삼나무같은 비도시 환경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만큼이나 빌딩으로 함축되는 도시문화에 익숙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발을 ‘다이아(타이어)’로 비유하고 또 그 발이 자꾸 굴러다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다는 표현 역시 도시문화에 대한 몰입을 보여준다.

4. 화폐 형식의 시적 수용

인간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서로 간에 거리를 만든다는 뜻이며, 그 거리를 통해 물질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산다는 뜻인데, 이때 사회란 단순히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제도적 형식을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 관계를 고찰한다는 것은 사회적 생활 속에서 관계의 원리를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짐멜의 경우 그것은 ‘거리화(distance)’의 원리로 나타난다.

주체와 대상, 욕망과 충족이 아직도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낙원이란 개념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에 와서-인용자)해체가 가속화된다. 동시에 다시 재통합될 운명 역시 타고난 것이다.²¹⁾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이 둘에 걸친 직접적 합일 상태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서는 반드시 거리가 생겨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거리를 설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반드시 그 거리를 극복하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관계란 결코 추

21) Georg Simmel, *Fash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2, No.6, 1957, p.75.

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직접성의 균열은 매개라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경험이라면 거리화를 방지하는 움직임 또한 무한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 번 분리된 당사자나 사물을 결합함으로써 결합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의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리화는 관계의 결정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짐멜이 주목한 것 역시 화폐이다. 화폐는 교환의 성격이 가장 순수한 형식으로 구현된 것으로서 상인처럼 교환기능을 가졌으나, 그와는 달리 인격적 특질이나 개인적인 성향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그 자체로 아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화폐는 매 순간 인간과 사물 사이에 삽입되어 인격과 소유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근대 이전의 상호존성을 해체하면서 근대세계의 성격을 확증한다. 다시 말해, 화폐가 순수한 교환기능으로 물화(reification)되면서 인간과 사물 사이의 모든 관계를 매개하고 동시에 거리(distance)를 두게 함으로써, 모든 경제 행위에 미증유의 비인격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와 같은 정도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이다.²²⁾ 가령 화폐에 의한 교역의 거리화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계에 심리적 거리화를 형성하고, 결국 도시 생활이라는 관계의 객관화가 인간의 내면에 한계와 신중함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화폐에 의해서 야기된 매우 밀접하고 불가피한 결합관계는 개체성과 내적 독립성의 폭을 크게 넓히는 독특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전의 모든 경제 시기에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는 했지만 모두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근대로 올수록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자주, 그리고 임의적으로 교체된다. 모든 특징인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 된 것이다. 바로 이런 관계가 강력한 개인주의를 창출한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사람들을 상호 소외시키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익명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매커니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거리화와 매개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외적인 관계들이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다른 시기들에 비해서 사람들의 개인적 색채 및 고유한 자아와 더욱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인간의 고유한 자아는 외적인 관계들로부터 물러나서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더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차원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처럼 화폐라는 매개 형식을 통한 거리화의 발생은 화폐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더 근대 사회·문화의 논리적 구조와 실질적 내용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 형식'은 그것이 가장 일반화된 근대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삶의 방식을 비롯하여 근대에 새롭게 양식화된 예술 장르 등을 생성하고 확산하는 힘으로서 이해가 가능해진다.²³⁾

5. 결론

22) Georg Simmel, *Money in Modern Culture*, op. cit., p.18.

23) 이것은 경제적 관점으로 본 화폐 결정론과는 구별된다. 짐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 사회에 널리 퍼진 '화폐 형식'이 가진 문화적 의의이다. 그 역시 화폐 경제에서 비롯되는 소외(alienation)나 물신(fetish)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보다 교환의 순수한 형식으로서 화폐가 가진 '매개'와 '거리두기' 기능이 외부의 사물에서 비롯되는 '객관문화'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영혼과 내면성의 영역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식으로서의 화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마무라 히토시, 이성혁·이혜진 역, 『화폐인문학』, 자음과모음, 2010, 37-66면 참조.

읽기·말하기·쓰기를 연계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독서와 토론> 강의사례를 중심으로-

손혜숙

<목차>

1. 들어가며
2. 읽기의 개념과 과정
3. 수업모형 구축과 적용사례 분석
4. 교육적 효과 및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2000년대 들어서 각 대학에서의 의사소통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 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를 아우르는 과정으로, 자아 및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 이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짜임새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의사소통 교육의 공통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목적 하에 각 대학에서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이 공통교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연계를 담보하고 있는 만큼 이 네 과정이 균형있게 다루어질 때 의사소통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의사소통과 관련한 어떤 교과목이든 기본적으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과정은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네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강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이 연구의 대상 교과목인 <독서와 토론> 역시 읽기와 말하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독서와 토론이라는 강좌 안에서도 강의의 진행 방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중 방점이 찍힌 부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독서와 토론에 관한 논의¹⁾가 이를 뒷받침한다.

읽기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 해석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논의²⁾가 있는가 하면, 토론에 집중하여 독서토론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토론 모형을 제시하는 논의³⁾, 또한 강의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의⁴⁾도 있다. 이 외에도 독서토론 수업의 다양한 평가 도구들을 제시한 논의⁵⁾,

1) 독서와 토론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는 본 연구자가 학술 대회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는 소략하고, 이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 193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집 참고.)

2) 김남미(2009), 「개념도를 활용한 독서와 작문 교수법」, <독서연구>제22호, 한국독서학회.
김미란(2012), 「다섯 가지 텍스트 해석 방법을 활용한 읽기 중심 교육 모형의 개발」, <대학작문>5호, 대학작문학회.

3) 이황직(2007), 「개방형 논제 제시 독서토론 모형 연구- 교보·숙명 독서토론 방식을 중심으로」, <독서연구>17, 한국독서학회.

이재성(2010), 「다양한 토론 방식을 적용한 <독서와 토론>수업 모형의 토론 자기 효능감 연구」, <새국어교육>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서정혁(2009), 「'찬반 대립형 독서토론' 모형 연구-교보·숙명 전국독서토론대회 모형을 중심으로」, <독서연구>21, 한국독서학회.

4) 이명실(2003), 「대학에서의 독서지도를 위한 교재 구성과 활용」, <독서연구>10, 한국독서학회.

이은주(2011), 「독서토론과 연계한 대학글쓰기 수업의 효과 -덕성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토론 전 참고자료 활용 방법에 관한 논의⁶⁾, 읽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한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을 제시한 논의⁷⁾ 등 독서와 토론 교과목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읽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한 교육 모형을 제안한 김양선과 나은미의 논의는 주목해 볼 만하다. 김양선의 경우 토론을 위한 사전활동으로의 발제문, 독서 사후활동으로의 찬반 토론 방식과 구체적인 토론 주제 제시, 텍스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를 읽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한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은미의 경우도 김양선과 마찬가지로 읽기의 일환으로 발표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으로 나아간다. 단, 쓰기로 칼럼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양선의 모형과 변별된다. 이들의 연구는 읽기, 말하기, 쓰기의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실제 독서 토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모형에 비해 그것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 내용과 활동 모형이 구체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고, 적용 사례 또한 충분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장담하기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읽기, 말하기, 쓰기를 연계한 선행 연구를 수용하되, 방법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활동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강의에 적용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교육으로서의 <독서와 토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의사소통 교육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연계 하에서 진행될 때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연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 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장에서 다룬 읽기 과정과 접목시켜 구체적인 강의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실제 강의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 모형과 강의 모형의 실효성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도출해 낼 것이다.

2. 읽기의 개념과 과정.

독서와 토론이 읽기와 말하기의 융합형태임을 고려해 볼 때, 읽기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읽기에 동반되는 요인과 개념. 그리고 읽기의 과정을 짚어볼 것이다. 과거에는 읽기가 문자 기호 해독이나 텍스트의 해석에만 강조점을 두고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 읽기의 의미는 독자의 배경지식들을 동원하여 여러 정보들을 연결·통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지적 행위로 변모해왔다. 때문에 다각적인 요인들이 읽

구)26. 한국독서학회.

이황직(2011),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제 26호, 한국독서학회.

신희선(2012),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독서토론> 수업 사례」, <사고표현>5,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이순옥(2013), 「대학인을 위한 고전독해 및 토론수업 방안-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중심으로」, <대학작문>6, 대학작문학회.

변상출·박규준(2013), 「'교양 키워드 읽기'를 활용한 《독서와 토론》의 수업내용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 7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5) 정종기(2006), 「독서토론의 수행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

6) 이은주(2010), 「독서토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덕성여대 《독서와 표현》강좌에서 참고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 연구>4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7) 김양선(2009),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텍스트 읽기, 말하기, 쓰기 통합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2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나은미(2013), 「교양 기초 교육으로서 읽기·말하기·쓰기의 연계 및 통합 유형 검토 및 제안-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II> 사례와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작문>6, 대학작문학회.

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Zintz&Maggart은 읽기 행위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읽기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독자가 자신에 대한 신뢰성과 집단 내에서의 협동심이 있고, 사회적 수용성이 풍부하면 읽기가 수월해진다. 둘째, 읽기는 심리적 과정으로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생각. 즉 독자의 감정적인 안정성이 읽기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셋째, 읽기는 생리적인 과정으로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읽기는 지각적 과정으로 글자의 크기, 형태, 부분과 전체, 순서 등에 대한 지각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읽기는 언어적 과정으로 형태와 소리와의 관계, 어조 및 관용적 표현 등의 언어적 표현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읽기는 지적인 과정으로 단어에 대한 지식, 기억, 비판적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⁸⁾ 정리하자면 읽기는 어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 비판적 판단력을 비롯하여 독자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읽기 행위에 동반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선행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 생산적인 읽기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란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의 배경지식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사고 과정임을 상기해 볼 때, 이에 맞는 체계적인 읽기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읽기의 과정은 단계별로 축어적 읽기, 추론적 읽기, 평가적 읽기, 창의적 읽기로 구획해 볼 수 있다.⁹⁾

먼저 축어적 읽기는 텍스트의 표층 읽기로 텍스트의 핵심어(소설인 경우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관계도)나 주제 등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읽기의 방법이다. 즉 어휘에 충실하여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핵심어를 추출해 내며 그것을 통해 주제를 도출해 내어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실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추론적 읽기는 텍스트의 표층 의미만을 파악하는 축어적 읽기와는 다르게 의도, 관점, 함축, 맥락 등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론하며 읽는 방법이다. 텍스트를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찾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까지 포착해 내는 과정이다. 또, 문장의 연결 관계를 통해 생략된 정보 도출, 비유적 표현의 의미 추론, 사건의 전개 순서나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 배경 지식의 활성화, 장면과 분위기 파악을 통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집필 당시 필자의 상황과 시대까지 파악한다.

평가적 읽기는 축어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기반으로 정리된 내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읽는 텍스트의 내·외재적 읽기의 종합적인 형태이다. 필자의 관점이 옳은가를 판단·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글의 내용, 표현, 구성 등에 대한 적절성, 정확성, 타당성과 효율성을 파악하는 읽기이다.

창의적 읽기는 축어적, 추론적, 평가적 읽기의 결과에 대한 활용 과정으로 읽기의 결과로서 독자의 주체적인 사고를 형성하며 읽는 방법이다. 즉 축어적, 추론적, 평가적 읽기의 결과로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는가&동의할 수 없는가, 만약 동의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텍스트에 제시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는가,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의

8) 천경록(1997), 『읽기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7쪽에서 재인용.

9) 읽기 과정의 체계는 다음의 구획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읽기의 기능	Bloom	Barrett	Marzano
축어적 기능	지식이해	축어적 재인 및 회상	정보수집
해석적 기능(추론적)	적용·분석·종합	추론	조직·분석·생성·통합
평가적 기능	평가	평가	평가
창조적 기능		감상	

(이경화(2001),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42쪽.)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텍스트에 제시된 문제를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 혹은 사회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는 등의 확장적 사고가 동반된 읽기의 과정이다.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읽기 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구축한 읽기 과정을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연계’에 접목하여 독서와 토론 강의의 수업 모형을 설계한 후 각 단계별로 진행한 실습 내용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서와 토론 강의 모형의 효율성을 증명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의사소통 교육으로서의 독서와 토론 강의를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제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3. 수업모형 구축과 적용사례 분석

본 연구자는 독서와 토론 강좌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분석·추론·종합하여 판단하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지향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소통의 과정으로서의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를 실현해 내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수업모형① 대상 텍스트: 조디 피콜트, 광영미 역, 『마이 시스터즈 키퍼』, 이레, 2008.¹⁰⁾

차시	단계	내용	활동
1차시	축어적 읽기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텍스트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읽은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한다.	독서카드 작성
2차시	추론적 읽기	·텍스트의 심층의미를 분석한다. ·텍스트의 심층의미 분석을 통해 1차시에 작성했던 독서카드의 내용을 검증한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3차시	평가적 읽기 & 창의적 읽기	·1,2차시의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생각해 볼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 논제를 만들어 본다. ·조별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한다.	·토론 개요서 작성 ·토론 ·토론 보고서 작성
4차시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작성한 토론 개요서 및 토론 준비도를 점검한다. ·토론 및 평가	

수업모형② 대상 텍스트: 올더스 헉슬리, 이덕형 역, 『멋진 신세계』, 문예출판사, 1998.

차시	단계	내용	활동
1차시	창의적 읽기	·해당 텍스트와 관련된 영화 ‘가타카’를 시청한다.	영화 감상 및 활동지 작성.

10) 이 수업 모형에 대입했던 대상 텍스트는 비단 조디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 뿐만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등 여러 장르가 있다. 대입했던 텍스트 중 조디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유일하게 고전 교양 도서가 아니고, 독서와 토론 교과목에 관한 논의에서 회자되지 않았기에 소개의 차원에서 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강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영화와 공통된 문제를 다룬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 보면서 다음 텍스트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	
2차시	축어적 읽기 & 추론적 읽기	학습자들은 독서카드에 자신이 읽은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독서 카드 내용을 점검한다.	독서 카드 작성
3차시	평가적 읽기 & 4차시 창의적 읽기		토론 개요서 작성 토론
5차시	평가적 읽기 & 창의적 읽기	1. 서평 쓰기 방법 설명 2. 자유형식의 서평 설계 및 작성.	서평 쓰기

3.1. <수업모형①>의 경우- 조디 피콜트, 광영미 역, 『마이 시스터즈 키퍼』, 이레, 2008.

첫 번째 텍스트의 경우는 학습자들의 첫 읽기와 말하기 실습 대상 텍스트라는 점을 감안에 흥미와 다양한 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때문에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독서와 토론” 권장도서 100선 목록과 함께 대학생에게 적합한 베스트셀러 목록을 제시한 후 학습자들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조디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미국 듀크대학의 하계 독서프로그램 선정도서 중 하나¹¹⁾로 등장인물들이 화자가 되어 각각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독특한 서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시점과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비롯해 문학작품 감상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서토론의 대상 텍스트로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상 텍스트가 정해진 후 텍스트를 읽을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읽기의 과정에 따라 ‘교양’과 ‘대학생’의 문제를 다룬 짧은 글들을 함께 강독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후 독서카드 작성이나 발표가 이 강의의 전체를 관통하는 읽기의 과정(축어적 읽기, 추론적 읽기, 평가적 읽기, 창의적 읽기)을 중심축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읽기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①독서카드 작성

읽기의 과정에 대한 연습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은 읽어온 텍스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 정리하는 것이기에 소설 텍스트를 고려한 독서카드 형식을 제시해 준 후 형식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거나 제시된 독서카드의 항목들에 부합하는 자유형식의 텍스트 정리 단계를 이행했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실제 작성한 독서카드의 예이다.

11) 신의향(2010), 「대학교육을 베스트셀러 읽기, 토론으로 시작하다-미국대학의 신입생을 위한 하계 독서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제4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계도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정리하고 있으며, 시간 순서에 의한 사건의 배열 정리와 함께 각 사건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간단한 생각과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배경에서는 이 텍스트가 등장인물 각각의 시점에서 전개된다는 구성을 고려하여 각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역할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축어적, 추론적 읽기를 진행한 후 이어 질의 사항과 토론 논제, 그리고 인상적인 문장과 그에 대한 생각 정리를 통해 평가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로 나아가고 있다. 독서카드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문화·시대적 맥락에서의 정리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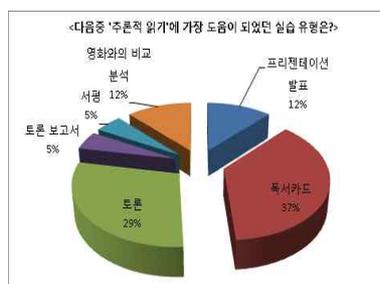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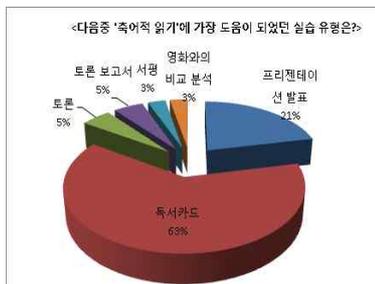
<사례②>의 경우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텍스트의 특징을 확연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①>과 변별된다. 물론 학습자의 기본적인 미적 감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선택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표현 방법, 흥미롭게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읽기와 쓰기에 흥미를 불러 넣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사례②>의 학습자의 경우 제목의 상징성을 활용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고 있으며, 신문의 표제와 부제 형식을 빌려와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참신성도 있지만 다양한 논제들을 도출해 내고, 제목의 의미를 짚어보며 개인의 평가를 제시하는 부분 역시 읽기 과정에 충실한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정리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서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은 읽기의 과정을 전제로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텍스트를 읽은 후 학습자 개인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에 평가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를 적극적으로 수반하기엔 한계가 있다.¹²⁾ 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학습자 간의 주관적인 소통만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정리한 내용의 객관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정리한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증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전 같은 텍스트를 읽은 여러 타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②프리젠테이션 조별발표

이런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발표의 경우 텍스트의 장을 나누어 조별로 진행하였고, 발표의 형식을 자유 형식으로 열어 두었다. 비문학 텍스트의 경우 읽기의 과정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학 텍스트의 경우 읽기의 과정을 고려하되 형식적인 측면에선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비문학 텍스트는 보통 설명과 설득에 초점이 맞춰져 기술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전달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읽기 과정을 기준으로 구성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문학 텍스트, 그 중에서도 소설 텍스트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 파악의 어려움 보다는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관계, 역할이나 상징적 의미

12) 실제로 학습자들이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독서카드 작성이 축어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 2013학년도 2학기 중앙대학교 독서와 토론 수강자 108명/오차 범위:±1%)



들을 비롯해 텍스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읽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조디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소설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유 형식의 프리젠테이션 조별 발표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조별 회의를 거쳐 자신들이 맡은 부분의 내용과 여러 제반 문제들을 파악·분석한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진지하게 모색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식의 다각적인 분석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텍스트의 서두 부분을 맡은 조는 텍스트 이해의 기본 사항들, 이를테면 저자 소개, 등장인물의 관계도, 텍스트가 나오게 된 배경 등의 서지를 중심으로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했다. 또, 텍스트 내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맡은 조의 경우는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했고,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을 맡은 조는 텍스트 전반에 대한 정리와 영화 『마이 시스터즈 키퍼』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또, 형식적인 측면에선 가상 라디오 방송 형식, 등장인물들 간의 법정 변호 장면을 재현한 형식, 가상 뉴스 형식, 기존 시사프로그램이나 토크쇼를 패러디한 형식, 시사회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주로 시각적인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 표현했는데, 준비한 학습자들 대부분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했고, 발표를 경청하는 학습자들 역시 흥미를 가지고 임했다. 물론 발표 형식의 참신함과 입체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형식에 부합하여 다각적인 텍스트 분석이 동반되었기에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발표를 듣는 학습자들의 경우 1차시에 작성했던 각자의 독서카드를 보며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습자들 간의 프리젠테이션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의 참여도도 높고, 강의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에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진행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발견되었다. 먼저, 발표하는 학습자들이 발표의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형식의 시도가 전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텍스트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학습자들 스스로 할당된 부분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 접근 방식이나 내용의 겹침, 내용의 빈곤 등이 발생해 생산적인 발표를 진행할 수 없다.

③조내 토론

독서카드 작성과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축어적, 추론적, 평가적 읽기의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말하기 실습을 통해 평가적 읽기를 구체화하여 창의적 읽기로 나아간다. 다음과 같은 프리젠테이션 발표에서 각 조가 제기했던 문제들과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 논제를 만든다.

- 맞춤아기는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 사라의 행동은 정당한가?
-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야 하는가?
- 미성년자의 의사결정권을 부모가 갖는 것이 정당한가?
- 의사로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캄벨이 안나의 사건을 맡은 것은 정당한가?
- 제시의 방화를 눈감아준 브라이언의 행동은 옳은가?
- 대리모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청소년 범죄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인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가?

위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듬어 논제로 정립하여 각 조별로 논제를 선택한다. 선택한 논제를 가지고 조별 모임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첫 토론인 만큼 토론의 형식을 익히고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사전 협의가 가능한 조내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5명이 한 조가 되어 사회자 1인,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역할을 나눴다. 토론의 형식은 교육토론의 형식을 따르되, 사회자를 설정하고, 토론의 승패를 가르지 않는 자유토론의 일부를 가져와 재구성하였다.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학습자들은 개인 개요서를 작성해 e-class에 업로드 한 후, 각자의 개요서를 가지고 조별로 다시 모여 토론의 방향을 설계한다. 개인별 토론 개요서 작성은 토론에 앞서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아울러 주장에 대한 풍부한 자료 섭렵과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접하게 하고, 조별 발표는 개인별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한 활동이기도 하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토론 개요서 작성이 실제 토론에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설문에 8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토론 개요서 사례>

<p>논제 :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p> <p>우리 팀, 나의 주장(반대) :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다.</p> <p>우리 팀, 상대 팀(예측)</p>	
<p>1. 논점(주장)</p> <p>①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시기상조 ②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 만연 ③ 남용 가능</p>	<p>1. 논점(주장)</p> <p>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②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준다.</p>
<p>2. 논거와 근거 자료</p> <p>①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시기상조 ● 사회, 국가적으로 소극적 안락사도 전체적으로 용인되지 않음(국가별 차이) ●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 만연 ●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 자살의 안전장치 → 자살률만 해마다 증가(그라프 인용) → 죽음에 대한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 찬성과 자살예방장학은 모순(자살예방법제의 252조 2항 적용 원문) ③ 남용 가능 ● 반자의적 남용 :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안락사를 증가, 그와 함께 환자의 종류 및 안락사 시행하는 경우도 증가(안락사 증가 그라프, 안락사를 시행한 간호사들 반 이상이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원문) ● 살인의 용도 : 의사가 대가를 받고 시행할 경우 위장할 수 있음 / 케보카인 의사의 사례(원문) → 결국 살인의 실패(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의 252조1항 학폭승남에 의 한 살인의 원문), 또한 가족의 경우 존속살해(250조 2항 원문) / 독일 나치의 경우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로, 우울증 없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 안락사 시행 →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 ● 경제적 부담의 남용 : 경제적 이유로 가족부양 포기, 안락사 합법화 시 보람금 시기 위장 실행 가능(원문 금요일 원문)</p>	<p>2. 논거와 근거 자료</p> <p>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자신의 생명과 삶의 여한 끝나는 요즈음 자신에게만 있다. 한법에 정서는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락사에 찬성함. ●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②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 시스템이 취약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료부담을 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도 자유를 그만두고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살 수 있는 다른 환자의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p>
<p>3. 상대 팀 입론에 대한 반론</p> <p>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입론에서의 같이 실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안락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자의적 안락사의 형태가 일어나 오해의 가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결국 안락사의 찬성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존엄과 생명 존엄성을 훼손시키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로서 주목해야 한다. ● 금치권인 죽음을 선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이 될 수 없다. 호스피스 제도,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개인을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 오히려 안락사로 인한 사회적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의 삶 자유를 해하는 것이다. ●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에 해결의 주안점을 두어야지만 존엄한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 ● 오히려 경제적 문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p>	<p>3. 우리 팀 입론에 대한 상대 팀의 반론</p> <p>● 방법론적인 차이일 뿐, 소극적 안락사의 본질은 같다.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추세와 같이 적극적 안락사도 경제적, 개인의 자유를 위해 인정해야 한다. ● 현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를 잘 갖추면 남용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 일부국가의 사례만이 일반화할 수는 없다.</p>

<p>● 남아있는 환자들에 대한 가족의,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한다는 현대관 고려해야 할 수 있다.</p>	<p>4. 상대 팀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대책</p> <p>●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빨라 생부름 결정이 될 수 있고, 자연스레 죽지 못한 정에서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 안락사 시행 방법이 윤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는 법칙은 비 자연스러운 적극적 안락사에 맞지 않는다. ● 전문적인 정보에 따라 좌우되므로 의사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다, 결국 의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남용은 법 제도로 막을 수 없다. ● 근속적 안락사를 인정할 국가에서 안락사 시행이 늘어 나는 수치이므로도 그 안에서 안락사 시행을 늘려 줄 제도를 무시할 수 없다.</p>	<p>4. 우리 팀 반론에 대한 상대 팀의 대책</p> <p>● 법제화를 통해 반자의적 안락사를 방지하면 된다. ● 호스피스 제도, 인식전환은 모두 하위하위 그들 속에 살아있는 환자와, 경제적 문제로 고통 받는 가족들에게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은 한계가 있다.</p>
<p>● 적극적 안락사의 시행은 결국 자살률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생명경시문제를 낳는다. 독자를 주어를 통한 일적인 사망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생부름 결정될 수 있는 불안행위이다. 또한 정부의 독감성과 전문성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편중이 되므로 법제화를 통한 남용의 경지는 무용지물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과 호스피스 등의 대안을 통해 죽음과 살아있는 의미에 대해 최고치자살을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해야한다.</p>	<p>5. 나의 최종 발언</p> <p>● 적극적 안락사의 시행은 결국 자살률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생명경시문제를 낳는다. 독자를 주어를 통한 일적인 사망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생부름 결정될 수 있는 불안행위이다. 또한 정부의 독감성과 전문성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편중이 되므로 법제화를 통한 남용의 경지는 무용지물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과 호스피스 등의 대안을 통해 죽음과 살아있는 의미에 대해 최고치자살을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해야한다.</p>	<p>5. 상대 팀의 최종 발언</p> <p>● 환자의 개인적 자유 보장과 경제적 문제 해결, 다른 환자들의 의료권을 위해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되어야 한다. 간헐적인 해결방법을 양산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환자 가족의 존엄한 죽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p>

<p>● 정답</p> <p>OECD 국가 자살률 통계</p>	<p>● 원문</p> <p>자살자 사망률(252조 2항) : 자살률이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것이다. ● 죽자살자에 의한 살인죄(250조 1항) : 남의 부덕이나 증상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살양죄보다 형을 경감할 것이다. ● 존속살해죄(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때(적합한 경우)에 한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로 기초죄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살양죄와의 형을 과하다(33조 2항).</p>
<p>● 원문</p> <p>Number of Reported Euthanasia Deaths in the Netherlands (By Year)</p>	<p>● 원문</p> <p>Hastening Death</p> <p>The number of people taking part in aid-in-dying programs in Belgium and the U.S. has steadily increased.</p>

위의 사례와 같이 학습자들은 각자 개인별 토론 개요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의 설득력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정리된 개별 개요서를 가지고 조원들과 모임을 갖는다. 한 조가 5명이기에 5개의 개요서가 모아

지고, 이렇게 취합된 내용들은 토론을 위해 선택·배제의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조내 토론의 경우 ‘입론(찬성:2분/반대:2분)→숙의시간(2분)→교차질문(반대:3분/찬성:3분)→사회자 중간 정리(1분)→자유토론(9분)→최종발언(반대:2분/찬성:2분)→사회자 최종 정리(1분)→질의응답(3분)’의 과정으로 진행했다.

이 모형은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자가 토론을 정리해 줌으로써 청중들은 토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경청할 수 있게 된다. 토론자들은 사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찬/반 입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토론에 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협의 및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동성이나 입체감이 떨어져 토론의 생동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내 토론을 진행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토론의 형식을 익히고, 첫 토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최소화하며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복돋아 주기 위함이다.¹³⁾

조내 토론이 진행될 때 나머지 청중은 배포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평가표 작성은 토론을 경청하는 청중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토론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익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하였다. 총 20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토론자 개개인을 평가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사회자는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조의 총평을 쓰고, 우수토론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토론 평가표 작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학습자들은 평가표를 꼼꼼하게 작성했지만, 토론 평가표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결과를 보면 토론 평가표의 효과를 장담하기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개인 평가표 작성이 토론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답변이 53%,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47%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류이 학습자들의 설문 반응만으로 효과를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학습자 중심의 강의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순 없다.

또한, 조내 토론 모형의 경우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 토론 진행에서는 학습자들이 조내 토론을 선호하고, 그 효과 또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강의의 경우 오히려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되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습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실제로 ‘이 강의 시간에 실습한 토론 유형 중 가장 유익했던 토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74%가 조 대항 토론, 15%가 조내 토론, 11%가 전체 토론이라 답했고, 그 이유로 ‘진짜 토론을 하는 것 같아 설레었다.’, ‘현장감이 있어서 흥미로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내 토론이 모두 종료가 되면 토론 보고서 작성을 통해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용은 학습자 자신이 했던 토론 논점과 내용 정리, 다른 조의 토론 중 인상적인 토론의 논점과 내용 정리, 토론 후 정립된 생각 및 첫 토론을 마친 소감, 자신이 속한 조의 자체 평가 등이다.

3.2. <수업모형②>의 경우- 올더스 헉슬리, 이덕형 역, 『멋진 신세계』, 문예출판사, 1998.

①영화와 텍스트의 연계- 영화 감상&독서카드 작성

첫 번째 텍스트는 교수자가 제시한 목록 중에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텍스트를 선정해 읽기의

13) 실제로 강의 초반에 진행한 ‘<독서와 토론> 자기 효능감 자기 점검’에서 ‘나는 토론에 자신감이 있다.’는 항목에 9%가 ‘그렇다.’, 45%가 ‘보통이다.’, 46%가 ‘아니다.’로 체크했다. 때문에 연습을 통해 토론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했다.

주지하다시피 영화 『가타카』를 감상한 후 영화 『멋진 신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에 관련한 기사도 함께 제시해 생각해 볼 문제를 유도하고, 같은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장르적 방식 또한 함께 접하게 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전 교양 목록에 있는 만큼 『멋진 신세계』를 비교적 많이 접해 본 학습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텍스트 이해와 분석에 있어서 다각적인 시각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게 되고, 이것은 나아가 토론과 서평 쓰기의 밑거름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②조 대항 토론

첫 토론이 토론의 형식을 익히고, 자신감을 형성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이었다면 두 번째 토론의 유형은 실제 토론과 같은 생동감을 형성하고, 학습자들의 순발력과 재치를 함양하기 위해 설계했다. 때문에 기본 형식은 지키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자유 토론의 시간을 늘렸다.¹⁴⁾ 또,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사회자 대신 교수자의 진행 하에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 조별로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한 후, 조끼리 하나의 입장에 초점을 두어 자신이 속한 조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논점과 근거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게 했다. 물론 첫 토론과 마찬가지로 개별 개요서 작성과 취합을 통해 상대 팀에서 내세울 논점과 근거를 어느 정도 추측·대비 할 수는 있으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서 상대팀에서 내세울 내용들이 예상했던 바에 부합할지의 여부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첫 토론에 비해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각 조별로 준비해 온 것을 바탕으로 당일 만나서 이루어지는 토론이기에 자칫 토론이 두서없이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교수자가 투입되어 토론을 진행한 것이다.

조 대항 토론의 경우 토론 전 학습자들과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설레임과 긴장감을 갖고 토론에 임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토론 후에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실제로 진짜 토론을 한 것 같다.’, ‘뿌듯하다.’, ‘생동감이 있어 재미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각 입장의 근거와 반박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을뿐더러, 각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토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론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40명이 넘는 학습자들을 각 토론 유형마다 모두 참여하게 하려는 교수자의 과한 욕심과, 학습자들 개개인의 토론 능력을 재빨리 파악하여 토론 진행 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③서평 쓰기

토론이 종료된 후 첫 번째 텍스트를 토론 보고서로 마무리 한데 반해 두 번째 텍스트의 경우는 자유 형식의 에세이 서평으로 마무리를 했다. 서평의 경우 글쓰기 강좌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습유형이다. 교수자 마다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에 따라 방향 및 서평 유형도 다양하겠지만 글쓰기 강좌에서 주로 활용되는 서평은 소개 서평이나 학술 서평을 포함해 일정한 형식에 준한 방식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서평에 관한 간단한 이론 강의 후 자유 형식의 에

14) 조 대항 토론은 찬성 5인, 반대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각각 대표 패널 2인, 서브 패널 3인으로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 대표와 서브의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론(찬성:3분/반대3분)→숙의 시간(3분)→교차질문(반대:4분/찬성:4분)→2차 숙의 시간(4분)→자유토론(20분)→최종발언(반대:2분/찬성:2분)→질의 응답(5분)’

세이 서평을 쓰게 했다.

형식을 열어 놓은 만큼 다양한 방식의 서평들이 도출되었고, 학습자들 역시 정형화된 글쓰기의 부담감에서 벗어나서인지 즐거운 태도로 임하는 반응을 보였다. 시 창작, 전자 신문, 개사, 랩, 패러디 시, 인터뷰, 페이스 북, 웹페이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는데, 자신의 전공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접목하는 학습자들도 있는가 하면 개사한 노래나 랩을 직접 녹음하여 서평과 함께 제출한 학습자들도 있어 흥미로웠다.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 오로지 평가만을 위한 서평 쓰기 작업이라기보다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또 그렇기에 더 적극적으로 써 내려갔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양한 형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생각들을 심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의 단계별 활동을 통해 글을 분석, 종합, 추론, 판단하는 주체적인 사고 과정을 탄탄하게 거쳤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4.교육적 효과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